



3

197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3호

(루게 377)



## ◆◆◆◆◆◆◆◆◆◆ 차 례 ◆◆◆◆◆◆◆◆◆◆

립체적인 극구성의 완벽성 .....	4
인민의 나라 주체의 조국이어 .....	9
일당백 병사들은 맹세한다 .....	18
혁명투사들의 고귀한 충성심을 따라배운다.....	19
잊을수 없는 충성의 친위전사들 .....	20
혁명의 풍랑을 한몸으로 헤치시여 .....	21
봉화산에 올라 .....	23
사랑의 물줄기, 생명수에 대한 뜨거운 화폭.....	25
녀주인공들의 생동한 형상 .....	26
이보다 더 큰 행복 세상에 없네 .....	28
충성을 바쳐가는 오직 한마음 .....	28
<b>김일성</b> 주석의 노래 .....	29
경애하는 <b>김일성</b> 원수님 .....	30
그이는 세계혁명의 위대한 태양 .....	30
위대한 혁명가정 .....	31
평양에 사는 의미 .....	32
다듬은 말 .....	34

밝은 웃음 .....	35
전사는 살아있다 .....	43
철의 도시 새벽길을 걸으며 .....	50
막장의 첫날 .....	54
여기는 최전선-지하막장 .....	55
탄부, 나의 교대동무들 .....	55
눈은 내리고 발자국은 묻히워도 .....	56
렬차가 지날 때마다 .....	57
벗에 대한 생각 .....	58
탄부의 일기 .....	60
위대한 힘 .....	62
사령원의 뜨거운 심정 .....	64
충성의 한마음을 담고저 .....	67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과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탐구 .....	70
단편소설의 흥미와 철학적깊이 .....	75
감정조직과 흥미 .....	78
지하전선을 찾아온 단편소설 .....	80

## 립체적인 극구성의 완벽성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함께 그것을 표현하는 구성형식의 완벽성으로 하여 극작술상 새로운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가들이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놓을것이 아니라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사건처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사실자료를 기계적으로 작품에 옮겨놓으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에서 제기한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 의의있는 사상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구성을 치밀하게 세우는 세련된 기교가 없이는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극예술을 구성의 예술이라고 하는것도 이와 관련되어있다.

극에서 구성에 대한 요구는 아주 엄격하게 제기된다. 구성에서 자그마한 빈구석이라도 생기면 작품의 주제사상이 명백하게 안겨오지 않을뿐아니라 생활의 논리에 맞게 자연스러운 이야기흐름으로 관중들을 공감시킬수 없다.

다시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종자라도 정연한 이야기줄거리로 잘 엮여서 작품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조화롭게 구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꽃피울수 없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극구성에서 지난날의 낡은 틀을 마스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다장면구성법을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사실주의극문학발전에서 전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극적묘사방식에 기초한 희곡문학에서는 장면설정이 구성작업의 기본을 이룬다. 막과 장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떤 원칙에서 전개하는가 하는것은 극구성작업에서 언제나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종래의 낡은 연극의 형식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을 몇개의 국한된 장면에 무리하게 끌어넣음으로써 생활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없게 하였다.

가령 무대적제한성을 피할수 없는것으로 여겨오던 낡은 극작술에서는 들판이나 산중에서 진행하여야 할 이야기도 집장면에서 하게 함으로써 인위적인 감을 많이 주었다.

다른 장면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무리하게 끌어들이는것은 극을 지루하게 만들고 생활을 다양한 시점에서 립체적으로 반영할수 없게 한다.

이러한 극구성의 낡은 틀은 4막극 구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격식화된 형식주의적극작

술의 하나였던 이 구성법은 생활의 논리를 무시하고 그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도 4개의 막과 장에 도식적으로 틀어맞추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무대조건의 제약성을 불가피한것으로 여겨오면서 구성을 해오던 낡은 극작술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생활의 논리에 맞게 립체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다장면구성법을 완성하였다.

이 형식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무대조건의 제한성을 성과적으로 극복한 기초우에서만 가능하였다.

다장면구성법은 한개의 장면을 끝내고는 불을 끄고 다음 장면을 지루하게 기다리던 무대조건의 제약성을 극복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장면전환을 영화를 보는것처럼 흐름식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아무리 많은 장면도 생활의 논리에 맞게 극상할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가장 현대적인 《성황당》식 극구성법은 오늘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미학정서적취미에 알맞는 극구성형식으로 되었다.

《성황당》식 극구성법의 요구는 생활의 논리에 맞게 등장인물들의 행동선을 따라 장면을 다양하게 펼쳐되 산문화의 경향을 철저히 없애는것이다.

산문화는 생활의 극적반영의 근본요구자체를 무시하고 서사적으로 생활을 반영하던 나머지 장면을 무원칙하게 평면적으로 라렬하였다.

이것은 극적묘사방식에 기초한 극문학의 본성적 요구를 거세하는것과 다름이 없다.

산문화는 매 장면들을 횡적으로 늘어놓고있기때문에 그것이 주인공을 축으로 하여 극적인 관계의 견인력있는 호상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성황당》식 극구성은 다장면이면서도 산문화의 요소가 전혀 없으며 그 매개 장면들이 시종일관 심각한 극성으로 충만되고 고도로 집약화, 집중화되어있다.

다시말하여 장면들은 생활의 극으로 충만되어있을뿐아니라 생활의 정수를 담고있음으로 하여 내용의 깊이와 무게를 잘 보장하고있다.

여기서는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적인 생활을 늘어놓지 않고 몇개의 극적인 화폭을 통해 집약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모든 장면들은 종교와 미신의 반동성과 그 본질을 해부하는 각도에서 그리고 종교와 미신은 사람의 자주정신을 마비시키는 아편과 같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는 시점에서 설정되고 심화되고있다.

미신타파에 대한 자그마한 이야기속에 시대를 일반화하고 한 평범한 머슴군의 형상속에 자주적인 정신의 세계를 밝히는데 이 명작의 구성이 극구성의

고전적본보기로 되는 근거가 있다.

생활의 론리에 맞게 등장인물들의 행동선에 따라 장면조직을 하면서도 명백하고 집약된 극적인 국면을 통하여 시대를 일반화한데 《성황당》식 극구성의 특성이 있다.

장면에 그려진 하나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하게 하며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 보게 되는것도 립체적인 극구성형식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놈들의 계책에 걸려든 박씨가 무당한테 자기 딸의 신수점을 치는 연극의 제6장만 놓고 보더라도 박씨가 걸어온 피눈물나는 전쟁을 더듬어볼수 있을 뿐아니라 복순이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하여 위구를 불러일으키며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된다.

6장 점치는 장면의 편쇄반응에 의하여 7장 복순이의 기구한 운명을 놓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처럼 연극의 매 장면들이 끝나면 이야기가 완화된것이 아니라 더 뽕뽕하게 엮혀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밝히는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명작의 장면들은 하나의 축에 꿰여놓은 구슬처럼 연계되어있으면서 극을 이어받고 떠밀어주고 상승발전함으로써 탄력성있는 정서적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작품이 관중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것은 종자가 철학적이며 소재가 특색이 있고 웃음이 많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극적긴장성을 띠면서 부단히 새로운 이야기를 번져가면서 극적기대속에서 볼수 있게끔 구성조직이 되어있기때문이다.

명작의 극구성은 등장인물의 행동선을 따라 이야기의 흐름에 정서적인 굴곡을 만들면서 한장면한장면 번져나가게 함으로써 극적기대와 긴장성을 띠게 하였으며 관중들의 마음을 죄었다풀었다 하게 하였다.

제8장에서 돌쇠의 제략에 의하여 구장네가 성황당에 올라가기 위하여 돼지, 닭들을 잡느라고 서두를 때 우리는 제9장 성황당에서 지주와의 싸움에 기대를 갖게 되며 그것이 어떻게 번져갈것인가 하고 극적긴장감을 느끼며 보게 된다.

이것은 명작의 매개 장면들이 인과적인 내적관계가 깊고 선행한 장면이 뒤따르는 장면을 낳을수 있는 극적씨앗을 가지고있음을 의미한다.

장면의 이러한 내적인 관계로 하여 그 많은 장면들이 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져도 구성의 일관성과 정연성을 견지하고 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다장면이면서도 빈틈없이 짜이게 된것은 종자에 기초하여 생활의 요구에 맞게 구성이 조직되어있기때문이다.

종자는 작품의 내용을 꾸리고 형식의 모든 요소들을 내용에 맞게 통일시키는데 기초로 될뿐아니라 구성을 세우는 기준으로 된다.

명작은 종자에 기초해서 개별적인 형상요소들을 단일한 전일체제로 통일하면서 정연한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감으로써 하나의 유기적인 구성을 이루게 하고 있다.

작품에 설정되어있는 성황당 부대발문제, 복순이를 군수네 집으로 보내는 사건들 그리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기본인물들의 성격들, 대립되는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극적인 인간관계 등은 사람은 《하느님》이나 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의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작품의 갈피갈피에 반영되어있는 모든 생활세부들은 종교와 미신의 집요성과 그 허위성을 발가놓는데로 바쳐지고 있다.

작품은 여러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있지만은 선택된 다양한 생활들은 종자에 기초하여 정연한 이야기로 구성됨으로써 빈틈없이 짜이게 하였다.

작품의 종자를 싹틔우고 꽃피울수 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는것은 구성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의 서술을 허용하지 않는 극문학은 본질상 인물들의 극적관계에 의하여 성격을 창조한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극에서의 구성은 생활의 극적인 관계를 조직하는 형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구성이 산문화되지 않고 극적으로 빈틈없이 짜인것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극적인 성격을 체현하고 그들의 호상관계가 또한 극적으로 맞물려져있기때문이다.

명작에는 불필요한 인물이란 없을뿐아니라 등장인물들이 다 극적인 성격을 띠고 종자를 해명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십여명의 주요인물이 나오지만 어썬 비슷한 성격이란 찾아볼수 없으며 다 제가끔 자기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개성적인 성격들이다.

심지어 등장하지 않는 약학선생마저도 주인공의 성격발전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자극을 주는 인물로 무게있게 형상되고 있다.

명작의 구성이 극적인 내용으로 조직되었다는것은 등장인물들간에 능동적으로 호상작용하고 반작용하는 원칙에서 극적인 관계가 치밀히 맺어지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돌쇠와 만춘, 박씨와 지주를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 극적인 성격을 띠는것은 그들의 능동적인 작용속에서 성격을 호상 계발하고있기때문이다.

실제상 극적인 성격은 호상작용의 소용돌이속에서만 계발되기마련이다.

이 작품에서의 극적관계에는 성격들간의 대립과 충돌이 깃들어있으며 여기에는 크거나작거나 사회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성이 체현되어 있다.

박씨와 지주처간의 극적관계도 무당에게 점을 치

도록 온갖 미사여구로 피하는 지주처년의 교활한 성격을 계발시키는가 하면 어질고 고지식한 박씨의 성격도 발현시키고있다. 이 두 인물의 극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람이 청명파니 되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성을 밝히고있다.

박씨와 복순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미신에 빠지면 자신의 운명을 망칠수 있다는 사회적문제성을 던져 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비슷한 인물관계란 찾아볼수 있으며 그 모든 인간관계속에서 밝혀지는 문제성도 다양하다.

이것은 작품에서 이러저러한 계급과 계층에 따르는 전형적인 인물들을 끌어서 그들의 관계를 종자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특색있게 맺어놓았기때문이다.

구성에서 산문화의 경향은 장면을 무한정 길게 늘어놓는데도 있겠지만 많은 인물들을 끌어들여 이야기를 산만하게 전개하면서 인물관계를 반복설정하는데서도 표현된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문제성이 뚜렷한 인물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작품의 종자를 심화하는데로 돌려지고있다.

구성의 립체성은 구성의 내용적기초로 되는 인물관계의 립체성을 전제로 한다. 극에서의 인간관계는 사건이 뻗어나가는 과정에 맺어지고 발전하게 된다.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인물관계를 착잡하게 얹어놓는것은 구성의 립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된다.

실례를 들면 성황당 부대발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들이 착잡하게 극적인 관계를 맺고있는가!

봄내, 여름내 등뼈가 휘도록 일구어놓은 성황터 부대밭은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있는 생명선이다.

그러므로 돌쇠와 만춘이, 박씨와 복순이를 비롯한 선돌마를 농민들이 성황당 부대밭에 운명을 걸고 싸우고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권세욕과 치부욕에 눈이 어두운 황금만능주의자들인 지주나 구장놈들 역시 기름진 부대밭을 온갖 구실을 붙여가면서 자기의것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달라붙는다. 여기에 중놈까지 끼여들어 그 땅을 절간에 바쳐달라고 강박해나서는가 하면 전도부인 역시 그 자리에 레배당을 짓겠다고 발버둥을 친다.

이와 같이 성황당 부대발문제 하나를 놓고도 긍정인물들과 부정인물들의 계급적대립이 날카롭게 제기될뿐아니라 부정인물내부에도 무서운 암투가 벌어진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많은 사건을 설정하지 않고서도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인간관계를 다양한 시점에서 착잡하게 얹히게 함으로써 구성의 립체성을 보장하게 하였다.

또한 면장버슬에 올라갔기 위해 복순이를 저마끔

군수놈에게 바치려는 지주와 구장놈의 극적관계도 직선적인 싸움으로 단순하게 얹혀놓지 않았다.

미신에 빠진 박씨를 꼬임으로써만이 복순이를 빼낼수 있다는것을 간파한 지주와 구장은 큰무당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공작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놈들은 복순이를 빼내기전에 큰무당을 먼저 가로채는 행동을 단행하고 그를 중계자로 내세워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발악한다.

이처럼 한 인간의 운명을 두고 서로 대립되는 인물들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여러모로 얹혀놓음으로써 구성의 립체성을 담보하고있다.

이러한 구성의 립체성은 갈등관계의 설정과 그 심화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 작품의 갈등은 주인공 돌쇠를 비롯한 선돌마를 농민들과 지주, 구장놈을 타방으로 하는 계급적인 대립이 전면에 취급되고있으며 여기에 조선인민의 자주정신을 압살하고 무지와 몽매를 강요하며 침략의 앞잡이로 나선 전도부인, 중, 무당들이 끼여드는것이다.

또한 일본놈이나 미국놈의 구체적인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주나 구장, 중과 전도부인의 뒤에는 일본놈이나 미국선교사놈들이 도사리고있다는것을 작품의 주요대목마다에서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의 갈등의 특성은 전도부인이나 중, 무당들이 지주나 구장의 편에 각각 서서 긍정인물들과 대립되고있다는것이다.

이놈들은 지주나 구장놈들의 가운데 서서 유리할 때마다 이쪽에도 불고 저쪽에도 불으면서 땅과 재물을 얻으려고 날치면서 농민들과는 직접적으로 대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장자리를 얻어보려는 지주나 구장은 이들의 요구를 수궁해가면서 농민들의 땅과 남의 외동딸까지 빼앗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이처럼 갈등관계도 직접적 및 관접적방법으로 얹히고 심화함으로써 구성의 내용적기초로 되는 인물관계의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구성이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탄력성있게 집중된것은 주인공의 선을 잘 살린것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이 작품의 구성상 특성의 하나는 부정인물들이 거처하고있는 생활장소에 많은 장면을 제공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부정인물들의 생활이 아무리 많이 묘사되어도 그것이 주인공의 능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좌지우지됨으로써 비록 돌쇠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강한 인상을 준다.

문제는 돌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빛이 나게 등장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돌쇠는 긍정인물들의 중심에 서서 호상간 련계를 맺고 작품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동적인

역할을 맡고있다.

실제상 지주나 구장을 비롯하여 온갖 잡귀신들은 돌쇠의 지혜에 의하여 행동을 단행하게 되며 그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있다.

놈들을 올려추는것처럼 하면서 함정에 몰아넣고 무자비하게 야유하고 골탕먹이는 주인공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격을 그리는데 기본을 두고 부정인물들의 생활을 그리는 방향에서 극조직을 하고있다.

작품에 반영된 부정인물들의 성격에서 풍자적웃음이 것처럼 예리하게 폭발되는것은 바로 돌쇠의 능동적인 역할과도 관련된다.

이것은 구성의 중심에 주인공이 확고히 서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실례는 박씨의 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작품의 구성상특성의 하나는 박씨의 형상을 처음부터 마감까지 심각하게 끌고가고있는것이다.

작품에는 미신에 빠진 박씨가 지주처와 무당의 꾀임에 끌려들어가서 자기 딸의 신세까지 망칠뻔하는 과정, 미신의 허황성을 인식하는 단계까지의 구체적인 생활들이 반영되고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박씨의 행동은 제나름대로 노는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선과 밀착되어있다.

부모 없이 자란 돌쇠는 박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싶어하는 의리가 강한 인물이다. 돌쇠의 행동의 주요목적도 박씨를 지주나 무당의 손아귀에서 빼내는데 있다. 그러므로 박씨가 무서운 구렁텅이에 빠질 때마다 언제나 돌쇠의 구원의 손길이 잇닿아있다.

만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춘이와의 관계를 통하여 종교와 미신에 대한 주인공의 견결한 태도와 립장을 밝히는데 각광을 돌리고있으며 나중에는 돌쇠의 극적과제를 돕는데 나서게 하고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거리가 많고 인물들의 관계가 복잡하지만 구성에서 산만한 감을 주지 않는것은 모든 인물선들이 주인공선을 돌구는데 복종되고있기때문이다.

하여 주인공은 여러 인물들을 련결시키는 중심위치에 서서 종자를 주동적으로 천명해나가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주인공선을 주도적으로 잘 끌고나갔을뿐아니라 기본사건을 축으로 하는 이야기줄거리를 잘 엮어나감으로써 작품의 주선을 명백히 살리고있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극적구성의 중심에는 인물들의 호상련계에 의하여 생겨나고 발전하며 절정을 이루고 결과가 맺어지는 이야기줄거리가 놓이게 된다.

작품에서는 기본사건을 주도적으로 살려나가면서 부차적인 사건들과 세부들을 잘 결부시키고 이끌어나감으로써 구성의 대를 확고히 세우고있다.

명작은 지주와 구장놈들이 면장이 되기 위하여 복순이를 군수놈의 집으로 끌어가려는 사건을 기본

으로 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전개시키고있다.

놈들은 미신에 빠진 박씨를 구슬려서 복순이의 사주팔자를 고쳐주는 유일한 길은 군수놈의 집으로 보내는것이라는 거짓점을 치게 하려고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먼저 큰무당을 가로채는 과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큰무당을 가로채는 사건은 복순이를 군수놈의 집으로 보내려는 사건으로부터 파생된것이다.

뿐만아니라 성황터 부대발을 뺏으려는 사건도 복순이를 빼내려는 기본사건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성황터 부대발을 농민들로부터 빼앗아 군수네와 결탁된 전도부인에게 넘겨줌으로써 면장자리를 얻어보려는 놈들의 리해타산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있기때문이다.

이렇듯 명작에 반영된 모든 사건들은 기본사건을 축으로 하여 인과적인 련계가 밀착되어 심화발전함으로써 구성의 대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극구성에서 시작과 마감을 잘 엮어놓는것은 극조직의 완벽성을 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맺는것은 생활의 일반적인 발전형식이다.

생활을 그 발전형식 그대로 반영하는 극구성도 역시 생활을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은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커다란 결과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성황당》식 구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속에서 종자를 점차 폭넓게 깊이 있게 밝혀나가는 방향에서 세워지고있다.

명작은 처음에 선돌마을 농민들이 강냉이가을을 한 기쁨과 성황당에 대한 평범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서 주인공을 비롯한 기본인물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환경과 성격, 인물관계를 지루하게 설명하지 않고 암시와 예언의 방법으로 극적씨앗을 심어주고있다.

환경과 성격들이 기본적으로 소개된 다음에는 지주와 구장의 등장으로써 기본사건을 제시하고 빨리 본이야기로 들어가고있다.

작품은 시작을 명백하게 하면서도 끝이 뻗드름하게 내다보이지 않게 이야기를 엮어나가고있다.

사실상 우리는 3장까지 흘러오면서 놈들을 그물속에 몰아넣고있는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서 제4장에서 온갖 잡귀신들의 대판싸움까지 예견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야기의 뒤를 짐작할수 없게 감추는 방법으로 극조직을 잘한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시작을 소박하게 하면서도 극의 마감을 거대한 사상이 안겨오게끔 극조직을 하고있다.

이 작품에는 크게 두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다.

그것은 1부 마지막 미신과 종교의 잡귀신들이 싸

움하는 대목이고 다른 하나는 2부 마지막 절정장면이다.

첫번째 령마루에서는 서로 물고 뜯는 종교와 미신의 싸움을 통하여 놈들의 본질을 폭로하는 극적과제를 해결하고있으며 성황당을 까부시는 두번째 최고마루에서는 사람이 종교나 미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를 중국적으로 해명하고있다.

극조직과 극구성에서 첫번째 봉우리가 있음으로 하여 극은 두번째 사상봉으로 더욱 힘있게 치달아 오를수 있는것이다.

마지막 절정장면에서는 부정인물들의 멸망의 필연성을 확인하고 주체의 진리를 높은 정치적호소성을 가지고 힘있게 구가하고있다.

이것은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것은 멸망한다는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이며 그 필연적귀결이다.

극구성의 이러한 립체적인 처리는 통쾌하고 깊은 감동을 자아내게 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다.

그것은 등장인물의 사상감정의 변화과정을 생활의 논리에 따라 섬세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조직이기때문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구성은 단순히 사건조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감정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인간들의 풍부하고 굴곡 있는 감정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며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자면 극조직의 기본으로 되는 감정조직을 잘해야 한다.

우선 감정조직에서 소재가 통겨주는 다양한 색깔과 미적정서속에서 작품의 주되는 감정선을 살려내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연극 《성황당》에는 권세욕에 황금에 눈이 어두운 지주와 구장놈의 계급적본성이 적라라하게 반영되어있을뿐아니라 종교와 미신의 축도판도 펼쳐보이고있다.

한편 근로농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자주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투쟁이 묘사되어있다.

명작의 구성은 이러한 소재적인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풍자회극적인것과 함께 긍정인물들의 정극적인 생활을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맞물리게 하였다.

이것은 정극적인것과 풍자적인것이 호상침투하고 견인력있게 작용하는 원칙에서 극구성을 한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여기로부터 명작에는 증오가 강하고 규탄성이 강한 박력있고 통쾌한 웃음으로 일관된 감정의 흐름과 함께 티없이 깨끗하고 밝은 정서속에서 우리나 온 생활 락천적인 웃음과 기쁨 그리고 눈물로 진하

게 채색된 감정들이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이것은 생활의 논리에 맞는 진실한 감정조직이다.

이 모든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은 단순히 기록적인 라렬로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논리와 본색에 맞게 진실하게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감정조직은 생활의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방법이다.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따라 감정을 축적하고 그에 기초하여 폭발을 주는것은 감정조직을 진실하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생활의 논리와 그에 따르는 인간심리변화의 합법칙적과정으로서의 감정조직의 논리성을 준수하려면 충분한 생활적전제가 마련되고 그에 따라 감정이 어느정도 축적되어야 하며 타당성이 있고 납득이 갈수 있도록 감정폭발의 계기를 의의있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7장 물레방아간 장면에서 복순의 감정조직을 분석해보자.

막이 열리면 쿵쿵 방아찡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복순이는 둥근달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정든 고향, 정든 사람들을 뒤에 두고서 군수놈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복순의 착잡한 심리를 축적시키기 위하여 명작은 제5장에서 복순이와 만춘이의 생활에 대한 회결과 행복한 꿈을 전제로 심어주고있다.

부대발도 더 일구고 농사도 잘 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려던 그 꿈이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복순이의 울분을 한층 더 터뜨리게 하였다.

이 대목에서는 대사 한마디 주어지지 않았지만 감정축적의 계기와 그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는 복순이와 같이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와도 하게 되는것이다.

이밖에도 제1장에서 지주와 구장놈한테 타격을 받고 성황당으로 빌려 가지 않으면 안되는 박씨의 감정축적과정과 성황신을 철석같이 믿던 그가 놈들에게 속히웠다는것을 인식하고 성황당을 까부시기까지의 심리적모대김은 그 좋은 실례의 하나로 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구성의 대를 세우며 그 립체성을 구현하는데서 불멸의 고전적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사실주의 극문학발전에서 거대한 위훈의 탑을 세웠다.

리대철



## 인민의 나라 주체의 조국이어

맑은 아침  
아름다운 산천  
해빛밝은 길을 갈 때면,  
가슴뜨거이 생각하는 마음  
진정 인민의 조국이란 무엇인가

푸른 하늘이 비낀 창가에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맑은 미소가 피어날 때면,  
조용히 생각해보는 마음  
진정 인민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속 깊이깊이 새기며  
목메이는 간절한 생각  
해빛에 실어  
해빛에 담아 노래하노라.

### 1

우리 태어나  
맑은 정기를 마시며 자라고  
우리 자라나  
영원한 삶의 뿌리를 내린  
거룩한 이 땅,

천지의 맑은 물  
영원한 그 흐름에 실려  
새벽마다  
애국가의 은은한 선율이  
만리에 비껴 흐르고,

아름다운 아침해빛  
동해에 솟아올라  
3천리강산에  
은구슬 금구슬을 뿌리는  
맑은 아침의 나라

들에는 금나락  
산에는 황금열매  
산에 들에 풍년새 울고  
은금보화 넘치어  
쇠물빛도 노을로 피는 내 나라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  
천만년 살고싶고 따르고싶은  
사랑하는 내 나라 조선이어

강산에 넘쳐 설레는  
향기로운 가을바람,  
락원의 창문가에서 바라보는  
9월의 맑은 하늘에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날린다

민족의 존엄을 지니고  
승엄히 날리는 펄럭임소리  
인민의 념원을 새겨  
주체의 빛을 뿌리는 오각별,

저 기발을 우러르는  
우리의 마음  
어찌하여 이리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  
어찌하여 이리도 깊어지는것인가

나라 없는 류량의 길가에  
피나리보짐을 안고  
구슬피 쪽잠들던  
이 나라의 눈물이 스미고

열번 쓰러지면서도  
백번 다시 일어나  
수령님을 받들어  
백두의 눈보라를 헤쳐온 항일선렬들  
수령님 받들어 용맹을 떨치며  
한치한치의 조국땅을 지켜낸  
이 나라 아들딸들의  
성스러운 피가 물든 저 기발,

바라보면 볼수록  
승엄해지는 생각  
수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경건히 옷깃 여머지는 공화국기발이어

그날은 언제더나

그날은 언제더나  
람홍색 저 기폭에  
감격의 첫 눈물을 떨구며  
수령님을 우러러 목메이던  
그날은 그 언제더나

서른해전 9월  
이 땅우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던  
력사의 그 아침은  
유난히도 하늘이 푸르렀어라

온 나라 마음과 마음들이  
굽이쳐 달려오던 평양  
인민의 기쁨이  
하늘에 넘치고  
땅에 넘치여 설레던  
국기게양식 광장,

폴목을 메우며  
거리를 메우며  
흐르고 흐르던 흰옷의 물결,  
발돋움하며 만세를 부르며  
터쳐올리는 환호의 물결우에  
손을 높이 드시고  
미소를 보내시는 수령님,

감격에 목메여 큰절을 올리며  
두루마기자락을 날리는  
한 로인앞에 다가서시여  
수령님께선 말씀하시여라

-로인님,  
우리 나라는 인민의 나라인데  
로인님이 기발을 올리십시오

수령님을 우러르는 로인은  
눈가에 이슬이 맺히여  
황송히 말씀드리여라

-장군님,  
이 나라 첫 기발을 올리실분은  
오직 장군님 한분이십니다

나라의 운명  
민족의 장래를  
오로지 장군님께 의탁한

깨끗한 인민의 마음  
뜨거운 인민의 진정이 솟구치는  
력사의 이 순간

애국가의 장엄한 선율은 흐르는데  
천천히 국기게양대앞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수령님께선  
어찌하여 옮기시는 그 자욱마다  
깊으신 생각을 새기시고  
그 영상을 우러르는 인민은  
그리도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굵이쳤던가

그처럼 바라시고  
그처럼 그려오신 조국의 기발  
그 기발이 오를 푸른 하늘을  
쳐다보시고 다시 또 쳐다보시는 수령님,

그것은  
그처럼 수모와 천대만을 받아온  
우리 민족앞에  
기어이 보여주고싶으셨고  
기어이 안겨주고싶으셨던  
그 모든것이였기에

물어보자 산천아  
물어보자 강토여  
걸음걸음 얼음을 밟으시고  
걸음걸음 불을 헤쳐넘으시며  
얼마나 많은것을 혁명에 바치시고  
우리 수령님께선  
이 게양대앞에 서신것인가,

20성상이 고난의 행군이였던  
그 간고한 길우에서  
한몸으로 헤치셔야만 했던  
역경의 고비는 얼마나 많으셨고  
가랑잎을 깔으시고  
차디찬 하늘을 바라보신  
밀림의 밤은 그 얼마나 길었던가

장구한 조선혁명의 길에  
잃으신것이 너무도 많으시여  
기쁘신 이날에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기시며  
국기게양끈을 무거이 잡으시는 수령님,

이날을  
길이 믿어오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끝끝내 함께 모시고 오시지 못한 마음,

낮설은 이역땅에서  
언두부 한모를 놓고 헤어지셨던  
동생의 마지막기별을  
행군길우에서 언 신발을 죄여매시며  
전해들으셨던 그 아픔

아, 이 나라 이름없는 산발과  
길없는 밀림의 덤불속에  
손수 묻으신 귀중한 전우들은  
그 얼마이던가

한몸에 안고오신  
그 모든 념원  
그 모든 념을  
람홍색기발에 새기시고  
다시 새기시며  
천천히 기발을 올리시는 수령님,

눈보라길을 떠나시는  
수령님께 밤을 새워  
두켄레 짚신을 삼아드린것이 전부였던  
인민  
이날엔  
살아 천년 소원을 풀었으니  
감사에 목메여  
3천리는 흐느끼는데

가을바람에 펄럭이며  
높이높이 솟아오른 공화국기발  
그것은 반만년 역사우에  
우리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날려주신  
새 조선의 기발  
주체조국의 탄생이었다

기발이여 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룬의 여름밤에  
동강의 봄밤에 그려보시고  
보천보의 밤하늘에 화불을 올리시며  
겨레의 피타는 갈망을 새기신 조선이었다

인민의 봄이 꽃피던  
유격근거지 지붕우에 휘날리시고  
총검의 숲을 헤치시며  
대오앞에 높이 추켜들고오신 그 기발

진정 주권이 없었던탓에  
천년이끼오른 성돌에  
의분의 칼자국이 찍혔고  
이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수천년 피맺힌 원한이 서리였던  
그 모든 피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할수 없음을

인민앞에  
력사앞에  
시대앞에  
세계앞에  
선언하였나니

사람들이여  
9월의 하늘높이 휘날리는  
저 공화국기발을 우러르며  
뜨거워 지는 생각  
진정 조국이란 무엇이던가

조국-그것을 두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피도 많이 뿌린  
우리 인민만이 깨우칠수 있고  
우리 인민만이 소리쳐 전하고싶은  
소중한 말이 있나니

내가 사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마음이 있어 조국이던가

맑은 시내물이 흘러  
푸르른 숲이 설레여  
아름다운 꽃이 피어 조국이던가

낳아준 어머니가 있어  
행복이 넘치는 땅에서  
맑은 햇빛을 온몸에 받으며  
그렇듯 땀땀이 머리 쳐들고 우리 사는것인가,

말해보자 사람들이여

민족의 운명을 지니신  
수령님께 업히워  
피바다 불바다를 넘을 때  
그 옷자락에 떨어진 눈물이  
조국의 품에 떨어  
우리의 첫 눈물이 아니었던가

광막한 백두밀림의 밤  
이슬내리는 천막가  
은하수는 기울어  
대원들은 잠들었는데  
조용히 《사향가》를 부르시며  
떠나오신 고국산천을 안으시던 그 품,

피어린 행군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흙의 식량,  
그 한흙의 미시가루를  
손수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던  
아버이 뜨거운 그 손길,

그 품  
그 손길은  
민족의 운명이 사라져가던  
그 마지막기슭에서  
우리모두가 안긴  
조국이였다

간고한 혁명의 진두에서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달려드는 백만대군을 끌어놓히시며  
혁명앞에 닥쳐든 위험을  
한몸으로 막으시며 떨치신 기상,  
그 기상이  
우리 조국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면  
한치한치의 땅이 분노를 터치던  
가렬한 전쟁의 날,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백두의 그 기상으로  
이 땅, 이 하늘에 멸적의 피성을 터치시며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으시고  
조국을 두번다시 구원하신 수령님,

이 땅에 남은것은 재무지뿐이였고  
악에 받친 원수들이

조선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대양건너에서 떠벌이던 그때

막아서는 전후의 난관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영웅조선의 본때로  
천리마의 날음으로  
세기적변혁을 안아오신 수령님,  
  
그 기상  
그 걸음으로  
수천년 바라고바라던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민족의 존엄  
나라의 자주권을  
누리에 떨치시고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님,

아, 수령님 계시여  
위대한 조국이 있나니  
조국의 품-그것은 수령님의 품,  
그 품속에 우리의 하늘이 있고  
그 품속에 우리의 땅이 있고  
그 품속에 기쁨도 행복도 미래도 있어라.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별도 조선의 별이 더 빛나고  
달도 조선의 달이 더 아름답고  
해빛도 조선의 해빛이 더 밝은  
주체의 내 나라

그 품이 그리워  
오늘도 람홍색기발을 소중히 간직한  
저 남녘의 겨레들은  
북녘하늘을 우러르며 서있고

그 품이 그리워  
눈물로 현해탄을 건너간 동포들이  
동해의 푸른 물결우에  
오각별을 날리며  
민족의 대이동으로  
조국의 기슭에 안기고

인류는 바라본다  
투쟁의 기치  
희망의 등대

여기 동방일각에  
혁명의 철옹성으로 솟아오른  
주체의 위대한 조국을!

이 빛발아래  
지구는 자주의 궤도를 따라 돌아가는  
우주의 첫 위성이 되었고  
혁명하는 인민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안고 나아가나니

노래하노라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신 나라  
태양의 나라  
인민의 나라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주체의 내 조국이어!

## 2

푸르려 가없는  
머리위의 하늘을 쳐다보아도  
우리는 조선사람임을 생각한다  
이 하늘아래에서 사는,

산이 좋아 산에 우는 고운 새  
봄을 불러 먼저 피는  
한떨기 진달래를 보면서  
가슴 사무치도록  
우리는 조선사람임을 생각한다  
이 정든 땅에서 사는,

레사로운 날에  
해빛을 안고 걸어가는 출근길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기계에  
작은 나사못 하나를 조일 때에도  
가슴가득 차오르는 생각,  
우리는 조선사람임을 자랑한다  
주체의 녀를 지니고사는...

금수강산  
인민의 내 나라  
수령님 은혜로운 해빛아래  
하나같이 밝은 빛을 지니고  
하나같이 씩씩한 걸음으로  
지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조선사람,

이 말

이 이름  
궁지높이 자랑높이  
이 세상 그 어디서나 울린다  
인간존엄의 대명사로

사람들이여  
그 옛날엔  
그대와 나  
태어나자 머슴이었고  
식민지노예였고  
이름조차  
바우였고 부엌녀가 아니었던가

나라 없어 눈물이던 민족  
권리 없어 설음이던 인민  
언제부터 이처럼  
힘을 지닌 민족  
존엄을 지닌 인민으로 되었는가,

우리 다는 알수 없으랴  
이 이름을 지니고사는  
그 행복의 끝을  
우리 다는 알수 없으랴  
이 이름속에 깃든  
아버이 크나큰 사랑의 끝을

조선인민-이는  
우리 수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든 생각의 시작이며  
그 모든 생각의 전부여라

이는 한평생 혁명의 길우에  
기쁨도 슬픔도 다 바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주신  
궁지높은 이름이여라

생각하면 서른해전  
나라의 이름을 지으시던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  
이 땅과 함께 한생을 살아온  
이 나라 로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모두의 의사를 물어보시며  
그 이름속에  
해빛처럼 밝게  
인민이란 글자를 새겨주셨을 때,

아, 우리는 그날에  
공화국의 이름과 함께  
이 땅의 주인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던가

잊을수 없어라  
이 나라  
첫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던 그날  
수령님께선 잠시 휴식시간에  
대의원들을 만나시였어라

인민의 대표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기쁨에  
투사대의원도  
로동자대의원도  
애국미를 선창으로  
나라에 바친 농민대의원도  
락동강을 넘어왔다는 대의원도  
감격에 설레는 방안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며  
나누시는 이야기는 자애에 넘치시고  
떠나온 그 고장 형편을 일일이 물으시며  
돌려보시는 안광엔 믿음이 넘치시고...

맨뒤에 앉아있는  
녀성대의원에겐  
어서 가까이 나왔으라고 부르시며  
동무도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실 때

새 무명치마에  
난생처음 기차를 타고  
먼 두메산골에서  
아이까지 업고왔다는 녀성대의원,

-장군님,  
제가 떠나올 때  
마을의 반동놈들이  
무식한 촌녀자가  
나라의 대의원이 되었으니  
이제 조선은 무식해지고  
망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박한 녀성대의원이 올리는  
솔직한 대답을 들으시며  
지주집 교역살이에

웃음을 모르고  
피눈물로 살아온 그 모습을  
오래도록 눈여겨보시는 수령님,

한동안 말씀 없이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더니  
터갈린 그의 손을 굳게 잡으시며  
엄숙히 하시는 말씀,

-나는 동무가  
대의원이 된것이 제일 기쁘오  
우리는 동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산에서 20년을 싸웠소.

아, 나라가 없어 짓밟히고  
권리 없어 수모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주체사상,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드신 수령님

우리 인민이 겪은 아픔과 고생을  
자신께선 열백배도 더 겪으시며  
이 천대만던 사람들을 위해  
산에서 눈을 깔고 풍찬로숙하신 수령님,

이제 로동자 농민이 주인된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문명한 나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그 은정

소리없이 흐느끼며  
흐르는 눈물이  
더운 불을 적시는 이 순간  
우리 인민은 무슨 말을  
수령님께 울려야 하였던가

우리 인민에게  
혁명주권을 주시고  
영원한 미래를 주시고  
가장 큰 믿음을 안겨주신  
아버이사랑이여

그 사랑이  
해가 되고 달이 되어  
우리 태어나고

우리 자라났어라,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의 넋이 되고  
주체의 밝은 눈이 되고  
주체의 힘찬 걸음이 되었어라.

길을 걸으시여도  
인민을 위해 걸으시고  
산을 하나 보시여도  
인민을 위해 보시는 수령님,

한 작업반장치녀가  
주체농법을 꽃피우는 벌판에서  
이제는 어엿한 일군으로 자라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이웃마을 관리위원장으로 보내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수령님

지난날 고역의 쇠물에 덴  
한 노동자의 상처자욱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여 만져보시고  
부르시여 살펴보시며  
나라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30여년을 키워주신 수령님,

이제는 머리가 흰 한 일군이  
눈이 잘보이지 않아  
일손을 놓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나처럼 안경을 끼고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손수 자신의 안경을 벗어주시던  
아버이 그 사랑의 끝은 어디

아, 함박눈은 펄펄 내리는데  
수령님을 바래드리려  
길가에 나온 노동자들,  
로앞에서 일하다가  
찬바람을 맞으면  
감기에 걸린다 하시며  
그모두의 등을 밀어 되돌려보내실 때

찬바람 찬눈을 맞으시며

길가에 서계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인민의 가슴속엔  
천송이 만송이 내리는 눈송이들이  
더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라-

아버이 그 사랑에  
우리의 행복으로 영원할  
토지법전  
로동의 법전  
교육의 법전  
사회주의헌법으로 새겨졌나니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하나의 행복은  
우리 수령님 한평생  
힘한 산, 힘한 령을  
다 넘으시며 안아오신 행복이여라

이 땅우엔  
수령님 자욱 찍히지 않은곳 없고  
한그루 나무  
한가닥 물줄기  
한채의 집  
이 땅의 모든것  
수령님 손길 닿지 않은것 없어라

아버이 그 품속에 안겨 30년  
프락또르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인민이  
오늘은 공업화의 푸른 하늘아래  
기계로 농사짓고  
자동화의 단추로  
그 프락또르를 만들어내는 인민이 되었고,

무식한 노동자 농민이라고  
반동들이 숙보던 인민이  
오늘은 교육체제의 빛발아래  
인테리화의 노래를 부르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인민이 되었어라

사람들이여, 30년전 그날  
의원을 찾아  
수십리 고개길을 넘던 그대가  
오늘은 인민의 의사가 되어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찾아가고

그날 불꺼진 기관차바퀴밑에서  
소꿉놀이에 철이 없던 그대가  
오늘은 영웅기관사가 되어  
굽이굽이 도래굽이마다  
기적소리 울리며 달려가는것이 아닌가,

수령님 그 품속에 안겨 30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인민이란 이름을 지니고 사는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사람들이여, 그대는 생각해보았던가  
조선인민,  
인민이란 이 이름을 지니고  
사는 행복은 진정 무엇이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사는것  
위대한 수령님 모신 인민으로 되는것  
이는 수천년 피눈물 뿌리며  
우리 인민이 찾은  
가장 큰 행복!  
가장 위대한 진리!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우리 인민도 위대한 인민,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가슴가슴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끓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주의 인민  
창조의 인민,

사람이 태어나 수천수만년  
인류가 살아 수천수만년  
자연의 법칙  
우주의 비밀을 밝혀냈지만  
자기가 자기를 다 알았던가,

조선인민-이는  
태어나자 모든 권리를 지니는 사람  
자연과 사회의 예측을 모르는 사람,  
조선인민-이는  
제머리로 생각하고

제발로 걸어가고  
제힘으로 새세계를 창조하는  
력사의 주체!

이 위대한 진리가  
해빛으로 빛나고  
이 위대한 사상이 넓이 되고  
이 위대한 힘이  
슬기로 되어 나래치는 내 나라

조선의 30년은  
수령님 품속에서  
궁지높은 조선사람  
주체인민이 탄생한  
자주의 30년이여라

조선의 30년은  
수령님 품속에서  
자력갱생으로  
민족최성기를 펼친  
자립의 30년이여라

조선의 30년은  
수령님 품속에서  
철벽의 요새  
사회주의강국으로 솟은  
자위의 30년이여라

사람들이여 부러워하라  
조선사람, 이 이름은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든 위대한 인민,  
이 이름은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크나큰 존엄을 지닌 위대한 인민

노래하노라  
인민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 받들어  
조선인민은  
주체의 한길로  
력사를 움직이고  
주체의 한빛으로  
세계를 변혁시키며  
자주시대의 행군길을 걸어가거니



조선은 인류의 영원한 별이 되어  
길이길이 빛을 뿌리어라

\* \*

하늘에도 기쁨  
땅우에도 기쁨  
9월의 대축전을 맞는  
민족의 경사여

이 조국  
이 락원에서  
아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력사우에 큰 걸음을 새기는  
인민의 경사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오려  
대양을 건너  
대륙을 넘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그 가슴가슴들이  
기쁨으로 설레이는 내 나라

노래하노라  
수령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내 나라  
백전백승의 당의 손길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이 궁지, 이 자랑이여

백두밀림에서  
첫 무장을 잡고  
수령님을 높이 모셨던 인민,

개선의 광장에서  
감격의 환호성을 터치며  
수령님을 맞이하던 인민,  
전승의 높은 언덕에서  
충성의 보고를 올리며  
수령님을 우러르던 인민,

오직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  
조국의 번영, 인민의 영광이 있고  
오직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나니

이 신념의 노래  
이 영광의 노래 부르며  
조국통일의 광장을 넘어  
공산주의 그 한끝까지  
주체의 내 조국 빛내가리니

번영하라 조국이여  
번영하라 인민의 나라여  
위대한 수령님 모시여  
해와 별이 빛나는 나라여

경사로운 9월의 이 아침  
인민은 오직 한마음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해와 별이 영원하듯이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신  
아버이 **김일성** 원수님께서서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 일당백 병사들은 맹세한다

문성락

얼마전에 2.8문화회관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대한 감상 발표모임이 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세상에 나오자부터 인민군군인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계속 널리 애독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소설도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장편소설읽기를 통해 인민군전사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혁명전사의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불같은 열정이 차넘치고있는것이다.

2.8문화회관의 넓은 객석은 군인들로 초만원을 이루고있었다.

새 교육년도 훈련과 전투근무의 설참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이 소설을 읽고 흥분된 마음으로 모임에 참가한 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와 같은 충성심이 한가득 어려있었다.

충성의 열정이 온 장내에 파도치는속에 리경서동 무소속구분대 군인들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은 감상을 발표하였다.

먼저 장편소설을 읽은 격동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중사 김필순동무가 연단에 나왔다.

김필순동무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현명한 령도, 탁월한 전략전술에 대하여 더욱 깊이 학습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결출한 《정치가》라 자처하던 사람들까지도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전쟁으로, 렬강들간의 큰 싸움으로 될것이라고 보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2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민족해방투쟁으로 발전할것이며 세계 혁명적인 민족부대들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날것이라고 예언하신다.

력사의 흐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써 그날에 하신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였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나는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더라도 우리 수령님께서 세대에서 가장 비범한 예지를 지니시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리혜안으로 복잡한 현실뿐아니

라 먼 장래까지도 환히 꿰뚫어보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토론자는 계속하여 소설은 《대통령감》의 체험 과정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탁월한 전략전술로 일제를 타승하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라는것을 더욱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얼다섯명의 대원들을 친솔하시고 푸르히지방에서 적 《로벌대》놈들을 모조리 격멸하신 령활무쌍한 작전, 하늘의 천기까지 헤아려보시고 눈석이 시작되기전에 씨하의 진펄을 극복하신 전설같은 이야기...

실로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험난한 혁명의 길을 앞장서 헤치시며 백두산기슭으로 진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가!

혈전의 언덕과 사선을 넘으시는 그 모든 전투장면들과 행군과정을 묘사한 대목에서 나는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령도력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을 지니신 혁명의 영재이시라는것을 심장깊이 느꼈다.

첫 토론이 끝난데 이어 이번에는 하사 최희영동무가 연단에 나와 자기의 뉘어넘치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으면서 언제나 사람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혁명동지와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꽃피워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꼈다.

장편소설에는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생단》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있는 혁명전사들에게 새 삶을 안겨주시며 그 저주로운 문서보따리에 불을 지르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쏘여져있다.

그때 사랑하는 대원들의 정상이 얼마나 가슴아프시였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한번 피워보신적 없으신 담배까지 찾으시였겠는가!

바로 이러한 수령님이시기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이불도 없이 령방에서 앓고있는 아이들에게 단 한벌밖에 없는 자신의 솜외투를 덮어주시였고 백두산기슭으로 나가시는 간고한 나날에도 나어린 한 대원의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생일상까지 차려주신다.

이처럼 봄빛과 같이 따뜻한 사랑의 빛발이 있어 《대통령감》과 같이 어지러운 세파와 탁류속에 오

엄된 곡절 많은 생활경위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혁명가라는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을수 있었으며 정치공작원 리경준이와 같이 죽어서도 수령님품속에 안겨 영생하는 고귀한 생명을 빛내일수 있었던것이다.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는 끝이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저같은 새세대-총진 병사들이 오늘의 행복속에 묻혀 살고있으며 계급의 총을 손에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뿔뿔이 서서 녀성혁명가의 영예를 빛낼수 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사 김문이동무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그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해발이 어떻게 이 땅우에 충성의 별무리를 날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들로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먼저 이 장편소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감동적인 화폭속에 담은 혁명의 교과서라는것을 말하고싶다.

오직-장군님의 품에 안김으로써만 자신의 정치적생명도, 삶의 보람도 꽃피울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것처럼 험한 길을 걸고있는 리경준이와 그 일행, 자신뿐아니라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까지 위대한 장군님 곁으로 꼭 데리고가야 한다는 절절한 심정을 안고 사령부를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강한 충격을 안겨주는가!

오로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따사로운 그 품속에 살려는 지향은 나 어린 아동단원들의 간고한 생활장면에서 눈물겹게 그려지고 있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원수놈들에게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적구로 내려가라고 내몰 때 장군님한테 가겠다고 발을 구르며 따라나서는 아동단원들의 형상을 통해 장구한 혁명의 길우에 충성의 대가 어떻게 이어져왔는가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서 보았다.

토론은 끝났으나 모임참가자들의 가슴속에 다함없는 충성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고있었다.

한편의 혁명소설이 우리 일당백 병사들에게 주는 영향은 얼마나 큰것인가.

백두산기슭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행군길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으며 충성의 발걸음은 일당백병사들의 숨결속에서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 혁명투사들의 고귀한 충성심을 따라배운다

-신현국동무소속 붉은기구분대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도 혁명적인 소설을 많이 읽어야 혁명적의지를 더욱 단련할수 있고 혁명의 식을 빨리 발전시키나갈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구분대에서는 지난기간 군인들속에서 혁명소설들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왔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하였을 때 정치지도원 유귀재동무는 먼저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와 력사적 배경, 작품의 기본사상에 대하여 군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소설을 많이 읽을 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군인들에게 깊이 해설침투한 다음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는데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점에 대하여 강조해주었다.

군인들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그이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해갈 굳은 결의밑에

소설읽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독보사업을 책임진 리영희, 김련화, 백경화동무들은 늘 신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양실과 병실, 훈련장 등 군인들이 모인곳이면 어디서나 읽어주었으며 홍순복, 김애란, 리순복동무들은 신문자료를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철해두는 일을 자진하여 맡아가지고 책임성있게 하고있다.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 리영숙동무와 초급선동원 장인숙, 최복실동무들은 근무와 작업으로 인하여 집체적인 독보에 빠진 동무들을 따로 모여놓고 신문을 읽어주었으며 소설의 기본내용과 중심사상을 군인들에게 반복하여 해설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짜고들어 사업을 조직함으로써 구분대에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군인들모두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학습에 참가하고있다.

구분대군인들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학습하면 할수록 더더욱 가슴뜨겁게 느껴지는 심오한 사상과 감명깊은 형상들에 이끌리어 신문의 다음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가면서 정열적으로 학습하고있다.

(군사통신원) 주은실

##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고-

### 잊을수 없는 총성의 친위전사들

출근시간이었다.

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마지막장을 읽느라고 좀 늦어서 뺄소 정류소로 달려나왔다.

질서있게 늘어선 사람들의 맨 마지막 자리에 들어선 내가 책에서 받은 흥분을 녹이지 못하고 있는데 언뜻 나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직장의 친구였다.

《소설책을 읽느라고 그만...》

나의 동무 역시 책과 함께 간밤을 밝힌 모양인지 부석부석한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소설책을 내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보이는 것이었다. 정류소에 늘어선 사람들을 둘러보니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보거나 옆구리에 끼고있었다.

뺄소에 올라서도 역시 소설읽기에 여념들이 없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장편소설이 이처럼 침식을 잊도록 독자들을 커다란 흥분속에 잠기게 하며 격동시키고있는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하여 그들속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는 투쟁정신을 기르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됩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력사적인 남호두회의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의 백두산서남부예로의 진출과정인 1936년 5월초 동강회의 시기까지에 있었던 실재한 사실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재현하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룩하신 형상을 우러러모시고있다.

소설에는 얼마나 많고많은 감동적인 사실들을 펼쳐 보이고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친위전사들인 강세호, 리복철, 리경준, 최선금, 한남실...

그중에서도 나를 그토록 흥분속에 잠기게 한것은 리경준일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며 그이께 모든것을 다바쳐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의 모범이다.

소설에서 색다르게 한가정으로 등장한 리경준일가는 독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간고한 행군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억울하게도 《민생단》 혐의를 받은 유격대원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북만원정을 떠나신후 배타적인 좌경분자들과 종파분자들이 터무니없이 날조된 《자료》를 꾸며내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생단》의 감투를 들썩였던것이다.

얼마나 많은 혁명가들이 《민생단》의 혐의를 받고 내쫓겼던가. 장기령, 윤철녀, 한남실 그리고 철없는 아동단원아이들까지도...

리경준일가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반 《민생단》, 투쟁방침을 받들고 견결히 투쟁하였다는것으로 하여 도리어 거꾸로 《감투》를 쓰고 쫓겨났다.

그들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장군님의 품속을 찾아가며 그이만을 모시고 따르려는 변함없는 마음을 간직하고 남호두로 떠났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적통치구역으로 내려가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신념과 의지는 완강했다.

《당신들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아무 상관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령관동지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언명한 리경준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떠났다.

그것도 그럴것이 장군님께서 펼치신 새세상-유격근거지에서 그이의 품속에 안긴 때부터 참다운 인간적존엄과 혁명가의 당당한 자부심뿐 아니라 그이의 크나큰 신임을 받고 참되게 살아온 리경준, 최

선금이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며 그이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철석같이 굳어진 의지였으며 신념이었다.

모진 추위와 굶주림도 두렵지 않았다. 눈보라를 헤치고 또 헤치며 그들을 간고한 행군을 계속했다.

어려움과 고통도 한계가 있다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이 용납되지 않았다.

왕청에서 시작된 긴긴 행군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시련이 그들을 또 기다리고있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간신히 찾아온 그들을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민생단》 혐의를 걸어 립강 마이허로 끌어가며 안해와 아이들과도 헤어지게 했다.

그러나 놈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들의 혁명적지조는 꺾을수 없었다.

이 간고한 역경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분은 바로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증스러운 그 문서보따리에 결연히 불을 지르신다.

문서더미에서는 불길이 휘말려올랐다. 애매하게 《민생단》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울음을 터쳤다. 그들속에는 리경준이도 끼여있는것이다. 그들은 가슴을 들먹였다. 그들의 흐느낌-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맹세였고 영원한 태양의 은혜로운 빔발에 싸여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였다.

리경준일가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간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리경준이가 정치공작을 나가면서 안해인 최선금이와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펼치고있다.

《<여보! 당신한테 한가지 부탁할게 있소. 우리 장군님께 새 군복을 한벌 마련해드리지 않겠소. 내 공작지에 내려가면 군복감을 구해서 보낼테니 어떻게 하나 꼭 당신 손으로 그이의 군복을 지어드리도록 해주오. 당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짬짬이 지었다면 그이께서도 사양하지 않으시고 받으실거요.>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사실 그런 이야기 하자던 참이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시다.>》

이 얼마나 가슴뜨겁게 하는 약속인가! 모든것을 장군님께 드리고 높이 받들려는 가혹한 그 마음, 그 진정이 나의 가슴을 두드린다.

리경준은 엄혹한 적구에서 제일 좋은 천으로 군복감을 구해 안해에게 보냈고 최선금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장군님께 새 군복을 올리는것이다.

그 군복에는 오직 아버지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일편단심 충성다하려는 깨끗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것이다.

리경준은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받들고 직후공작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가 열릴 밀영으로 돌아오다가 적들과 싸우게 되었다.

이 순간 그에게는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그이께서 그토록 마련하신 력사적인 창립대회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박문필을 떠내보낸다.

창립대회에 참가할 무송지구대표가 빠지면 안된다, 자기가 못가는 한이 있어도 대표들을 무사히 보내여 창립대회의 력사적인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결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철의 모범으로 되었다.

드디어 리경준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창립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리경준의 모습은 행복한 오늘에 아버지수령님께 어떻게 충성하며 그러기 위하여 어떤 신조와 신념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으로 가슴에 뜨겁게 안겨온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으로 언제나 리경준일가를 생각하면서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갈것을 거듭거듭 결심한다.

영화문학창작사 리처봉

## 혁명의 풍랑을 한몸으로 헤치시어

나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부터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기까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참으로 커다란 감동속에 읽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 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

**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열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의 귀중한 산 교과서로 되는 이 소설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들을 끝없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오직 인민을 믿고 위하시여 한몸바쳐 혁명의 난국을 타개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인민적품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시는 우리 혁명이 가장 엄중한 시련을 겪던 때였습니다.

일제는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가 해산된것을 좋은 기회로 항일유격대를 완전 《소멸》했다고 떠들면서 인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유격대를 《봉쇄》하는 《토벌》 작전에 미쳐달뿔였고 혁명대렬내에서는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호상 불신임과 분렬의 어두운 구름장이 채 가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 열다섯명의 호위성원들을 거느리시고 백두산기슭을 향해 멀고도 험한 길을 헤쳐가십니다.

이 길에 조국과 민족의 구원이 있고 그의 광명한 미래가 있으며 혁명의 일대양양이 마련될것입니다.

친히 전방척후도 나가보시고 기관총을 잡으시고 준엄한 길을 헤쳐나가시기도 하시는 그 거룩하신 형상!

경위중대가 사령부를 보위한다기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몸으로 혁명을 보위하시고 한치한치를 헤쳐나가시는 피어린 로정입니다.

그처럼 험한 길을 헤쳐왔으나 마안산에서 그이를 맞아준것은 백여명의 《민생단》 혐의자들의 문서 보파리와 박해를 받고있는 아이들이였습니다.

기운 솟을을 입으시고 단 15명의 대원들과 함께 끼니도 건느시며 이들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품속에 이들을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본인도 잊고있던 생일날에 오בות한 가정분위기를 마련해주시고 생일상까지 차려주실 때 애어린 전령병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는 감격적인 장면이며 혈땀은 아이들을 자신의 외투로 가리워주시고 서계시는 가슴뜨거운 형상, 혁명대오에서 떨어졌던 전사들을 뜨겁게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들뜨워졌던 억울한 루명을 재가루로 날려보내시는 숭엄한 화폭에 이르기까지 소설은 혁명의 풍랑속에서 전사들과 인민들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고 나서신 위대한 사랑으로 짝 차였습니다.

특히나 미혼진병원 수십명의 열병환자가 들어있

는 문앞에서 벌어지는 눈물겨운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니까,

혈육간에도 격리시켜야만 하는 병동으로 어이 조선헌명의 유일한 령도자이신 위대하신 장군님을, 한분밖에 안계시는 우리 민족의 태양을 모실수 있단말인가.

이것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견결히 막아나선 경위중대원들에게 간곡히 이르는 말씀.

《나는 동무들의 생사를 책임진 사람이 아닙니까! 동무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나만은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아! 위대한 수령님.

그이를 막아내지 못한 전위전사들도, 그이의 따뜻한 손길로부터 사람의 가장 고귀한 빛발을 받아안은 환자들도 목메여 읊니다.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수 없는 뜨겁고 고귀한 인간애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끝없이 빛발칩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인민의 진정한 어버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 태양의 별과 같은 그 숭고한 인간애가 있음으로 하여 열다섯명의 전사와 한정의 기관총이 혁명무력의 최정예주력부대로 변하고 혁명가의 존엄과 인간적가치를 상실당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가장 고귀한 삶을 빛낼수 있게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혁명의 위기도 타개되고 조국광복회조직이 수풀처럼 일떠선 조국땅에서 혁명의 격류가 일고 일대 양양기에 이른 혁명앞에 일제가 단말마의 비명을 울리는것이 아닙니까.

실로 소설은 사람을 위하여 혁명을 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가 바로 모든 승리,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 되는 진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모시고 사는 무한한 행복감으로 벅차오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만지는 그 사랑의 해발에 안겨 배우며 자라난 나는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겠는가 하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 소설에 나오는 강세호, 리복철, 리경준, 최선금과 같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충성다해 살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김형직사범대학 백진향**

## 봉화산에 올라

박창민

한걸음, 또 한걸음... 옮길수록 병사의 이 마음 승  
업하기 그지없다.

다함없는 흙모와 경모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유서  
깊은 혁명의 땅 봉화산기슭, 김형직선생님의 거룩  
한 혁명의 자욱을 따라 걸으며 봉화산기슭을 오르  
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후더웁다.

바라볼수록 승업하게 안겨오고 우러를수록 투쟁  
과 열정으로 부르는 영광의 봉우리 봉화산마루에  
오르니 조국땅이 한눈에 안겨오는듯하다.

아, 봉화산! 원쑤격멸으로 호소하며 활활 타오르  
는 혁명의 해불과도 같아 그대 이름 봉화산인가, 그  
옛날 우리의 슬기로운 선조들이 해불을 올려 외적  
의 침략을 온 나라에 알리며 싸움으로 불러일으켜  
그대 이름 봉화산인가.

일제침략자들의 식민지 검은 구름을 치뚫고 조선  
국민회 창건을 온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며 솟아오  
르던 력사의 봉화를 높이 추켜올리며 오늘도 혁명  
과 투쟁의 상징으로 그 이름 빛나는 영광의 봉우리  
봉화산, 봉화산!

군복자락을 가벼이 흔드는 싱그러운 3월의 봄바  
람을 한껏 마시며 산길을 굽어보니 번영하는 조국  
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어버이수령님의 은  
혜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행복이 수풀처럼 설레이는  
사회주의조국땅, 끝없는 영광속에 기쁨속에 넘쳐나  
는 오늘의 이 행복을 노래하며 김형직선생님의 불  
멸의 혁명업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새없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  
다.》**

초소의 낮이나 밤이나 병사의 마음속에 높이 솟

아 지원의 뜻을 깨우쳐주는 봉화산에 오르니 천신  
만고 모두다 달게 여기시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  
직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사무친다.

더더구나 3월 23일, 바로 이날이 김형직선생님께  
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니 더더  
욱 그 마음 절절하고 감회가 깊다.

바로 이날이 아니었던가.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그리시며 것처럼 곡절많은 조선독립운동의 길을 걸  
으시며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오신 김형직선생님께  
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날이.

나의 마음은 어느덧 세월을 거슬러 1917년 3월  
23일, 력사의 그날에로 달려갔다.

당시의 조선은 얼마나 암담하였던가.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이 왜놈들에게 영영 노예로 된  
단말인가. 이 땅에 칭칭 감긴 압제의 쇠사슬을 정녕  
끊어버릴수 없단말인가.

조선아! 조선아! 너는 영영 빛을 잃고 암흑속에,  
피바다에 잠겨야 한단말인가.

나라도 자유도 권리도 이름도 모두 빼앗긴 인민  
들이 참다운 삶이 그리워 흘러가는 세월을 눈물로  
전송하던 원한의 그 시절,

치미는 울분을 화승대에 재워메고 왜놈을 맞받아  
나가던 의병들도 자취를 감추고 《우국지사》들이  
탄식과 통분으로 가슴을 치며 《외세의존》에 매달  
리던 그 시절.

넓으나넓은 삼천리 강산은 있어도 나라가 없고 2  
천만 우리 겨레는 있어도 그를 독립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어 민족의 눈물이 황혼으로 비끼는 하늘  
가에 망국의 곡성 터져오르던 수난의 그 시절.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  
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였다.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면 우리 민족을 투쟁으로 부른 조선국민회창건, 이는 망국의 력사와 부르조아민족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통찰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자주의 기발을 높이 추켜드리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인 발전의 길로 돌려세우신 역사적사변이였다.

외세의존이 아니라 민족자주정신을 구현한 조선국민회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던 선생님의 그 목소리는 2천만동포들을 잠에서 깨우는 해방의 종소리로 얼마나 힘차게 메아리쳤던가.

숨막히는 암흑에서 해방으로 부른 투쟁의 기치, 혁명의 불씨를 안겨준 첫 봉화가 세차게 타오를 때 민족의 설음을 싣고 구슬프게 흐르던 열파강이여, 너는 얼마나 감격에 겨워, 희망의 새삶을 안고 용용히 소용돌이쳐 흘렀던가!

봉화산의 푸른 소나무여, 너는 살아있는 조선의 정신, 태동하는 조선의 새 숨결을 안고 그 얼마나 거세차게 설레었던가!

정녕 조선국민회의 창건으로 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일대 전진의 길에 들어섰거니 그때부터였다. 조국이어! 그대의 정신, 그대의 힘으로 지구우에 새 력사를 빛내기 시작한것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을 조선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모시고 노도쳐가는 력사의 길우에 혁명의 려명이 밝아오기 시작한것은...

력사의 그날을 생각하는 나와 귀전엔 광명과 희망의 앞길을 가르쳐준 명신학교의 종소리가 쟁쟁히 울려온다.

여기 봉화산에 오르시여 철쇄에 묶이운 조선을 바라보시며 비분강개하시여 독립을 위한 힘을 키워주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학생들! 저것을 보라,

마치 군대가 사열을 받기 위해서 줄지어 서있는

것 같지 않는가.

여기서 보니 봉화산은 장군 같고 저것은 조선의 군대 같다.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있다면 왜놈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무기를 가진 원수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한다.》

왜놈들에게 짓밟힌 조국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멸적의 힘을 키워주시던 선생님의 그 말씀. 아, 왜 이리도 광광, 병사의 가슴을 치는가!

왜 이리도 병사의 임무를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바로 여기 봉화산마루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일제놈들에게 짓밟힌 삼천리 조국강산을 굽어보시며 조선독립의 맹세를 다지시였다면 이 나라의 병사-나는 여기서 조국통일의 맹세를 다지게 되나니,

아-참을길 없구나, 분렬된 조국의 아픈 상처를 안고 가슴을 치고 또 치는 병사의 마음이어!

시대앞에 지닌 병사의 임무를 잊지 말라 나를 떠밀어주는 봉화산이어!

김형직선생님께서 이처럼 바라시던 념원이 삼천리조국의 절반땅에만 이루어졌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렇듯 심려하시는 조국통일을 우리 아직 이룩하지 못하였은 민족의 고통과 불행을 안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가슴속에 덧쌓이는 분노를 참을수 없다.

기어이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리라!

피끓는 가슴속에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나는 봉화산을 내렸다.

여기서 다진 맹세를 실천하는 그날에야 나는 그대를 뗏뗏이 바라볼수 있으리라.

오, 봉화산! 봉화산이어!



## 사랑의 물줄기, 생명수에 대한 뜨거운 화폭

장편소설 《생명수》는 우리 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박대성이를 비롯한 관개건설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근로자들 속에서 널리 읽혀지고있다.

나는 작품의 세계가 펼쳐지는 어지돈관개공사장에서 생활의 첫걸음마를 댄 관개건설자로서 장편소설에서 우리들의 지난날의 투쟁과 생활이 것처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진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가슴뜨겁게 그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지돈관개공사에 대해서도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지난날 봉산벌에서 살던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논에 눈석임물과 비물을 받아넣고 농사를 지었으며 물이 고여있는 동안에는 온 벌판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장보러 갈 때에도 함지를 타고 다녔고 학생들이 학교에도 함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곳 사람들이 어지돈관개의 덕분으로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잘살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영광스럽게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잡아주신 생활 소재를 취급하고있는 장편소설 《생명수》는 봉산벌농민들이 물때문에 겪은 피눈물나는 역사를 펼치면서 그들에게 생명과 같이 귀중한 물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실감있는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전반에 흘러넘치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주인공들의 충성의 일념은 당시 시대적배경속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장편소설의 서장에서 작가는 봉산벌 수증촌 농민들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들으시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해방된 조국의 생명수를 마련할 위대한 구상을 익히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뜻을 감명깊게 제시하고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시는것이다.

그러시기에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갓 해방된 새 조국에서도,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며칠안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웅대한 수리화의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특히 작품에서는 추도공사장의 그 위험한 굴길을

몸소 걸어보시고 하신 말씀에서 뜨거운 사랑이 더욱 굽어치고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방법으로는 위험해서 안되겠소. 내 생각에는 저 등성이우에서부터 구배를 지어 활짝 열어제끼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동무들이 말하는 압추도를 파지 말고 뚜껑을 열어 제낀 명추도를 파는것이 좋을것 같소. 동무들의 생각은 어떨소?》

로력과 자금이 더 들더라도 오로지 사람을 위하여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수령님!

주인공 박대성이를 비롯한 관개건설자들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충성을 다하게 되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아안고 삼기때문이었다.

장편소설은 박대성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연풍호공사를 끝내고 어지돈관개공사장으로 달려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깨우쳐주면서 언제 공사장에서 찢크레인을 조립하기 위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어이 통수식을 보장하는 모습과 각이한 인간군상들을 개성적인 성격들로 잘 형상화하였다.

주인공 박대성은 작업반장으로서 일만 잘하는 인간이 아니였다. 그가 언제공사장에서 혁신하는 과정은 또한 작업반원들과 주위사람들을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주인공 박대성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고 감명깊은 형상으로 가슴에 안겨오는것이다.

삭도기중기로 7톤짜리 기중기로막을 들수 없다고 하는 황종구앞에서 박대성은 드림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안전공차가 셋이 모자라는것때문에 창안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래년봄까지 무조건 1계단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것을 어긴다면 그야말로 한생을 수치스러운 가책을 받고 살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무조건성, 절대성의 원칙을 곳곳이 지켜나가는 박대성은 이런 견결한 비타협적정신과 함께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한 감정을 가진 형상으로 안겨온다.

리기주의에 물젖어 《부업병》에 걸린 송병무를 깨우쳐주는 장면은 실로 감동적이다.

박대성은 송병무가 새 작업방법을 창안했을때 제

때에 그 사실을 벽보에 내붙인다.

《누가 내 이름을 여기다 써냈나? 이거 내 참...그 말상같이 생긴 직관원녀석이 써붙였겠지? 이 녀석 어디...》

일생 몇몇이 살아오지 못한 그에게 로동계급의 당당한 대오속으로 이끌어주는 박대성에 대한 송병무의 감사의 말은 이렇게 표현되고있다.

그날 저녁 떨어진 속보귀통이를 밭풀로 다시 붙여주는 박대성의 형상은 딸 선희만이 아닌 독자들의 눈굽을 뜨겁게 해준다.

바로 그런 섬세한 인간성을 가진 주인공이기에 송병무를 로동계급의 대오에 튼튼히 들어서게 한다.

장편소설에서 작업반의 《막내동이》 남성우의 성격도 매혹적이다.

5개년계획이 수행되던 그 보람찬 시절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로동계급화, 혁명화되지 못한 적지 않은 우리 또래 젊은이들이 걸어온 길을 방불히 눈앞에 그려주는 형상이다.

위훈에 대한 갈망으로 평양에서 어지돈공사장으로 달려온 남성우, 꿈많은 청년의 위훈에 대한 들뜬 생각은 그를 한때 공사장에서 리탈하게 하였다.

하지만 박대성의 꾸준한 교양과 벽찬 현실은 그를 다시 공사장으로 오게 하였고 마지막 찢크레인 조립에서 것처럼 바라던 하늘의 수리개로 용감하게 대공을 나는것이다.

폭풍이 불어치는 밤, 하늘의 수리개로 자란 남성우는 속으로 이렇게 웅쳤다.

(우리는 혁명의 폭풍속을 날으는 수리개다. 우리를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외에도 장편소설에는 연구소 연구사였던 책임기사 문석빈이가 로동계급속에서 어떻게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는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으며 대성의 애인 봉숙이를 비롯하여 정순갑로인, 선희 등도 개성적인 성격들로 아름답게 그려졌다.

장편소설 《생명수》의 매 갈피마다에 스며있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 관개건설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우리를 더욱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는 그 기간에 서흥호, 신곡저수지, 연탄호, 은파호 등 위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끝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가 황해지구 관개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기업소 이름을 황해관개건설사업소로 몸소 고쳐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주시였다.

봉산벌 수중촌 사람들의 이야기는 벌써 먼 옛날처럼 되여버렸다.

물가난에 허덕이던 긴등벌, 미루벌은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기계로 씨뿌리고 비행기로 김을 잡는 천지개벽을 이룩하였다.

소설의 종장에서 정순갑로인의 말은 단순히 어지돈벌 농민들의 심정만 대변하는것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 봉산벌에 어지돈물이 왔습니다. 수령님의 하해같은 은덕으로 이 늪은것도 지금 고향벌에 생명수가 흘러드는것을 보고있습니다.

하늘도 임금도 주지 못한 생명수를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고맙습니다.》

이는 온 나라 인민들이 올리는 절절한 감사의 토로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관개의 나라》의 관개건설자가 된 영예를 더욱 가슴뿌듯이 느끼며 대자연개조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황해관개건설사업소 공무직장  
박명남

## 녀주인공들의 생동한 형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더우기 청년들은 소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소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학작품들을 읽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많은것을 느낄수 있고 생활에서 필요한것을 많이 배울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우리 학생청년들은 혁명적인 소설을 많이 읽으며 그 과정에 많은것을 배우고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를 읽고 나는 서흥강 언제로부터 시작하여 연연 수백리 눈뿌리 아득히 뻗어내린 사랑의 물줄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솟아오르는 아침해빛을 받아 은빛을 뿌리며 은혜로운 사랑을 한가득 담아실고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끝없이 쉽없이 일렁이는 어지돈의 물줄기.

세월이 흘러 천만년 가도 이 땅에 생명수를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라!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오직 행복에 행복만을 겹싸안으며 자라온 나는 우리 고향마을에 깃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장편소설 《생명수》를 통해 더욱 똑똑히, 더욱 실감있게 알게 되었다.

내가 나선 자란 정든 고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서사시적화폭속에서 생동하게 형상한 이 장편소설을 읽고 나는 여성들의 형상에서도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거창한 언제건설장에 한마음 한뜻으로 펼쳐나선 우리 여성들의 자랑스런 모습은 참말 인상적이다.

봉숙이의 형상이라든가 또 대성의 어머니 오상녀, 선희 그리고 설계기사 문석빈의 이해 은경의 형상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끄는것인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로 후방을 지켜 용감하게 싸워온 봉숙이는 마을에 친히 찾아오시여 봉산별농민들의 물에 대한 숙원을 풀어주시려 몸소 언제자리까지 잡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고무되어 낮이나 밤이나 쉬없이 발로 수차를 돌렸으며 은혜로운 어지문물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고 마침내 언제건설장에 돌격대원으로 지원나오게 된다.

돌격대장 봉숙이는 비록 여성의 몸이고 나이도 어리지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였기때문에 건설장에서 제일 어렵고 힘이 드는 추도공사장에 자진하여 나가며 막아서는 모든 곤난과 애로를 박차며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뛰고 또 뛴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고난 지금도 추도공사장에서 봉락사고가 났을 때 언제현장으로 작업장을 옮기라는 부기사장에게 하는 봉숙이의 절절한 목소리가 나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부기사장동지, 우리가 무엇때문에 돌격대를 무어가지고 여기에 왔습니까?

...여기 일이 힘들고 위험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우리 농민들의 물고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로동자동무들에게만 위험한 일을 맡기고 쉬운 일을 찾아 여기를 떠날수

있겠습니까? 부기사장동무가 우리들의 립장에 섰다면 과연 물러설수 있겠습니까?》

절절하게 안타까이 웨치는 봉숙이의 이 말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한목숨 기꺼이 바쳐서라도 그이의 교시를 관철하고야말 주체형의 피가 도도히 맥박치고있다.

봉숙이의 형상과 함께 대성의 어머니 오상녀의 형상도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몸은 비록 늙었으나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언제건설장에 나와 돌격대원들의 식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짬짬이 작업복을 손질하는 오상녀.

날마다 우유통에다 더운 숯불을 넣어가지고 작업현장으로 돌아다니며 건설자들을 고무해주는 오상녀의 형상에서도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언제건설장에 나가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평양에서 이사를 나와서는 진료소에 찾아오는 건설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일과 같이 현장치료를 하며 야밤구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만사를 제끼고 그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은경의 형상도 인상적이다.

참말로 이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수리화방침을 받들고 용약 펼쳐나선 모든 여성들의 투쟁모습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펼쳐보여 주고있다.

물이 없어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던 봉산땅에 생명수를 보내주시고 그 땅을 기름진 옥답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되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지니고있는 언젠는 오늘도 하늘높이 그 위용을 펼치며 길이길이 그 사랑, 그 은덕을 전하고있다.

나는 앞으로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이 깃들여있는 영광의 땅에서 사는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교원혁명가로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을 결의다진다.

**사리원 제1사범대학  
어문학부 학생 김선희**

가사

## 이보다 더 큰 행복 세상에 없네

홍기풍

보람찬 일터에 들어설 때나  
불밝은 창가에 서있을 때나  
수령님 우러러 기쁨을 드릴  
간절한 생각에 가슴 설레네

(후렴)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바치는  
이보다 더 큰 행복 세상에 없네

시련의 비바람 몰아쳐와도  
천만리 험한 길 걷는다 해도  
수령님 높은 뜻 받들어가는  
이 마음 순간도 변함없으리

(후렴)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바치는  
이보다 더 큰 행복 세상에 없네

천만길 땅속도 뚫고가리라  
풍랑도 웃으며 헤쳐가리라  
수령님 따르는 영광의 길에  
피땀은 이 한몸 바치여가리

(후렴)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바치는  
이보다 더 큰 행복 세상에 없네

## 충성을 바쳐가는 오직 한마음

배현평

준엄한 시절에 청춘을 빛내며  
우리는 전사의 영예 가슴에 지녔네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리

하나의 뜻을 안고 우리 태어나  
하나의 신념 안고 삶을 빛내네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그 어디 가도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리

우리가 가는 길 멀고 험해도  
혁명의 한길우에 영원히 살리라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폭풍속에도 굽힘없는 한마음 바치리

# 김일성주석의 노래

수단

싸라하 모하메드 하싼 작사, 작곡

## 1. 만민의 태양 **김일성** 주석은 우리의 수령

만민의 태양 **김일성** 주석은 우리의 수령

그이는 승리의 한길로 혁명을 이끌어나가시네

그이는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개척해나가시네

만민의 수령 그이께 인민은 영광드리네

## 2. 만민의 태양 **김일성** 주석은 우리의 수령

만민의 태양 **김일성** 주석은 우리의 수령

그이는 우주에 못비길 크나큰 사랑을 지니신분

그이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가신다네

만민의 수령 그이께 인민은 노래드리네

## 3. 만민의 태양 **김일성** 주석은 우리의 수령

만민의 태양 **김일성** 주석은 우리의 수령

그이는 주체의 빛발로 원썩을 휩쓸어버리시네

그이는 필승의 신념을 인민들 가슴마다 안겨주시네

만민은 우러러 그이의 만수무강 축원하네

#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

## 그이는 세계혁명의 위대한 태양

말가슈  
라꼬또바오 라브 싸무엘 작사, 작곡

### 1. 조선에서 솟아오른 태양

세계혁명앞길을 밝히니

주체조국조선을 향해

온 세상 마음들 달리여가네

(후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태양

주석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주석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 2. 주체는 불멸의 기치

자주시대 밝히는 기치

인민들은 그 기치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간다네

(후렴)

### 3. 우리 시대 밝히는 사상

위대한 **김일성**주의

인민들은 그 빛발아래

영원히 행복을 꽃피가리라

(후렴)

# 위대한 혁명가정

꾸바

싼피아고 에데라 베니페스 작사, 작곡

1.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주석  
혁명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였어라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은  
침략의 무리들을 물리치신 애국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가정은  
나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가정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가정은  
나라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가정
2.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는  
굴함없이 일제와 싸우신 애국자  
수령님의 아버지 김형직선생님은  
혁명의 새벽길을 걸으신 애국자  
(후렴)
3. 녀성해방 귀감이신 강반석녀사는  
혁명가로 자제분을 키우신 어머니  
굳센 의지 지니신 김철주동지는  
조국 위해 한목숨 바쳐 싸우시였네  
(후렴)
4. 외할아버님과 외삼촌분들도  
조국의 해방 위해 싸우신 투사들  
**김일성** 주석의 위대한 가정  
혁명의 가정이어 만대에 빛나라  
(후렴)

## 평양에 사는 의미

최승철

누구나 그럴테지만 나는 지방에 일보러 갔다가 평양으로 돌아올 때면 언제나 가슴 뭉클한 낭만적인 기분을 느끼게 되곤 한다.

쾌속으로 달리는 차앞 멀리서 평양의 주변지대에 있는 고층건물의 정수리들이 구름이나 수풀너머로 보석처럼 빛을 뿌리며 부풀어 다가오고 마침내 활기찬 도시의 일각이 눈앞에 펼쳐지면 출장에서의 피로도, 번거로운 실무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마치 극장에서 훌륭한 공연을 볼 때처럼 가슴이 짜릿해지고 생각은 가지가지 뜨거운 서정으로 넘친다. 혼 혼하고 향기로운 평양의 맑은 대기도, 정제되고 조화를 이룬 부드러운 음향도, 내부에 지닌 높은 자존심과 슬기에서 우러나오는 거리의 투명한 밝은 미소도 나에게서는 격려이며 축복이며 훌륭한 사명감에 대한 시이다. 벌써 스물다섯해째나 줄곧 평양에서 살아오지만 이러한 느낌은 세월이 흐를수록 강렬해지기만 한다.

나는 어린시절부터 농촌 자연을 좋아했지만 도시를 무척 그리워했다. 암담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시기, 울적한 궁허속에 애절한 그리움이 드리워있던 함주벌의 흙속에서 난 나는 코흘리개 시절부터 남으로 트인 지평선너머에 있다는 함흥이라는 도시에 대한 갈망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함흥으로 장보러 가는 어머니를 한사코 따라가서 처음으로 큰 도시를 보고 그 야단스러움에 놀랐던 일은 지금도 부끄러움으로 기억에 생생하다.

그날 어머니는 마늘을 여러점 무겁게 이고갔었는데 시장에서 값을 흥정하다가 어떤 모욕에 기분을 잡쳤던지 힘겹게 이고갔던것을 팔지 않고 그 먼길을 도로 이고 떠났다. 왜 팔지 않았는가고 물었더니 《호미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년놈들의 소갈머리가 더러워서 그런다.》고 하였다. 량순한 어머니가 도시를 미워하고있다는것이 신기했다. 철이 들어갈수록 그 말의 의미가 무거워졌다. 차차 알고보니 그때의 도시란 가난한 사람들을 비틀어 찢먹는 거대한 착유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철부지시절의 첫 환상과 그에 뒤따라 공포와 환멸을 주던 도시에 대한 개념은 오늘 우리나라의 수도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평양의 장관앞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평양은 우리에게 가장 숭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

운곳이니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은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수도이며 우리 혁명의 발원지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며 그이께 바치는 끝없는 흠모와 영광으로 빛나는 평양.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가 자리잡고있어 언제나 혁명의 열풍으로 숨을 쉬며 주체의 진리와 슬기로 세상을 밝히는 평양!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평양을 이루고있는 모든것이, 그의 들끓는 생활과 함께 네거리에서 호기있게 질서를 잡아가는 처녀교통지휘원도, 깊은 밤에 어느 유치원에서 들려오는 서투른 풍금소리도 한없이 귀중하다. 하늘을 치받들고 일떠선 웅장한 거리며 맑은 대동강, 광장들과 유원지 그 어디에서나 이 비상한 도시가 우리에게 눈짓하며 빛나게 살기를 바라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도시의 오늘을 누리게 되었는가?

집들이 거리를 이루고 거리가 큰 도시로 자라나는 과정은 장구한 세월을 걸치는것이 상례이다.

세계에는 기원전부터 꿈지락거리며 커온 도시들도 많다.

하기는 개별적인 건물들도 그것이 야심적인것일 때는 수십년씩 짓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러니 매개 세대는 자기가 사는 도시의 긴 력사과정에서 고작 자그마한 하나의 마디를 목격하고 사라질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평양은 지난 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파괴행위로 빈터전만 남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도시건설의 주춧돌을 놓는 첫시초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한탄하는 오늘의 평양을 건설해냈고 행복한 수도생활의 향유자로 되었으니 다른 나라 같으면 수백년이나 걸릴 새로운 문명창조의 과정을 한 세대에 거뜬히 해낸것이다!

얼마나 표현이 강한 언어를 찾아내면 이 대단한 기적이 의미하는바를 비슷이라도 전할수 있을가. 우리가 사는 집, 우리의 가로수들, 거리들은 어떻게



생겨난것인가, 밤이면 열정적인 로동뒤에 단잠에 든 조국의 밝은 꿈을 떠신고 소리없이 일렁이는 불빛의 바다는 어떻게 펼쳐진것인가.

평양의 새로운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전쟁의 불바다속에서 작전대우에 펼치신 그 설계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불별이 내리는 낮이나 비오는 밤이나 깊은 굴착장을 오르내리시고 흙무지를 넘으시며 건설자들을 격려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살림집에 온돌을 놓는 문제로부터 유원지를 꾸리고 갖가지 가로수를 심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몸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하면 가슴 뜨거움을 억제할수 없다.

나라의 모든 창조물이 다 그러하지만 평양을 이루고있는 모든것은 우리모두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인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속에서 살고 일하며 혁명을 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평양에 사는 영광의 깊은 의미가 있다.

평양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모두의 손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로동자도, 당일군도, 학자도, 가정주부도 모두가 건설자였다. 젊은 남녀들은 서로의 일숨씨에 반해 사랑을 맺었으며 아이들은 건설장에서 사물의 개념을 배웠다. 매 사람의 집들이 날과 모든 공공건물의 준공식날은 우리모두의 명절이었다. 우리가 이사한 새집들에서 처음으로 전등을 켰을 때 아득한 옛적부터 대대로 후손들을 낳아주고 그들에게 가난과 함께 눈물겨운 희망을 유산으로 남긴채 어둠속에 묻혀간 그 선조들도 다시 눈을 떴으며 밝은 미래가 우리의 창문앞에 웃었다.

지난날에는 서방세계의 문화가 동방과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속물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서방의 병든 문명은 평양이 펼치는 새로운 주체문화앞에서 빛을 잃고 비칠거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령도하시며 창조하신 평양의 주체문화가 갈래 많은 강처럼 세계에로 흐르는 시대가 온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주체란 말, 혁명, 창조, 기적이란 말은 평양의 대명사처럼 울리고있다.

세계가 경탄하는 평양의 높이는 두말할것도 없이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높이 그것이다. 평양사람들은 이 자랑스런 높이우에서 살고 일하며 혁명을 하고있다. 요컨대 우리는 무엇을 하거나 이 높이에 어울리게 살아야 하며 이 영예를 빛내일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투쟁해야 할것이다.

나는 평양에 살고있는 덕분에 몇해에 한번씩 고향에 들릴 때면 마을친지들의 각별한 믿음을 받곤

하였다. 고령인 로인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 모두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안부부터 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일이 분망하셔서 편히 주무시지 못하신다는데 평양에 있다는 자네가 그분께 다문 얼마간이라도 꼭 쉬시도록 말씀 한번 못올렸단말인가 하고 나무람하기도 했다.

로인들은 나를 불러다놓고 방안을 담배연기로 가득 채우며 궁금해하던 모든것에 대해서 다 물었다. 나는 아는것 진지하게 설명하느라고 했으나 질문의 범위가 하두 넓어서 딱히 대답을 못한것도 없지 않았다. 한데 딱한것이 로인들은 나에게도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믿지 않았다. 나더러 쓸데없는 겹손을 부린다고 나무람하기도 했다.

충격이었다. 그들은 평양에 사는 나에게세는 세상엔 모르는것이 없는줄로 알고있었다. 평양에 사는 사람은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으며 그 사명을 놓고 다면적인 능력으로 무조건 빛나게 수행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보통으로 평범하게 살수 없다.

문화란 결국 깊이 사색하는 능력의 표현이라면 새로운 주체문화의 본보기를 창조하고있는 평양사람과 매 개인의 모든 로동은 자기를 받들고있는 집단과 사회 앞에서뿐아니라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앞에서까지 그리고 평양을 쳐다보는 남조선사람들과 세계앞에서 유감없이 찬양받을만한 높이에서 진행되야 할것이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타성적으로 일할수 없다. 일용상품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글을 쓰거나 거기에 평양의 문화성이 비쳐나와야 하며 우리들 매 사람의 높은 기술로 안반침된 존엄이 풍겨야 한다.

해마다 여러해분의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방직공의 영웅성, 설계도면우에 꽃살처럼 머리를 모으고 미래와 세계를 가늠하는 설계가들의 다원적인 사색, 불꽃튀는 바이트끝을 주시하는 선반공의 강철빛 눈길, 예술창작가들의 비상한 탐구... 그 모든것들에는 평양의 기상이 선명하게 풍긴다.

오늘과 미래와 세계를 위한 책임감, 그것은 당중앙위원회 청사로부터 대학 강의실이며 모든 가정들에 이르는 평양의 구석구석에 대기처럼 배여흐르고있다.

지난 여름 어느날 시내의 뱀스에서 본 일이다. 한 정류소에서 젊은 산모가 갓 낳은 아기를 안고 올랐다. 빈 좌석이 없어서 여럿이 일어나서 자리를 권했다. 포탄에 겹겹이 싸안은 아기에게 마음이 팔려있던 산모가 오목오목 귀엽게 생긴 얼굴을 살짝 붉히며 자리에 앉자 옆에서 책을 읽던 중년남자가 안경 너머로 산모를 넘겨보고 빙그레 웃으며 푸점 좋게 말했다.

《수고했구먼. 대를 이을 평양사람이 또 하나 늘었거던!》

산모는 귀바퀴까지 붉어졌으나 부푸는 자랑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학생으로 보이는 한 처녀는 가룩한 마음에 산모가 더위한다고 부채질을 해주었다. 그러자 뒤편에서 기골이 장대한 로인이 급한 소리를 치며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아니 저런, 부채를 썩 치우지 못하겠어? 산모가 바람맞으면 어쩔려구 그래!》

기겁을 하며 부채를 치운 처녀는 금시 울상이 되었다. 로인은 다행 처녀의 어깨를 한두번 쓰다듬어 주더니 서둘러 산모의 곁차창을 닫아주었다. 흘러드는 바람이 걱정되었던것이다. 로인의 본을 따서 모두들 차창을 닫았다. 날씨는 례년에 없던 무더위여서 뻘스안은 숨이 콕콕 막혔으나 승객들은 과분한 표창이라도 받은듯한 얼굴들이었다. 산모는 속이 끓는듯 높은 가슴이 오르내리었다.

로인은 빠끔히 열린 포단귀로 아기를 들여다보며 소리 없는 황소웃음을 웃더니 산모에게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고마운 일이요... 아이는 좋은 시절에 났어!》

뒤자리로 돌아가 앉은 로인의 모습을 돌아보는 젊은 산모의 상기된 얼굴에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승객들은 모두다 생각에 잠겨 눈길이 가느스름해졌다. 로인이 잘 말했지, 아기는 얼마나 좋은 시절에 태어났는가! 얼마나 물려받을것이 많은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것은 또 얼마나 값지고 비상하고 빛나는것들인가!

나는 찬란한 불빛의 바다를 이룬 우리의 평양이가없는 지평선을 넘어 후손들의 미래에 흐르는 장엄한 광경을 생각했다. 후손들과 세계, 그들앞에서 우리의 모든 창조물은 영원히 쓸모있고 자랑스러운것으로 돼야 한다. 그렇게 사는것이다! 그렇게 투쟁하는것이다!

##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말	본래말	다듬은 말
구두로	입으로, 말로	근경	가까운 보임새
구득하다	얻다, 얻어내다		(영화에서)
	구하다...		가까운 경치(미술에서)
구라인다	돌이숯돌	근절하다	뿌리빼다, 없애다...
구래의연히	옛날그대로, 그전대로	근해	가까운 바다
국부관수	포기 물주기	금년	올해
국부조명	몰아비치기	금년도	올해
굴절	꺾임	금주	이번주
굴지의	손꼽을만한, 손꼽히는...	급경사	된비탈
궁형	활형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빨리...
극도로	몹시, 매우	급수	물대주기
	(매우 심한, 아주 심한)	기관지	숨대
극한점	숨고비	기량	재간
근거리	가까운 거리	기만동작	속임수

# 밝은 웃음

서정호

사회에 나온지 이제 일년밖에 되지 않는 갱내검 탄원 영실은 일 잘하고 룡 잘하는 명랑한 처녀였다.

그의 불우몰래인 오동통한 두볼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떠날줄 몰랐고 작으나 균형이 잡힌 탐탁한 몸에서는 늘 통겨질듯한 탄력과 발랄한 생기가 풍기었다. 영채도는 그 눈동자속에 세상의 맑고 깨끗한 빛같은 다 들어있는가싶도록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정다워보이었다.

갱내검탄원이란 무겁고도 분주한 직업이다. 갱안에서 나오는 모든 석탄은 그의 밝은 눈과 정확한 계산에 의하여 판정되고 평가되었으며 또 상급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영실은 자기 사업에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고있었고 느끼는 그만큼 금지와 보람을 가슴뿌듯이 간직하기도 하였다.

영실에게 있어서 제일 분주한 시간은 교대시간, 그것도 월말을 앞에 둔 교대시간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이 갱 탄부들의 하루실적을 판정하는 드바쁜 시간인것이다.

방금 검탄을 끝낸 그에게로 또다시 서너개의 탄차행렬이 썩 바람을 일구면서 달려들었다. 탄차와 함께 끼여들어서는 억대우같은 채탄공들이 옥- 그앞으로 쓸어들어서는 저마끔 한마디씩 고아대었다.

《영실이, 조구통이 찾아. 빨리 봐줘.》

《우리 막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형편이야. 다 음 교대의 생산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게 돼.》

《월계획이 목에 걸렸는데 영실이 우리부터 먼저 봐달라구.》

영실은 어리둥절해진 눈으로 그들의 조바심이 난 얼굴들을 멍청하니 바라볼뿐이었다.

《차, 바쁘다고 다들 한꺼번에 이렇게 고아대면 어떻게 하오? 영실의 립장도 좀 생각해주어야지. 여기가 뭐 장마당이요? 나온 순서대로 하기로. 순서대로...》

채탄3중대의 중대장인 창배가 그 인상적인 주먹코의 나래를 벌름거리며 짜증섞인 어조로 웨치었다. 그의 말에서는 질서 그자체보다도 영실을 위해주려는 마음이 더 길게 울리었다.

권입장에 무슨 불일이 있어 나왔던 그는 중대로

되돌아가던길에 돌발적으로 나타난 채탄장의 탄질 변화상태를 영실에게 알려주기 위해 들린것이였다. 이 창배로 말하면 석탄관리국으로 소환되어가서 일을 보고있는 영실의 삼촌과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함께 제대되어 이 탄광에 온후에도 한이웃에서 살면서 너나들이로 허물없이 터놓고 지내오던 처지였다. 삼촌들 관계가 그러하니 영실 이도 자연 그를 친삼촌 맞집이로 따르게 되었고 창배 역시 그를 친조카처럼 아껴주었다.

창배는 탄광적으로도 소문이 뜨르르한 채탄중대장이였다. 그의 중대는 언제 한번 월별, 분기별계획을 미달해본적이 없고 창배자신도 불도젤중대장이라는 별호로 통할만큼 내밀심이 강했다.

후리후리한 키에 바위와도 같은 듬직한 량어깨며 붓으로 툭 찍어놓은듯한 술진 눈섭과 툭 불거져나온 광대며, 유포나보이는 그 둥실한 주먹코로 하여 어딘가 성깔스러워보이면서도 미더운 인상을 주는 진짜배기탄부다운 체취가 풍기는 사람이였다. 그래서인지 영실은 그를 몹시 따르고 존경했으며 그만큼 그에 대한 자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기도 하였다.

《아저씨, 어떡했음 좋을까요? 나온 순서로 치면 아저씨네가 먼전데 채탄1중대에선 여섯줄밖엔 못내왔으니...》

이렇게 말하는 영실의 얼굴엔 어리광 비슷한 그러면서도 양보를 바라는 진심의 빛이 어려어있었다.

《그리니 열줄을 내온 우리가 좀 뒤로 처져달란말이지? 그러렴. 검탄원인 너의 부탁인데 듣지 않았 다간 큰일나자구.》

창배는 영실의 그 마음이 기특한지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운채 룡말을 했다.

영실은 생글 웃으며 곧 채탄1중대탄차들에 대한 검탄을 시작하였다.

재빨리 검탄을 끝낸 그는 이번엔 창배네 석탄차들앞으로 다가갔다. 전차운전공은 영실의 걸어다니는 수고를 덜어줄셈인지 차를 그 앞으로 바짝 갖다대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 앞으로부터 세번째 탄차가 레루분기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만 덜커덩 탈선이 되어버린것이다.

그바람에 차에 실린 석탄들이 한쪽으로 왁 쏠리면서 우루루 땅바닥에 쏟아져내리었다. 운전공은

재빨리 차를 멈춰세웠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 되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을 못하고있던 영실의 두눈이 불시에 휘둥그레졌다.

《아니?》

외마디소리를 낸 그는 탈선된 차앞으로 급히 다가가 기웃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허연 버럭덩이 몇개가 눈에 띄었다. 영실은 한순간에 얼굴색이 달라졌다.

《아이,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아저씨네 채탄장에서 나오는 석탄엔 여직 버럭이 없었는데...》

그의 입에선 실망어린 목소리가 튀어나갔다.

《그러지 않아도 내 이 문제때문에 널 찾아왔다. 채탄장 한귀통이에 뜻하지 않던 짬버럭충이 나져서 그러지 않니. 갱정량원에게 알리긴 했다만 우선 감모량을 얼마나 봤으면 좋겠는지 어디 네눈으루 한번 확인해보렴.》

영실은 쏟아져내린 석탄들을 손으로 헤집었다. 이밥에 누워서이듯 버럭들이 다문다문 섞이어나왔다.

그는 그것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혼자속으로 생각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버럭을 섞지 않고서는 탄을 못내보낼가? 막장에서 버럭을 자체로 처리할수 있는 방도는 없단말인가?...

그도 지금까지는 이 버럭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채탄장 탄질의 변화에 따라서 버럭이 섞어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래서 갱정량원이 알려주는대로 버럭섞인 량만큼 프로수나 삭감해서 내보내면 그만인것처럼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견학차로 화력발전소를 다녀온 뒤부터는 숫제 생각이 달라졌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힘있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전국을 불리 일으켜주시였으며 탄부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높으신 믿음과 은덕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들먹여오던 그였었다.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서있는 위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립장과 태도에 대하여 새삼스레 깊이 돌이켜보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감모량을 적어도 5프로는 보아야 할것 같구만요.》

영실이 부드럽게 말했다.

《5프로? 좀 야박한걸. 하긴 검탄원인 너의 눈이 틀림없을테지. 까지거 그대로 제하렴. 5프로래야 새발에 피지.》

창배는 선선히 응해주었다.

《아저씨, 한가지 물어도 좋겠어요?》

영실은 갑자기 얼굴에 심중한 빛을 담았다.

《뭘테?》

《저- 막장에 짬버럭충이 나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버럭을 섞어서 내보내지 않을 방도는 없을까요?》

《응?! ... 허 너 괜찮구나 그런데 다 관심을 가지구. 버럭이라느건 논판의 돌피와 같은거야. 석탄으로 산을 쌓는 일인데 그썸한 버럭마저 안섞일수가 있나. 많던 적던 탄층엔 짬버럭이라는게 끼여 있기 마련인데 허허...》

창배는 영실을 기특하게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돌피라면 다 잡아야지요뭐.》

《허 이것 봐라. 영실이가 보통이 아닌걸.》

진송 룡으로만 받아넘기는 창배앞에서 영실은 그만 말문이 막히었다. 그는 공연히 얼굴을 붉히며 아래입술을 살그머니 깨물었다.

그날 작업교대를 인계한 영실은 인차장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고있었다. 탄부들은 로동자 문화회관에서 도예술선전대 공연이 있다고 모두를 서둘러대며 인차장으로 달려나갔다.

《영실아. 넌 왜 거부기걸음이냐? 어물어물하다간 자릴 떼운다. 빨리 가자애.》

제포래의 권양기운전공이 쟁소리로 종알대며 자기 옆을 살처럼 빠져나갔다.

어느때같으면 영실이도 그와 못지 않게 서둘러뒀을것이다. 그래도 어쩐지 지금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은 납덩어리라도 매단듯 무겁기만 하다.

어쩐일인지 눈앞엔 아까 본 그 흰 버럭덩이들이 자꾸만 어룡거리고 그것들이 명치끝에 걸려서 내려가질 않았다.

다시 가서 창배아저씨 만나야겠어. 그래도 버럭을 채탄막장 자체로 처리할수 있는 그 어떤 방도가 있을테지뭐. 이보다 더 큰 문제도 해결할라니...

영실은 돌아섰다. 그리고는 창배가 가있을 채탄8중대 막장을 향해 쟁걸음을 놓았다.

채탄장은 들끓었다. 눈뿌리가 아플 지경으로 일매지게 쭉- 뻗어나간 고열탄의 장벽면과 맞붙어서 그 육중한 절삭이발로 으득으득 석탄을 물어뜯는 원통식채탄기며 믿음직하게 천정을 떠받들고 서있는 유압식기계동발, 뚱기적거리며 힘겨웁게 석탄을 떠실고 흘러가는 대형장력콘베아, 부산스러운 사람들의 움직임-모든것이 뛰고 소리치고있었다.

벽차고도 장엄한 분위기가 가슴가득이 안겨왔다. 여기서는 어쩐지 자신의 존재가 망망한 바다한가운데 떠있는 쪽배마냥 작고 보잘것 없는것으로 느껴진다.

영실은 창배를 찾아 장벽면을 눈으로 훑으며 발

범발범 아래로 내려갔다.

문득 그는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채탄장 한 귀퉁이를 엿비스듬히 가로질러간 짬버럭층을 발견한 것이다. 아까 창배가 말하던 그 짬버럭층이었다.

100미터가 넘는 긴 담벽같은 장벽면에 비해볼 때 이것은 실상 옥에 티라 할수 있는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잘만하면 이런것은 자체로도 얼마든지 처리해낼수 있을것 같았다.

저쯤 아래서 무어라고 벽적 고아대는 창배의 목소리가 채탄장의 온갖 소음을 밀어젖히며 들려왔다. 누군가를 꾸짖는 소리였다.

이마우의 안전등을 번쩍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오던 창배가 영실이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아니 너 영실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

《호오- 전 뭐 못올데나요.》

영실은 오동통한 두볼에 밤알을 붙여 우야 눈을 쏘아봤다.

《오늘은 뭐 좋은 구경도 있나부던데 가지 않니? 빨리 나가서 자리두 차지해야지.》

《아저씨 왜 안가요?》

《나? 나야 언제 그럴 짬이 있어야지. 하긴 갱참모 회의가 있어 인차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 무슨 일로 왔냐?》

호기심을 가지며 창배가 물었다.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나하구? … 무언데?》

《버럭문제때문예요. 이제 보니깐… 뭐 큰 짬버럭층이 아니더구만요. 거기서 나오는 버럭층은 자체루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을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일부터 왔단말이지? … 알겠다, 네 마음을… 무슨 뽕족한 수라도 생각났나분데- 어디 말해보렴.》

《아니 아직… 그저 왜 그런지 량심상…》

《허허 가책이 된단말이로구나. 어쨌든 기특하다. 하긴 그래야지. 침 일할 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마련이다. 하나 몸에 석탄진이 폭 배게되면 좀 달라지지, 눈에 결함만 많이 보이는 때도 있거든. 아마 네가 금속이처럼 10여년동안 검탄공을 했다가 나 내 자리쯤 서있게 된다면, 아니 갱장이 된다고 해보지.》

《아저씨두 별소릴 다 하시네. 그렇게 되면 내 눈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지요?》

《그저 그렇다는거다. 누구나 말하기야 쉽지, 말하기야… 네가 혹시 나한테 버럭 골라내는 로력을 척 가져다주면서 그러면 몰라도.》

창배는 영실이 자기의 말을 결코 무시할수 없다는 뜻의 신중한 낯빛을 지으며 타이르듯이 조용히

말했다.

영실은 입을 다문채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였다. 로동화교승이로 말없이 발밑의 석탄덩이만을 굴리였다.

영실이를 이윽히 지켜보던 창배가 입가에 거느적 이 웃음을 띠우며 다시 입을 열었다.

《구경두 안가구 일부터 남은 네 마음이 참 기특하다. 제 일두 아닌걸 가지구 그러는 검탄공이 어디 쉽겠니?》

《…………》

영실은 창배의 말을 듣기가 거북살스러워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였다. 마치도 그의 칭찬이나 동정을 받으려 온것 같아서였다.

《글쎄 너한테 할 소린 아니다만 까놓구 말해서 5프로두 되나마나한 버럭때문에 기본을 놓칠순 없거든. 기본이야 석탄을 광광 캐내는거지. 그것때문에 탄부들이 있는것이구. 그렇지 않니?》

영실은 대답에 궁했다.

마음같아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발하고도 싶었다. 하나 어쩐지 선뜻 말문이 열리지질 않았다. 창배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 말도 과연 그럴상하게 들리었던것이다.

그런데다 이 벽찬 채탄장의 분위기자체가 영실에게 그 어떤 위압감 비슷한 새삼스러운 감정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5프로! 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 없는것에 신경을 쓰는것이 아닐가? 우리가 캐내는 그 많은 석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영실은 자기의 속마음을 누가 들여다보는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렇지만…》

영실은 입속말로 중얼거리였다.

《허, 아직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데두, 너 견학을 갔다오더니 사람이 좀 달라진것 같다. 헛허…》

창배는 껄껄 웃었다.

《그럼 먼저 나가보겠어요. 수고하세요.》

영실은 가벼이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돌아서서 누가 보기라도 할세라 몸을 웅크리듯 바람처럼 채탄장을 새어나갔다.

운반갱도를 걷고있는 그의 머리속은 먹장구름이라도 낀듯 흐리어있었다.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나고 무어라 말할수 없는 안타까움이 심장을 지지였다. 시험장에 나섰다가 대답을 못하고 돌아섰을때와 같은 쑥스러움과 허전함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저도모르게 허둥거려졌다.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 하나 버력을 없애는것도 그와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질낮은 석탄

을 자꾸 캐서 내보내기만 해서는 뭘해? 그래서 프로수나 올려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가 캐낸 석탄에 버력이 끼여있다는것을 아신다면… 이걸 탄부의 량심에 대한 문제야. 5프로를 감도당하고 안당하고가 문제가 아니지…

영실은 자신의 용렬함을 꾸짖으며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갱박을 나섰다…

영실이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나오자 다음번 인차를 타고 갱안에서 나온 탄부 몇사람이 충전소 문옆에 걸어놓은 생산도표판앞에서 저희들끼리 무어라고 수군대고있었다.

창배의 인상적인 주먹코도 보이였다. 그의 얼굴엔 만족에 가까운 흐뭇한 미소가 떠올라있었다.

영실이라도 문득 호기심이 동해나 조용히 생산도표판결로 다가갔다.

각 중대와 소대의 월생산실적들이 들쭉날쭉 서로 커다름을 하며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있었다.

창배네 채탄3중대의 선이 제일 높이 솟아올랐다. 마치 어느 선들을 굽어보며 어디 따라올테면 와보라고 으시대기라도 하는것 같았다.

그 선을 바라보는 영실의 눈은 저도모르게 흐려졌다. 응당 제일 앞에 섰으니 자기도 창배처럼 마음이 흐뭇해야만 옳을것이였다.

하나 어쩐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파연 저 선속에 그 중대 채탄공들의 티없이 맑은 충성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말할수가 있을가?

그럴수가 없었다. 저기엔 티가 있었다. 탄으로 솟아오른 저 충성의 무지속엔 버력이라는 깨끗치 못한 티가 섞여있었는것이였다.

그의 눈앞엔 저 붉은 선속에 박혀있는 거뭇거뭇한 그 티, 버력덩이들이 그대로 보이는듯하였다.

영실은 도표판에서 물러나 즐겁게 웃는 창배의 웃음소리를 뒤로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높다란 버력산우에 올라앉은 불덩이같은 태양이 탄광마을의 아담한 다층주택들을 감빔으로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갱쪽에서 울려오는 쿵쿵거리는 압축기의 고르로운 동음, 달가닥거리며 돌아가는 권양기쇠바줄밀의 도르래 구는 소리와 석탄실은 화차들을 쫘무니에 길게 달고 기세줄게 달리는 기관차의 무쇠발구름소리, 긴 팔을 휘두르며 석탄을 퍼시는 상하차장의 크고작은 기증기들…

영실은 책상에 마주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내다보았다.

그의 눈길은 저기 피라미트형으로 높이 솟은 버력산에 가닿았다. 문득 눈앞엔 며칠전 견학때 화력발전소에 가서 본 작지 않은 버력더미가 새삼스러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버력, 버력이 문제이다. 탄속에 섞인 버력이… 탄광사람이라면 응당 그 누구든 버력에 관심을 높이고 그것이 탄속에 섞여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말하기야 쉽지, 말하기야.》

부지중 창배의 목소리가 귀청따갑게 울려왔다.

영실은 마치 그 소리를 털어버리기라도 하듯 가벼이 머리를 좌우로 내젓고는 책꽂이에서 공책을 세웠다. 뚜껑을 열고 거기에다 오늘 본 채탄막장의 장벽면과 짹버력층, 콘베아 등을 그려넣었다. 그리고는 팔로 턱을 고인채 다시금 생각에 잠기였다.

어느 집 앞마당에서 한 녀인이 방금전에 실어온 듯싶은 석탄무지에서 버력을 골라내고있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저 버력을 저렇게 힘들여 밖에까지 실어내다가 골라야 할가? 아예 채탄막장에서 다 고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티끌모아 산이라구 비록 한채탄막장에서 나오는 버력은 작다지만 그게 모여 화력발전소에 가선 높은 산을 이루니… 아니야, 이걸 결코 버력문제가 아니야…

버력을 삼태기에 담아든 녀인이 그것을 웅덩이에 와락 쏟았다.

순간 영실의 두눈이 반짝하고 빛을 뿜었다.

웁아, 이것이였구나. 막장에다도 저런 웅덩일 만 들면 되겠구나. 채탄장의 콘베아겅도옆에 버력몽는 주머닐 따로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탄속에 섞이어나오는 버력을 골라넣으면 결국 갱박으로는 깨끗한 석탄만이 나오게 될게 아닌가.

영실은 큰 발명가라고 한듯 기쁨과 흥분에 들뜬 마음을 안고 공책장에다 《버력주머니》도안을 그리기 시작했다. 일에만 골몰하다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느덧 밤이 펴 깊었다. 도안을 완성한 그는 그것을 차곡차곡 접어 탄부책복 옷주머니에 정히 집어넣은 다음 잠자리에 누웠다. 개운해진 마음때문에서인지 인차 술곳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출근하자 바람으로 갱장실부터 찾았다. 때마침 갱장은 방에 있었다.

사십대의 풍신쫄은 사나이인 그는 책상에 마주앉아 두툼한 책을 펼쳐놓고 무슨 글인가를 골똘히 쓰고있는데 작업복차림인데 코밀엔 석탄먼지가 까맣게 앉은것으로 보아 방금 갱안에서 나온 모양이였다.

영실은 조용히 그앞으로 다가가 가벼이 머리를 숙여보인다음 찾아온 사유를 간단히 이야기했다.

《…전 견학차로 화력발전소엘 가보구 정말 많은 걸 느끼였어요. 석탄더미옆에 작지 않은 더미 몇개가 더 솟아있었는데 그것은 탄속에서 골라낸 버력더미였어요. 전 얼굴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 그냥

서있을수가 없었어요.》

《허어, 우리 영실이야 탄부가 다 됐는걸, 그래서?》

갱장은 얼굴에 사람좋은 미소를 담고 호기심어린 눈으로 물었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량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거지요 뭐.》

《아니 그렇지도 않아. 사실 나두 그것때문에 골머리를 앓는중이요. 그래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한게 있소?》

갱장은 영실의 뒤말이 궁금한지 재촉했다.

《예 좀...》

영실은 잠시 주뭇거리고 서있다가 어제밤 자기가 애써 그린 그 도안을 슬그머니 내밀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엔 어찌선지 어쭙은 미소와 함께 얇은 홍조가 비끼었다. 그럴 땐 몰랐는데 정작 갱장을 대하고 보니 무언가 공연한 짓을 한것만 같은 부끄러운 생각이 든것이다.

피곤이 실린 눈으로 잠시 영실이 내미는 종이장을 받아들고 묵묵히 들여다보고있던 갱장은 가타부타 아무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투박투박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문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띄창문을 활- 열어젖히었다. 밝고도 시원한 아침공기가 방안 가득히 끌어들여왔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무거운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이 어린 처녀의 말이 옳다. 터놓고 말하면 갱장인 나자신부터가 그저 생산만 생산이라고 했지 거기엔 거의나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때로 버력이 많다고 상대방 공장, 기업소들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별로 큰 자극을 느끼지 않았고 더구나 갱에서 나간 석탄이 상대방 공장, 기업소들에 가서 어느정도의 은을 내고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나 관심밖이었었다.

그러나 이 처녀의 립장은 전혀 다르지 않는가? 화력발전소앞에 있는 하나의 버력무지를 놓고도 그토록 가슴아파하며 우리 탄부들의 마음과 량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있다. 그리고 없앨수 있는 그 어떤 방도가 없었느냐고 도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갱장을 찾아온것이다. 비록 서툴게 그려진 소박한 도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속엔 얼마나 절절한 이 처녀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이 담겨져있는것인가!

우리 탄부들모두가 저런 립장에서 생각하고 일한다면 과연 그까지 버력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갱장은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삼

키며 천천히 창문가에서 돌아섰다. 그리고는 그 잘올리는 걸걸한 목소리로 단정하듯 말했다.

《영실동무, 이젠 훌륭한 생각이요. 우선 갱장이나 자신부터 자기 비판을 해야겠소. 터놓고 말하면 나부터가 버력문제엔 사실 크게 관심을 돌리지 못했소. 동무처럼 모두들 주인다운 립장에서 사상적으로 동원된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을거요. 알겠소. 동무의 이 도안을 갱참모회의에서 토론한 다음 곧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소.》

영실의 얼굴엔 밝은 빛이 어리었다.

갱장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나라라도 돈친듯 가벼웠다.

그로부터 이들이 지났다.

영실은 오늘따라 이상스레 기분이 좋았다. 불우물 패인 그의 오동통한 두볼에는 다시금 명랑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은방울을 굴리는것과 같은 그 독특한 웃음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의 이런 기쁨은 채탄막장들에서 버력 한덩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석탄들만이 쏟아나오는데서부터 생겨난것인데 그중에서도 창배네 일이 무엇보다 반가웠다. 그 막장 석탄 역시 전혀 버력이 섞이지 않은것이다.

월말을 앞둔 교대시간의 검탄실은 어느때없이 붐비었다.

자기들의 생산실적이 어찌되었는지 몹시 궁금해한 각 막장 소대장들과 중대장들이 뿔뿔게 찾아와서는 영실이를 못살게 굴었다. 계획이 훨씬 초과되었으면 기분들이 좋아서 돌아갔고 뺏빚하면 성이 독같이 나서 마치 그 잘못이 영실에게 있기라도 한듯 따지고들었다.

그래도 영실에게겐 그게 싫지 않았다.

영실이 검탄실앞에서 랄랄거리며 고무호스로 먼지가 이는 땅바닥에 물을 뿌려주고있는데 이번엔 채탄1중대의 젊은 소대장이 그에게로 다가오며 소리를 질렀다.

《영실동무, 우리 중대 실적이 어떻게 됐어?》

《몰라요.》

영실은 우야 썰쭉해진 태를 내며 툭 쏘아붙였다. 그와는 언제나 이런식으로 대하군한다. 그만큼 허물없는 사이이기도 했다.

《차 이것 봐라. 성밀 보니 이 처녀 나같은 좋은 새서방 만나기는 힘들겠는걸.》

청년은 반죽죽게 너스레를 털었다.

《아이, 뭐라구요?》

영실은 뿔로통해서 청년의 얼굴을 흘겨보았다.

《허허, 그러게 그런 좋은 소리 듣지 않을려거든 제격 대주는게 상책이라니깐... 우리 막장 채탄공들은 영실동무 덕에 인젠 버력 없는 깨끗한 석탄만을

내보내게 되었다고 여간 기뻐들 하지 않아. 동무도 안대로 콘베아깅도에 버럭주머니를 따로 만들어놓고 콘베아를 타고나오는 버럭들을 일일이 주어서는 거기에 처넣는데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니깐 뭐 크게 걸릴것도 없더구만. 문제는 사상이야. 그리고 보면 결국 영실동무의 제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지 은을 내고있는셈이지. 우리 채탄공들의 이런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물어보는 말은 친절하게 제격 대주는게 옳지 않을까?》

청년의 이 능청스러운 수작은 즉시에 효과를 나타냈다. 처녀의 연한 마음은 이어 하르르 개여올라 얼굴엔 생글 미소까지 피어난것이다.

《축하해요! 동무네 155프로예요... 자 저의 인살 받으세요.》

영실은 명랑한 어조로 이렇게 웨치고는 청년의 발치에 짹 물줄기를 내뿜었다.

《이크!》

청년은 뜻하지 않던 물벼락에 깜짝 놀라 꺾충 제자리뿔을 하며 얼른 한발 물러섰다.

까르르... 영실의 은방울을 굴리는것과 같은 웃음소리가 깅도에 메아리쳤다.

《재가 어찌된 일이라오. 견학갔다와서부터 언더가 좀 우물해진듯싶다 했더니 갑자기 저렇게 밝아진게...》

《그러게 알고도 모를게 사람의 한길속이라구 하지 않수.》

운탄공아주머니들이 영실을 두고 저희들끼리 주고받는 말이었다.

어쨌든 영실은 기분이 좋았다. 누구하고나 다정스레 이야기를 주고받고싶고 웃고 떠들고 통을 하고싶었다.

하나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이런 기분상태도 이 이상은 더 지속될수가 없게 되었으니말이다.

창배네 막장에서 나온 석탄에 또다시 버럭이 섞여들기 시작한것이었다.

어찌된 일일까? 짹버럭충이 더 두터워진게나 아닌지? 그레 혹 손포가 딸려서 미쳐 주어내지 못한게나 아닌지?

영실은 이런 의혹에 싸인채 탄차들을 하나하나 검열해나갔다. 모두 한본새로 버럭이 섞여있었다.

새 교대가 들어오자 그는 서둘러 교대를 인계해준 다음 창배네 채탄막장을 향해 두주먹을 부르짖고 내달리었다. 그의 발밑에선 석탄덩어리들이 놀란듯 뿔겨달아났다.

어느덧 채탄장입구에게까지 왔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보려니 짹버럭충은 전번보다 더 두터워진게 없었다. 오히려 줄어든듯싶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때마

침 장벽면 한귀통이에까지 다가온 원통식채탄기가 그 날카롭고도 드센 절삭이발로 으득으득 짹버럭이 있는 그 부위를 깎아먹기 시작하였다. 허연 버럭덩이들이 탄과 함께 콘베아에 굴러떨어졌다.

《어마나!》

아연해진 영실의 입에서는 이런 기급한 소리가 어망결에 뛰어나갔다. 그의 얼굴은 핏색하게 질리기까지 하였다. 마치 채탄기가 탄벽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깎아먹는것 같았다.

그는 고무공처럼 튕기여 채탄기를 운전하고있는 청년한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의 앞을 가로막아섰다.

《동무예겐 이 버럭이 보이질 않아요? 이 좋은 탄속에 저렇게 버럭이 섞이면 어떻게 해요? 네?》

영실의 애끓는 목소리에서는 울음마저 섞이여 나왔다.

뜻밖의 일을 당한 청년의 탄가루 묻은 얼굴에는 어처구니 없다는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잠시 망연히 서있던 그는 그때도 처녀의 진심에 감동이 되었던 모양인지 이어 표정이 부드러워져서 제법 측은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동무 심정을 알만한데 보다싶이 이 채탄기로야 탄속에 끼인 버럭충을 피해내기 힘들지 않겠소?》

그런데 없는 말이였다. 실상 채탄기로는 피해낼수가 없는 형편이였다. 영실은 자신의 철박서니 없는 행동에 스스로도 얼굴이 붉어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문제는 버럭을 탄과 함께 떨구는데 있는것이 아니였다. 떨군 버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었다.

《오늘은 이 막장에서도 버럭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이에요?》

영실의 안타까운 물음이다.

《갱참모회의결정대로 우리도 콘베아깅도옆에 버럭주머니를 만들어놓고 일일이 주어냈었는데 아마 중대장동무가 거기에 붙였던 로력을 철수시킨 모양이요.》

《네?》

영실은 놀란 목소리로 반문했다.

철수시키다니? 다른 채탄장들도 실패는 마찬가지인데 왜 하필 이 채탄장에서만...

창배아저씨가 정말 이럴줄 몰랐다. 자기자신 이 문제를 놓고 벌써 한두번만 이야기하지 않았고 갱참모회의에서도 이미 결정지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창배아저씨 왜 이걸 흥정하려 하며 요령주의를 부리려고 하는가?

문제는 버럭 그자체에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버럭을 대하는 그의 사상적립장과 태도에 있는것이다. 머리속에 버럭과도 같은 낯은 사상이 차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 버력을 그렇게 흘시할수가 있겠는가?

영실은 획 발길을 돌리어 창배를 찾아내려갔다.

그는 채탄장과 잇닿은 콘베아갱도입구에서 때마침 채탄장으로 들어오는 창배와 맞다들렀다.

《아저씨 만나려던 참이었어요. 왜 또 버력이 나오기 시작하나요?》

영실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이 대었다.

《일이 그렇게 됐다. 부지깽이도 뾰다는 월말이 아니냐? 아무래도 타산이 맞지 않아 버럭죽기에 붙였던 로력들을 뺐다.》

창배의 혼연한 대답이었다.

《전 정말… 안타까와요. 여느 채탄장도 실정은 마찬가지로 하필 여기서만… 전 아저씨가 누구보다도 저의 말을 이해해주리라 믿었었어요.》

《참, 네 일도 답답하다. 너야 검탄원이 아니냐? 검탄원인 네가 구태여 막장까지 찾아다니며 남의 제상에 배놓으라 감놓으라 할것까진 없지 않느냐말이다.》

《이건 제 일이자 갱의 일이구 나라일이예요. 아저씨 어쩔 그렇게 락후한 소릴 해요? 아저씨의 견해가 그렇기때문에… 이 버럭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난 중대의 생산을 책임진 사람이야. 그까짓 몇덩이 되지도 않는 버럭때문에 구태여 생산을 떨구고싶지 않다. 어쨌든 이달은 그냥 넘기구 봐야겠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한 창배는 제 할 말은 다했다는듯 창황히 팔을 내저으며 채탄장으로 걸어들어갔다.

영실은 억이 막히었다. 그는 이슬고인 눈으로 창배의 뒤모습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는 옷이발로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리어 콘베아갱도로 들어섰다.

갱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저 신명이 나서 우줄거리는 석탄의 흐름소리만이 싸쌌-굴안을 울리고있을뿐이다.

그는 마치 창배와 맞서기라도 하듯 탄속에 다문 다문 쉬이여 눈앞을 흘러가는 버럭덩이들을 정신없이 주어서는 새로 뿜어놓은 버럭주머니(버력을 처리하는 걸굴)에 힘껏 집어던지었다.

그에게는 이게 그저 단순한 하나의 버럭덩이로만 보이질 않았다. 창배의 머리속에 뿌리박혀있는 낡은 사상의 찌꺼기로만 생각되었다.

그는 그 찌꺼기를 하나하나 골라서는 버럭무지속에 힘껏 내동댕이쳤다. 그러느라니 한편 답답하던 가슴 한기가 열리는듯도 하였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나니 허리가 뻐근해나고 얼굴

에서는 땀이 물흐르듯 흘러내리었다. 작업복잔등도 축축히 젖어났다. 손가락끝이 얼얼해나고 석탄가루로 매닥질이 된 손등에선 피가 흘렀다. 예리한 탄모서리에 긁힌 모양이었다. 그래도 그는 힘든줄을 몰랐다. 아픈줄도 몰랐다.

일에만 전념하다보니 그는 누군가 옆으로 다가와련민의 정이 어린 측은한 눈길로 자기 모습을 지켜보고있는것도 알지 못하였다.

《수고하오. 왜 막장동무들은 없소?》

갱장의 절절한 목소리였다.

순간 영실은 어떤 일인지 손맥이 탁 풀어지면서 저도모르게 눈앞이 흐려왔다. 이제껏 참아오던 설음이 한꺼번에 치밀어오른것이다. 그는 가벼이 어깨를 들먹거리었다.

갱장은 그러는 그의 모습을 잠시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무언가 사연이 이해되는듯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니 동무의 안타까와하는 심정을 알아주지 않는단말이지? 음, 이 동무들이 아직 정신이 덜들었군.》

갱장은 채탄장쪽으로 급히 걸어들어갔다…

얼마후였다.

안전등불빛을 번뜩거리며 채탄장쪽에서 누군가 이리로 황황히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불빛은 영실의 옆에까지 와서 똑 멎었다. 창배였다. 그의 얼굴엔 어찌선지 성난 빛이 어리여있었다.

《영실아, 너 어찌자구 그러니? … 갱장한테 무어라구 애길 했게 날더러 화력발전소 견학을 가라는 거야!》

영실은 멍해진 눈으로 창배의 서슬진 얼굴을 쳐다보았다.

《참, 기가 막혀서 아무튼 네 덕에 발전소구경은 잘하게 됐다. 빌어먹을!》

창배는 정말로 기가 막힌 모양인지 김오른 술처럼 푸푸거리었다. 결국 갱장앞에서는 터놓지 못했던 울분을 영실앞에 와서 쏟아놓는셈이었다.

영실은 창배의 이런 말이 노엽다기보다는 가슴아프게 생각되었다.

왜 저렇게밖에 생각못할까? 왜 탄부로서의 자신의 립장에 대해서는 깊이 돌이켜보지 못하는것일까?…

영실은 정녕 발이라도 구르고싶도록 안타까왔다.

《아저씨, 갱장동무의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야 해요.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하겠어요.》

한가지 묻겠어요. 아저씨 진정 화력발전소에 석탄만이 아닌 우리 탄부들의 깨끗한 마음까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있어요? 네?》

영실은 머리를 든채 야무진 목소리로 따지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냐?》

어딘가 당황한 목소리로 창배가 되물었다. 그러는 그의 어조엔 김이 빠져있었다. .

《없지요, 없을거예요. ...전 여직 아저씨를 그 누구보다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아저씨 좀...이상해져요. 제가 바라던 그런 아저씨가 아니예요.》

영실의 목소리는 격하게 울려나왔다. 그는 흥분을 목새기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아저씨 왜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탄부들의 깨끗한 량심과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세요. 아저씨에겐 이게 그저 탄속에 섞인 하나의 버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나요? 네?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티라고 생각하지 못하세요? 전 정말... 안타까워요. 아저씨가-》

영실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몸부림치듯 어깨를 세차게 들먹거리기까지 하였다. 그의 두눈에선 이슬같은 맑은것이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창배의 눈길은 영실의 뒤에 무드기 쌓인 버력에 가 멎었다. 그러던 그 눈길이 영실의 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저도모르게 흠칠 놀랐다.

오동보통한 자그마한 손, 그 손이 몹시 험했다. 언제 굵혔는지 손잔등이 찌지고 그리론 피가 흐르고있지 않는가!

순간 창배는 무엇에 한대 얻어맞기라도 한 사람처럼 눈의 초점을 잃고 어정쩡히 서있었다. 어쩐지가슴이 몽클했다. 영실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심장에 마쳐와 코마루가 매워나고 눈시울이 달아오르는것을 스스로도 어찌할수가 없었다.

한편 그에겐 영실이가 놀라왔다. 꼭 쥐여놓으면 쥐여놓은대로 있을상싶던 이 애리애리하고도 자그마한 처녀의 몸 어디에 이런 도고하면서도 묵묵함은 속대가 박혀있었던지 잘 리해가 되지 않았다.

사실 여직 자기는 영실이를 그저 철이 채 들지않은 어린 처녀로만 치부했었다. 때문에 그가 제기하는 이번 문제 역시 일리는 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처녀의 즉흥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된 어리광으로만 받아들이었던것이고 그러다보니 리유와 구실로써, 때로는 뚱으로써 그의 훌륭한 발기를 짓눌려버렸던것이다. 하나 지금의 그의 말과 태도는 전혀 다르지 않는가!...

이제껏 착잡하게 엉킨 그들의 마음과 시름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기라도 하듯 어디선가 지심을 울리며 발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가슴속에서 세차게 소용돌이치던 격랑을 일단 가라앉힌 영실은 이번엔 어딘가 꺼지는듯한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는것이였다.

《전번 견학때 전 화력발전소에 가서 그 뒤마당에 무지여있는 버럭더미를 보고 정말이지 커다란 량심의 가책을 느끼였어요. 우리 탄부들은 왜 석탄을 캐는데만 신경을 쓰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질 좋은 석탄, 깨끗한 마음을 보낼데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가고... 저는 올 때 그 공장 분쇄기운전 공처녀와 약속했땄어요. 우리 갱, 우리 탄광에서만이라도 버럭없는 깨끗한 석탄을 보내주마고... 그런데...》

영실은 입술을 깨물며 머리를 떨구었다.

일순 창배는 무언가 뜨겁고도 아릿한것이 흥벽을 지지면서 밀물처럼 거슬러오르는것을 느끼였다.

견학갔다가 돌아온후 그토록 웃음 많던 그의 얼굴에 열은 그늘이 저있는걸 보면서도 그리고 그의 심중에서 일어난 그 어떤 변화를 느끼긴 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기였다. 그의 저런 깊은 마음을 리해해주고 받들어주기는 고사하고 건성으로, 나중에는 패심하게까지 생각했던 자기였다. 이런 자기를 영실이 얼마나 원망했으랴. 확실히 자기는 국가적인 립장에서가 아니라 중대의 리익 하나만을 생각한 웅졸한 인간이였다. 계획과 생산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정면에 내걸고 량심없이 망탕 일을 하려는 어지러운 속통을 가진 인간이였다.

량심없이 캐내보낸 석탄, 마음속의 티를 그대로 묻어두고 캐내보낸 석탄을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석탄이라고 말할수가 있겠는가? 석탄을 캐내는 탄부의 마음에 티가 있는데 어떻게 석탄이 깨끗할수가 있겠는가? 이런 탄부는 아무리 석탄을 많이 캔다 해도 결코 어버이수령님께 충실한 우리 시대의 탄부라고 말할수가 없을것이다.

창배는 파고드는 량심의 가책속에 한동안 말뚝처럼 묵묵히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땅속깊이에서 우리나라오는듯한 웅글고도 갈린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네 말을 듣고보니... 생각되는게 많구나. 그런 너의 심정은 모르구... 내 네 속을 너무 태운것 같다. 그러나 인젠 안심해라... 넌 날 믿어도 좋아.》

순간 영실의 이슬고인 복성스런 얼굴엔 밝은 미소가 어리였다. 참말이지 보름달같은 아름다운 미소였다! 창배는 그런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속으로 생각하는것이였다.

한점 티 묻지 않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저런 사람만이 정녕 저토록 밝게, 저토록 아름답게 웃을수 있는것이 아니냐고. 저 웃음을 흐리우지 않기 위해서도 정말이지 량심껏 일을 해야겠다고...

# 전사는 살아있다

김정민

지계문밖 멀리선 간간이 포성이 울려왔다.

흙담벽에 걸어놓은 탄피등잔에서 피어오르는 그  
을음이 방안을 낮추 감돌며 전사들의 코구멍을 거  
떻게 그슬려놓았다. 전사들은 그좁한것은 아랑곳도  
않고 전투이야기들에 정신이 팔려있다.

정지간에서는 할머니의 팔베개를 베고 잠든 영남  
이의 썩근거리는 숨소리가 이야기에 섞갈리며 안온  
한 가정적분위기를 돌구었다.

이 집은 전선으로 오가는 전투원들의 《중간정류  
소》로 되고있었다.

나는 옷목에 앉아 《조선인민군》 신문을 펼쳐보  
았다. 등잔불의 엷은 빛살이 신문 2면 아래단에  
《전사는 살아있다》라는 제목과 삽화를 또렷이 드  
러냈다.

이 글은 내가 야전병원 침대우에서 쓴 실화였다.

포위에 든 우리 습격조를 구원하기 위하여 적을  
이끌고 사라진 김송림부대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송림이가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간  
절한 소망을 담아 글의 제목을 《전사는 살아있  
다》라고 했다.

글 아래에는 한 전사가 불 뿜는 적화점앞에서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일으키며 다른 손에 수류탄  
을 추켜들고있는 삽화가 반쳐있었다. 삽화의 주인  
공은 송림이와는 전혀 비슷한데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송림이런듯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송림은 뭉툭한 주먹코에 큰키로 하여 련대적으로  
도 알려져있었다. 중대대렬에서 그를 보면 인민학  
교학생들과 함께 서있는 교원을 련상시켰다. 룡담  
을 즐기는 전사들은 이런 그를 두고 《피란면적》  
이 커서 화선에선 적임이 아니라거니, 강행도하에  
서는 좋겠으나 천 랑비가 많겠다거니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했다. 그럴 때면 송림은 스스럼없이 받아  
주며 흡족한 빛까지 띠었다. 언젠가 한번은 이런 룡  
담끝에 송림은 하나의 수수께끼를 내었다. 어머니  
가 왜 아이를 업고다니는가 하는것이였다. 대답이  
뻔한것이였으나 그 누구도 신통한 대답을 못했다.  
이에 송림은 매우 만족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도 모르면서 떠들다니... 그건 아이가 어머  
니를 업고다닐수 없기때문이야.》

송림의 말인즉 아무때건 몸집이 큰 자기가 동무  
들중 누구를 업어주게 된다는것이였다.

송림이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그 잊지 못한 습격  
전투때에 사실 나는 그의 등에 업혀 적후를 빠졌다  
...

전사들의 말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영웅이란 어  
떤 사람인가에로 화재가 번져가서 저마끔 열을 내  
며 생각들을 발표하는것이였다.

아까부터 좌중의 인기를 독점하던 군단정찰소대  
장만은 이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  
겨있었다. 그러자 목이 양바툼한 하사가 그에게 말  
을 걸었다.

《소위동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성실한 인  
간들이 영웅이라는 제 생각을말입니다.》

군단정찰소대장은 인차 대답을 떼지 않았다. 모  
든 전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나는 정찰소대장이 하사의 말에 공감하리라고 생  
각했다. 전사에게 있어서 성실성이란 얼마나 아릅  
답고 귀중한 품성인가를 가슴뜨겁게 체험한 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줄곧 침묵만을 지켜오던 정찰소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한 영웅을 보았소. 그러나 그가 평시에 어  
떤 전사였는지는 모르오.

적의 포진지를 정찰할 때 일이요. 우리가 놈들의  
포진지에 거의 접근하여가는데 갑자기 자지러진 총  
성이 일더니 그 총소리를 지우며 《**김일성장군님**  
만세!》의 우렁찬 웨침이 울렸소. 그와 동시에 불  
기둥이 일어났소.

그곳은 삽시에 불바다로 되었소. 기여가던 우리  
는 일떠나 정찰이 아니라 습격으로 넘어갔소.

우리는 거기서 온몸이 불에 그슬린 조선인민군전  
사를 발견하였소. 우리의 품에 안긴 그는 단 한마디  
<장군님!>이라는 목소리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소  
...

그의 이름은 모르오. 증명서는 없었지. 우리는 그  
의 시체결에 총가목이 부러진 그의 자동총을 물어  
주고 떠났소.

이제 승리하는 날 우리는 그곳으로 갈것ियो.》

정찰소대장은 갈린 음성으로 속삭이듯 말하고 입을 다물고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그 영웅의 모습이 거기에 비쳐있는듯이.

누구도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영웅이 마치 송림이거나 한 것처럼 깊은 감명에 잠겨 송림이에 대한 이런저런 사실들을 회고했다.

내가 소대의 습격조편성명단을 가지고 갔을 때 중대장은 김송림이란 이름을 따르지 않은 눈초리로 들여다보며 물었다.

《송림 동무밖에 없소?》

《왜 소대에 그 동무밖에 없겠습니까? 하지만 송림 동무가 팬찰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팬찰을 것 같다?! ...동무도 확신은 못가진 것 같구만.》

《사람이 진국입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적합한 말을 고를 수 없었다. 중대장은 싱긋이 웃더니 생각에 잠겼다. 중대장이 송림을 그리 맘싸하지 않는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군사적 명령이 가지는 의의를 잘 알고 있는 중대장을 명령에 대한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용화가 없었고 명령한계에서 이탈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았다.

한번은 송림이가 앞으로 접어들던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는 자기의 사격좌지를 떠나 소대의 익측으로 달려가 그리로 물려드는 적들을 갈겨댄 일이 있었다.

마침 소대진지에 나와서 전투를 지휘하던 중대장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저 동문 왜 제멋대로 돌아치오?》

중대장은 서슬이 푸르려 야단을 하며 나에게 소리쳤다.

《저건 좋지 않아! 버릇을 똑 떼주오.》

하지만 송림의 그런 버릇은 그뒤에도 자주 나타났던 것이다.

고집이 세기는 하지만 부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줄도 아는 중대장은 오래 망설이지 않고

《중소. 동무의 의견대로 하기로. 적후에 처음 들어가니 잘 돌보아주면서 엄격히 통제를 해야 하겠소.》 하고 송림이를 습격조에 넣는 것을 승낙했다.

적 집결구역에 대한 우리의 습격전투는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우리 습격조원 거의다가 부상을 입었다. 여기서나 도 레외가 될 수 없었다.

적의 흉탄은 내 다리뼈를 분질러 놓았고 옆구리에

맞창을 내어 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우리들은 온 하루동안을 전혀 먹지 못했어이라 싸움이 끝나고 집결구역에 모이자 모두 늘어지고 말았다. 전날밤 적후로 들어오다가 적들한테 발견되어 맞불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망할놈의 적탄이 하루분 식량이 든 배낭을 찢어놓아 식당근무성원들이 밤새 만들어준 강냉이꼬장떡이 한개도 남지 않고 빠져달아났던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종일 물통의 맹물로 배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적의 추격에 빠졌다. 너무도 급작스레 달려드는 적들이어서 피할 길이 없었다. 누군가 황급히 소리쳤다.

《결사전을 합시다. 소대장동지!》

이것은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정황에서 비장하게 최후를 마치자는 호소처럼 울리었다.

가슴아픈 이 소리에 나는 고개를 번쩍 쳐들며 단호히 말했다.

《동무들, 죽기는 아직 이르오! 내가 여기서 적들을 막겠소! 동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져나가야 되오!》

《안됩니다. 우린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묵묵히 나를 부축해오던 송림이가 나를 막아나섰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어서 떠나시오!》

나는 다시 한번 명령조로 요구했으나 나의 말은 날이 서지 않았다. 송림은 내가 미처 어쩔새 없이 나를 들쳐업고 달리기 시작했다.

총알이 귀전을 스치고 놈들의 악착스런 웨침이 뒤따라왔다.

《개새끼들이 다 돼지고픈게군.》 송림은 이따금 돌파서 한손으로 자동총사격을 해대군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내려놓아달라고 했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소대장동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원썬들과 악전고투를 벌리면서 10리가량 빠져나와 들판에 나섰을 때 우리는 앞으로부터 이리때처럼 달려드는 적들과 부딪혔다.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위급한 정황이었다.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원들을 구해야 했다.

《나를 내려놓소.》

나는 권총손잡이로 송림의 어깨를 치며 소리쳤다.

송림은 이번에는 순순히 나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말할 겨를을 주지 않고 곁에

있는 전우들에게 소리쳤다.

《소대장동무를 부탁하오. 저기 개울뚝을 따라 빠져나가오 …-내겐 탄알이 많아… 어서!》

송림은 마치도 자기가 이 습격조의 지휘관이기나 한것처럼 《지시》하고는 바람처럼 적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한다리를 약간씩 절었다. 습격조에서 부상당하지 않은 유일한 전사로 생각한 그도 다리에 상처를 입었던것이다.

그가 사라진쪽으로부터 요란스러운 총소리가 울려왔다.

그런데 좀있어 송림이가 다시 나타났다.

때마침 넓은 공간을 덮고있던 두터운 구름장이 갈라지고 그사이로 눈썹같은 반달이 빠르게 내려다보았다.

원다리 무릅우를 배낭끈으로 질끈 졸라맨 질끈 송림의 모양은 자못 승엄해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는 내 앞으로 오더니 앞춤에서 무엇인가 종이에 쓴것을 꺼내들고 좀 어색해하면서 말했다.

《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곧 뒤따라 갈테이니…》

자지러진 총소리가 송림의 말을 삼켜버렸다.

송림은 나의 손에 종이에 쓴것을 맡기고는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겨우 최종집합구역으로 오라는 말을 하였다. 우리가 최종집합구역에 갔을 때는 새벽이었다.

언제 누가 만든것인지 알수 없는 반나마 무너진 반토굴결에 앉아서 우리는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녘을 바라보며 송림을 기다리고있었다.

날이 밝자 나는 송림이 두고간것을 풀어보았다. 세겹네겹으로 싼 그속에서 나온것은 세개의 꼬장떡이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있던 동무들은 그대로 굳어져버렸다.

꼬장떡짬에서 글썽지가 나왔다.

《중대의 대식이 <주먹코인테리젠차>에게!

덤으로 보내는것이다. 값은 미제침략군 한두름이다. 무사히 돌아오라! 세급배기를 차려놓고 기다리겠다! 통쾌한 소식을 기다린다.》

중대로 돌아갈 때 함께 먹자고 그대로 건사해둔 세개의 꼬장떡… 송림은 대식이였다. 그는 남보다 배는 더 먹군했다.

송림은 독학가였다. 신문이 오면 첫자부터 마지막자까지 빼놓지 않고 다 읽었다. 전선에 나온 출판물가운데서 그가 읽지 못한 책이 없을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손바닥만한 수첩을 꺼내놓고는 콩다리연필로 무언가 열심히 써넣곤하였다. 이럴 때면 누가

옆에서 통담을 걸어도 듣지 못했고 폭탄이 터져도 움쩍하지 않았다. 무르팍우에 올려놓은 수첩에 머리를 박고 글을 쓸 때면 주먹코만이 류달리 눈에 뜨이군했다. 누군가 이 순간을 면바로 포착하고 《주먹코인테리젠차》라고 익살긋은 별명을 붙였다. 송림은 자기에게 붙여준 이 엉뚱한 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20년, 30년후라도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당부하는것이였다.

송림이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적후라는 것도 잊고 한바탕 웃어대면서 모든 아픔과 시름을 가셔버렸겠지만 송림이가 없는 지금은 오히려 비통한 감정을 불러일으킬뿐이였다. 모두 글썽지에서 얼굴을 돌리더니 송림이가 적을 달고간 서남쪽하늘을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우리는 송림이가 남겨놓은 꼬장떡을 도로 뽕뽕 싸서 간수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종일 기다렸다. 그가 돌아오면 함께 먹고 함께 중대로 돌아가자고…

그러나 송림은 돌아오지 않았다.

\*            \*

나는 이튿날 어둑새벽에 영남이네 집을 떠났다.

소대장으로서 담가에 누어 후송되였던 길을 정치부중대장이 되어 돌아가는 나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하여 울렁거리였다.

전투마당에서라면 소대의 앞장에서 남만 못지않게 싸울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투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여 위훈으로 불러일으켜야 할 정치일군의 구실을 제대로 한다는것은 조련찮은 일일것이였다.

내가 중대에 돌아오자 전우들이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었던지 눈물까지 핑그르 피였다.

김룡천은 내 손을 꼭 쥐고는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나는 야전병원에서 중대의 소식을 듣고있어 다 알고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중대전투원들의 머리위로 그 큰 주먹코가 보이지 않는가 해서 눈여겨 찾아보았다.

그러나 송림은 역시 없었다.

중대로 돌아온데서 느끼는 기쁨과 안정은 송림이가 없는것으로 하여 저으기 흐려지고 열정과 투지로 충만된 중대의 생활에서 어딘가 허전한 감을 느꼈다.

나는 곧 사업에 착수했다. 전투의 잠시간에 세포회의록도 보고 당원구성도 료해하고 소대들에서 발간한 전투속보들도 읽어보았다.

당원명단에서는 아직 김송림의 이름이 뚜렷이 자

리잡고있었으나 세포회의록에는 《적후에서 돌아 오지 않음》이라고 써여져있었다. 무기가에도 그의 이름표가 그대로 붙어있었다.

《성명 김송림  
직무 부분대장  
번호 22001호》

송림이가 중대에서 떠난지 석달이 지나고 그가 돌아오리라는 아무런 기약도 없었으나 온 중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는것이였다.

저녁에 세포위원장에게서 이전 정치부중대장이 남기고간 문건들을 넘겨받았는데 송림이가 소중히 여기면서 늘 무엇인가 써넣곤하던 손바닥만한 수첩도 있었다.

적후로 떠나던 그날 송림은 몸에 지니고 다니던 증명서들과 함께 그 수첩도 맡겼던것이다.

나는 동발목에 걸린 석유등잔아래에 탄약상자들을 던놓고 송림의 손때가 묻고 보풀이 인 수첩장을 번지였다.

길쭉길쭉한 송림의 글씨가 그의 절절한 목소리로 되어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어제날 천대받고 악압받던 사람.

그러나 오늘은 가장 행복한 사람.

희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

위대하신 장군님을 높이 모신

이 자랑, 이 기쁨 안고

싸움의 길을 걷고 또 걸으리라

내가 바라는것

장군님의 참된 전사로 싸우는것.

매 순간을 당을 위해 바치는것

장군님의 전사로 산 보람을 느끼는것이다.

.....

나는 민노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은 아름다와지고

인민은 행복을 노래하게 되리

아, 승리의 그날이여!

보고싶은 조국의 래일이여!》

이렇게 송림의 수첩에는 많은 글들이 적혀있었다. 군데군데 쓰이는 그자신의 글과 함께 이 수첩의 기록들은 참답게 살며 싸우려는 그의 지향과 결의를 담은것이 아닐가.

송림의 수첩갈피에서는 미궁지로 정성들여 쓴 사진도 한장 나왔다.

신문에서 오려낸 사진이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연단에 높이 서시여 환호하

는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고계시는 사진이였다.

장군님의 영상아래에는 《조선인민의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 장군님 만세!》 《8시간 로동제를 지지!》 등의 구호를 쓴 프랑카드들이 수풀처럼 솟고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꽃다발을 흔들며 장군님을 우러르고있다.

군중들속을 살펴보면 나는 잠뱅이를 걸치고 서있는 띠꺼머리총각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그는 송림이였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감격의 눈물을 씻을 생각도 못하고 장군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다가 그대로 굳어진듯싶은 송림이!

세차게 흘러드는 감동을 안고 사진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던 나는 끝내 솟구쳐나오는 눈물을 막아내지 못했다. 나의 눈에서 샘솟은 눈물, 이것은 자신 속에 있는 송림이의것이였으리라!...

전쟁은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전후에도 나는 정치일군으로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했고 전사들과 함께 잠복의 밤을 새웠다.

세월은 흘러 전쟁이 끝난지도 어느덧 여섯해가 지났다. 중대원들은 그동안 거의나 바뀌우고 중대장은 군사대학으로 공부하러 갔다. 송림의 이름은 당원명단에서도 점검명부에서도 무기가에서도 지워졌다.

언젠가 나와 함께 무기가를 돌아보던 중대장은 송림이가 총을 매우 잘 쏘았는데 그가 가지고있던 총이 자기의것이였다고 한적이 있었다. 나는 그가 자기의 총에 대하여 생각한것이 아니라 송림을 못잊어 한 말이라고 믿었다.

송림을 끔찍이도 사랑한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하였으리라.

.....

그해 가을, 나는 평양에 출장을 갔다오게 되었다. 10년만에 기차를 타보는 나의 가슴은 몹시 설레었다.

풍요한 가을의 벌판과 수려한 산밭, 새롭게 일떠서는 도시들을 보느라니 전쟁의 불바다속을 헤쳐온 나날이 궁지높이 돌이켜지며 가슴뿌듯한 감명속에 잠기게 했다.

어느 한 역에서 등산모를 쓴 소년단원들이 차간이 비좁게 올라탔다. 야영소로 간다는 그들은 열차에 오르기 바쁘게 차간이 들썩하도록 노래를 불렀다.

노래의 구절구절은 그윽한 감회로 가슴속 갈피갈피에 젖어든다.

나는 서쪽하늘가에 곱게 핀 불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눈앞으로는 전투의 불길속에서 만났다 헤어진 전우들의 모습이 희희 스쳐갔다.

그들은 바로 지금 저 소년들이 부르는 명랑한 노래를 위해, 저 행복스러운 노래를 지켜 피흘려싸웠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를 틀어잡았다.

차가 정거장에 잠시 멈춰섰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잠시 밖에 나가 거닐었다.

열차가 다시 떠나 차에 오르자 방금까지 노래로 떠들썩하던 소년단원들은 누군가를 둘러싸고 무슨 이야기에 열심히 귀기울이고있었다.

나는 무심히 그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어딘가 귀익은 목소리였으나 소년단원들의 장벽에 가린 이야기군을 볼수 없었다.

《...전사에게 있어 또 하나 중요한 품성은 솔직한 것이며 말하자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거지.

우리 중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담배를 붙여무는지 잠시 말이 끊어졌다.

중마루에 오른 이야기 같았으나 나는 호기심이 동해서 다음말을 기다렸다.

귀익은 목소리는 다시 울렸다.

《한번은 우리 전호에 놈들의 155밀리 불발포탄 두발이 떨어졌어. 그건 잘못 다치기만하면 썩! 하고 될수 있는것이였지.

어두워진 때라 나는 누구도 이 주변에 접근할수 없다고 명령했어. 날이 밝은 다음 해제하려고말이야.

그런데 밤에 자고나니 그것이 없어졌거던.

누가 그랬을가. 문제였어.》

말은 또 끊어졌다. 이야기군이 소년단원들의 흥미를 바싹 그러쥐느라고 휴식을 하는지... 하지만 나는 이젠 그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들지 않았다.

나는 송림이를 생각하였다. 송림이에게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던것이다.

그때 중대장은 포탄이 없어진 원인을 해명하려 전투원들을 모였시켰다.

처음에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누가 그랬는가고 물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사들은 저마끔 결사장의 얼굴만 흘끔흘끔 살피었을뿐이다.

웃음어린 눈길로 전사들을 더듬어보면 중대장이 이마살을 찌프렸다.

《동무들은 이걸 좋은 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소리요. 이건 아주 엄중하단말이요.》

중대장의 목소리는 엄해지였다.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한 그런 어리석은 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오. 적후에서 돌아오는 련대정찰병들을 다칠뻔했소. 굴러가던 포탄이 바로 그들의 코앞에서 폭발했단말이요.》

(나는 중대장의 이 말이 사실인지 지어낸 말인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득 송림이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좀전까지 불긋하게 혈색이 좋던 그의 얼굴에 피기가 가셔졌다. 그의 두터운 입술은 가늘게 떨렸다.

《언제부터 우리 중대에 이런 자유주의가 생겼소.》

중대장은 일어선 송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치 우박지르듯 말했다.

《우리 중대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전투원만이 있을 자리가 있소. 남을 속이구 제멋대로 노는 전투원은 필요없소.

...가만 동무는 왜 일어섰소?》

그제야 중대장은 송림이를 알아본듯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송림은 중대장의 추궁을 마지막까지 듣기 위해서 그랬던지 아무말없이 서있다가 이때에야 입을 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송림은 정찰병들이 적후에서 돌아오는줄은 전혀 몰랐다가나 좋은 일을 하자고 한 일이 이렇게 되었다거나 변명은 할수 있었겠지만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중대장은 것처럼 쏟아져나오던 말이 다 어디로 날아났는지 입을 꾹 벌리고 송림의 아래 우를 훑어보기만 하는것이였다.

《동문 왜,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땐 먼산만 쳐다보고있었소?》하고 한참뒤에야 맥빠진 소리로 물었다.

《전 처음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고...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송림의 얼굴에는 심중한 빛이 어려있었다.

《그건 그리 훌륭한것이 못돼. 그렇다면 지금은 어째서 말하는거요?》

《제 잘못을 감추는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림은 가느다란 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때의 일을 더듬던 나는 뒤자리에서 울려오는 목소리의 입자가 김룡천중대장임을 알아맞혔다.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러나 소년단원들에게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를 동강내고싶지 않아 아쉬운대로 도로 주저앉고말았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배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소!》

옛중대장은 내가 지휘한 습격조의 전투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보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습격조가 적의 포위에 든데로 이야기가 뻗어가자 모두 숨소리를 죽였다.

《아까 내가 말한 그 동무가말이요. 송림이라고 하오. 바로 그 동무가 적을 유인하겠다고 나섰소. 가장 어려운 때에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냈소. 전우들을 위해 적을 끌고간다는 말은 쉽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지.

바로 송림동무는 이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나섰소...》

송림을 옛중대장의 추억속에 용감한 전사의 뚜렷한 형상으로 남아있는것이였다.

우리들의 상봉은 참으로 감격적이였다. 것처럼 엄격하고 굳센 룡천의 눈굽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분다는것은 놀라운 일이였다.

우리는 많은것을 회고했다. 간고했던 전선생활은 즐거운 회상으로 되었으나 희생된 전우들에 대한 추억은 아픔을 자아내는것이였다. 김룡천은 지난해 조국 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면서 송림에 대하여 내가 쓴 실화가 전시되어있는것을 보았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참가한 몇몇 전투에 대한 소개관도 있더라고 그는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간 일들에 대한 회고담을 나눈 끝에 전승기념관에 가보기로 하였다. 나는 그가 어찌다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가는길임을 알고 꼭 두세번봐야 하겠는가고 넌지시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자주 보고싶소. 열번 스무번 말이요.》 라고는 웃었다.

신문들을 사진으로 확대하여 찍은 전시물들중에는 내가 쓴 글이 너무도 잘 보이는 자리에 있었다.

《전사는 살아있다.》

글 아래에 실린 삽화에서는 수류탄을 한손에 추켜든 전사가 불뿜는 적화구를 노려보며 일떠서고있다.

나는 언젠가처럼 그가 송림이런듯 오래도록 보았다.

처녀해설원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 자동총은 습격전투를 널리 벌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1951년 9월, 한 이름없는 전투원이 홀로 적의 포진지를 습격소탕하고 달려드는 적들을 마흔놈이나 쓸어넣힌 총입니다.

이 전투원은 추격하는 적들을 뒤에 달고 적의 포진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포탄상자무지 가까이에 서있던 포탄수송차의 휘발유통을 수류탄으로 깨고 불붙는 휘발유가 포탄상자무지로 흘러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손으로는 자동총을 틀어쥐고 달려드는 적들을 쓸어놓았습니다. 탐조등불빛과 타오르는 불길에 그는 무대우의 배우처럼 부각되어있었습니다.

포탄들이 폭발하기 시작하자 달려들던 적들이 무리로 쓰러지고 살아남은놈들은 할바를 모르고 덤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그 전사는 불붙는 포탄상자를 안고 적의 203밀리포의 방순결에 갖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안고가는 포탄상자에서는 불길이 너울거리고있었습니다. 무수한 파편이 공간을 채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적들이 악착스럽게 밀려왔습니다. 전사는 이 자동총의 마지막탄알까지 원쑤에게 안겨줬습니다.

적포진지를 정찰하기 위해 이리로 접근하던 군단정찰병들이 전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적들의 포위속에 든 전사의 한손에는 이 마사진 총이 들려있었고 다른 손에는 수류탄이 쥐여져있었습니다. 우뚝 서서 원쑤들을 노려보는 전사의 불굴의 자세는 놈들을 전율케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김일성장군님 만세!》의 웨침소리가 온갖 소음을 누르며 울려퍼지고 야무진 수류탄 폭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가? 분명 이야기는 처음 듣는것이 아니였다. 나의 눈앞에는 전선의 낯은 영남이 할머니네 초가집과 아늑한 방안에서 가까스로 말을 이어가듯 뜨직뜨직 이야기하던 군단정찰소대장의 모습이 차츰 우뚝이 떠올랐다. 고마운 정찰소대장! 동무는 혁명전우의 고결한 위훈을 묻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까지 전하였구나.

나의 회상을 확인해주려는듯 해설원처녀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갔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군단정찰소대장과



한 경찰병은 그를 업어내왔습니다. 전사는 림종의 시각에 자신의 의무를 다한데 대하여 보고를 하는 듯 <장군님!> 하고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해설원처녀의 목소리가 떨리는듯하다가 푹 끊어졌다. 처녀를 바라보니 그는 고개를 수그리고 발끝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잠시뒤에 처녀의 깔리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다.

《경찰병들은 그 전사를 735고지의 어느 한 소나무아래에 안장했습니다. 여기 이 총도 그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735고지는 정전직전에 아군의 손에 들어왔기때문에 경찰소대장동무는 지난해 가을 그곳에 불멸의 위훈이 깃들어있는 이 총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름없는 영웅의 뜨거움 숨결이 깃들어있는 진렬대앞으로 다가갔다.

진렬대안의 험상한 총을 들여다보는 나의 가슴은 끝없는 감동을 안고 설레이었다. 얼마나 훌륭하고 참된 전사인가! 동무는 이름 석자도 알리지 않고 가버렸으나 것처럼 빛나는 위훈으로 천만사람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된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만 소스라치듯 놀랐다.

설사 이 자리에 송림이가 살아서 나타났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것이다.

《총번호 22001호》

무기가 돌아볼 때마다 가슴을 허비군하던 총빈호를 어떻게 잊을수 있겠는가! 반토굴로 된 우리 소대 병실의 무기가 세워져있군하던 이 자동총이 여기 전승기념관의 진렬대안에 전시되어있을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이전 내가 가지고있다가 송림동무에게 넘겨준 총이요!》

옛중대장 룡천이가 소리질렀다.

《그렇습니다. 나도 이 총을 잘 압니다.》

나는 침착하려 했으니 도무지 흥분을 누를수 없었다. 그와 헤어져 소식을 모르며 지낸 10년가까운 세월,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눈앞에 다가서군하던 송림이, 우리 습격조원들을 구원하기 위해 강냉이꼬장떡 3개를 남기고 엷은 달빛이 드리운 어둠속으로 사라진 송림이를 오늘 이 전승기념관에서 만난것이다.

모든것이 명백했다. 그때 우리와 헤어진 송림은 적을 달고 달리다가 더는 어쩔수 없게 되자 적의

포진지로 뛰어들어 길지 않은 생애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하고 영웅적인 최후를 마쳤던것이다.

《해설원동무, 이게 어찌된 일이요?》

성미가 급한 룡천은 벌써 저만큼 앞으로 나가서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하고있는 처녀에게 아무런 조심성도 없이 소리쳤다.

아마 이런 일은 전승기념관이 생겨난 이래 처음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참관자들은 무례하게 소리를 질러 분위기를 잡쳐놓은 우리들에게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며 돌아섰다.

어색해진 나는 우리에게로 돌아온 해설원처녀에게 머뭇거리며 사과했다.

《허, 이거 안됐소만 이 총은 내가 데리고있던 김송림이란 부분대장의 총입니다. 그래서… 이 소좌동무는 전쟁시기 우리 중대장이고…»

처녀는 우리보다도 더 놀라와하는듯 동그래졌던 눈에 반가운 빛을 담았다.

《그런걸… 우린 군관동무들이 언제든지 나타나라고 믿고있어요.》

말끝을 흐리며 처녀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제가, 괜히… 미안해요. 판장실로 가보세요. 거기서 모든걸 말씀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와 함께 가지자요.》

《송림동문 정말 충실한 동무였소.》 룡천이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었다.

\* \* \*

송림은 죽지 않았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싸워온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전승기념관에, 보존된 한자루의 무기에, 새롭게 일떠서는 조국의 모든것과 더불어 살아있을것이다.

나는 송림에 대한 또 하나의 글을 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고 그리고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참된 영웅주의를 발휘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글을…

우리는 뿌듯해진 가슴을 안고 전승기념관을 나섰다.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고층건물이며, 거리를 메우며 흐르는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웃음이며 파란 하늘을 담은 창문안에 넘쳐나는 행복이며를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걷고 또 걷는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었다. 옛중대장과 나 그리고 《주먹코인테리겐차》 송림이, 그는 우리와 함께 거닐며 무엇인가 끝없이 속삭이였다.

## 철의 도시 새벽길을 걸으며

-김책제철소를 찾아서-

장동일

《…전체 종업원들이 집단출근을 한단말입니까?》

《네.》

《그건 어째서요?…》

《호… 어버이수령님의 새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우리 노동자들의 충천한 기세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이리하여 어제밤 제철소에 취재차로 도착한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으며 지금 김책제철소의 종업원들과 함께 집단출근의 새벽길에 나서게된것이다.

구리빛 나팔은 새벽빛에 번들거리고 북장단과 취주악에 맞추어 3대혁명의 노래가 새벽하늘에 메아리쳐 울리고있었다.

휴대용 확성기들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구호의 웨침소리, 소년단원들의 소고소리에 어울리어 뺑뺑히 울리는 유치원 꼬마들의 환호성소리, 함박눈송이들처럼 머리며 어깨우에 내려앉은 꽃보라, 꽃보라…

바로 그 북판을 제철소의 종업원들이 물결처럼 흘러가고있었다.

용광로직장, 해탄로직장, 소결직장, 강철직장, 열간압연직장, 자동화직장, 공무직장, 제관직장… 그리고 탁아소의 보육원들과 후방부의 탄산수공급원 아주머니들도 따라섰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 관철에로!》

《모든 힘을 1979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당의 새 공격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자!》

이렇게 쓴 구호들과 프랑카드들이 바다바람에 펄럭이며 사람들의 머리와 어깨우에 떠받들리어 전진하고있었다.

쇠물의 흐름과도 같이 들끓으며 솟구치며 설레이는 강철로동계급들의 대오는 일터를 향해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강종을 높이고 강질을 높이며 압연강재의 품질과 규격을 훨씬 높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발전과 기술혁명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흑색금속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로동계급,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나는 용광로들에 원료를 대주는 정광수송직장부터 먼저 찾았다.

무산광산에 뿌리를 박고 수백리 험산준령을 넘고 넘어 깊은 땅속과 계곡을 지나 정광수송관은 여기 강덕땅에 와닿았다.

4년전까지만 해도 여기 강덕땅이란곳은 발목까지 빠지는 시궁창이 많기로 소문난 버림받던 땅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야금공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웅대한 구상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시려고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실 그 때에 벌써 버림받던 이 강덕벌판은 장거리 무산정광수송관이 와닿을 력사의 땅으로 되였다.

나는 첫걸음부터 우연하게도 나와 함께 병사배낭을 벗어놓고 제철소에서 일을 시작하던 흥동무를 만났다. 그는 지금 정광수송2직장 부직장장이다. 그는 나에게 감회깊은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여기에 정광수송관이 와닿지 못한 4년전까지만 해도 동결된 정광은 무산에서부터 제철소까지 순전히 화차로 실어날랐지… 우리가 그때 무산추위에 돌덩이처럼 언 정광을 까내느라구 정을 대고 메질을 하던 생각이 나나?... 저것 좀 보게. 지금은 매일 저렇게 수천톤의 정광이 물과 함께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고있네! 대형정광탱크에서 침전된 정광은 정광저장장으로 집결되고 연속굴착기에 의해 콘베아에 실려지면서 그길로 연속소결직장으로 흘러간다네!...》

나는 정광침전장을 나섰지만 선뜻 발길이 떨어지

지 않았다. 고층주택인듯 거창한 침전장건물, 드넓은 야외침전장, 조차장의 수십갈래의 철길들과 우뚝 솟은 이적기, 건조로의 굴뚝들...

우유빛 새벽안개속에 잠겨있는 이 역사적창조물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6년 3월 이른 새벽에 찾아오시여 쏟아져내리는 정광폭포를 지켜보시던 정광수송관의 발브가 있다고 생각할 때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정광저장장으로부터 콘베아의 흐름을 따라 10리, 고르로운 로라의 굴림소리를 머리에 이고 나는 걸 어갔다.

여느때같았으면 출근시간이 아직도 멀었겠는데 구내길로는 사람들이 짝 메어 흘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과 새해 신년사를 접한 흥분된 마음이 그대로 그들의 힘찬 걸음걸이에 어려 있었다.

제철소는 달라졌다. 내가 일했고 또 알고있던 4년전의 제철소사람들이 아니었다.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뛰어넘어 또다시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명마루우로 나라의 생명선을 이끌고 치달아오르고있는 김책제철소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고 있다. 직장도, 작업반도, 기술공정도, 작업방법도...

벌써 련속소결직장의 웅장한 건물이 한눈에 안겨온다.

정광직장으로부터 콘베아를 타고 흘러온 정광을 소결하여 대형용광로에 보내주는 련속소결직장역시 우리의 설계,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건설된 주체적인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다. 정광을 로우에 올리는 복선경사콘베아는 하늘로 치달아오르듯 뻗어있고 그것을 삼켜버린듯싶은 련속소결로의 은회색건물은 가까이 보이는 대형용광로의 호위를 받듯이 근엄해보인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1970년 7월에 제철소를 찾아주시고 몸소 여기 련속소결직장의 경사콘베아에 오르시여 련속소결로를 더 현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불멸의 창조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가르치심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현대적인 련속소결직장이 탄생될수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이께서 친히 서계시였던 련속소결직장의 경사콘베아를 선뜻 떠날수 없는 마음이였다.

여기에 서서 바다쪽을 바라보면 마치 대형전투함

편대가 불구름을 날리며 달리고있는듯한 건물들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동해바다기슭에 자리잡은 해탄로들이다.

어마어마한 철골물의 아빠트를 련상시키는 검은레한 해탄로들이 똑똑히 바라보일수록 나는 거기에서 땀흘리던 로동의 나날들이 그리워지면서 벌써 그곳으로 달리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내가 다섯군데의 철교교차점을 단숨에 뛰어넘어 해탄로들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때마침 이글거리는 불담벽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이글거리는 폭스사태는 소화차에 실려 어느사이에 소화탑으로 미끄러져들어가고 소화탑꼭대기로는 뜨거운 증기가 흰 구름뭉치로 되어 푸른 하늘 높이 곧추 치솟아오른다. 벌써 강도시험이 끝난 질 좋은 폭스는 콘베아에 실리는 즉시로 용광로를 향해 흘러가고있었다.

오늘까지 바로 이 해탄로앞에는 수많은 견학단들이 멈춰서서 쏟아져내리는 불사태를 가슴후련히 바라보았으며 묵직하고 단단한 폭스덩어리를 받쳐들고 신기하게 들여다보며 머리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하나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책제철소를 찾아주시 때마다 꼭꼭 해탄로를 찾아주신 그 높이신 뜻을 다 알수 있겠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직 새 조국 건설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제놈들이 파괴해버리고 달아난 해탄로를 복구할 대신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데려다가 공장의 주인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일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참하게 파괴된 해탄로를 무엇부터 어떻게 복구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해 안타까와 할때에도 손수 내화벽돌의 무게까지 가늠해보시며 복구건설의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던것이다.

해탄로가 잘해야 야금공업에서 주체를 세울수 있고 폭스의 질이 높아야 쇠물의 질도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친히 원료의 배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해탄공들의 심장마다에 자력갱생의 불씨를 심어주신 크나큰 믿음은 실로 저 넓고 푸른 동해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것이다.

《좀 보라구, 기세들이 어떤가? ... 용광로가 1211고지라면 이 해탄로가 거기에 탄약을 섬겨주는 그 옆의 봉우리인것처럼 폭스가 없이는 쇠물이 있을수 없어! ... 그런데 왜 자넨 여기 사정을 잘 알면서두 해탄로에 대한 글은 안쓰나? ... 쓰라구, 써 그제 저 해탄공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텐가...》

이것은 4년전에 우리의 작업반장이었으며 지금은 공훈해탄로공인 박창도아바이의 공지에 넘친 말이었다.

벌써 동녘이 붉어지며 아침노을이 비껴오기 시작한다. 노을빛은 해탄로옆에 우뚝 솟은 웅장한 가스탱크며 화학직장의 높고낮은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있다.

가스탱크의 바로 옆에는 해탄로의 가스를 원료로 여러가지의 의약품들과 비료제품, 그밖에 수십가지 부산물들을 생산하는 화학직장이 자리잡고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서 용광로직장으로 향했다.

용광로! 출장지에서 돌아올 때에는 멀리서부터 차창밖에 마중오고 원앙의 어로선단과 함께 바다멀리 떠날 때에도 높이 솟아 바래주는 용광로다. 사람들은 제철소하면 제일 먼저 용광로를 생각하는것이며 조국의 위용을 말할 때에도 용광로의 쇠물을 생각한다. 바로 그 용광로들이 지척에 바라보인다.

로상태가 좋다는것을 말해주며 흰 연기를 가늘게 피어올리는 대형용광로의 쌍굴뚝들, 마치 철갑모를 쓴 무쇠장수들이 어깨걸고 서있는듯싶은 웅장한 열풍로들, 전투함의 마스트와도 같은 상승관들...

1호용광로와 2호용광로 그리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속도전의 불바람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대형용광로가 마치 형제처럼 나란히 하늘을 떠받들고 서있었다.

우리는 로장동무를 따라 사령실에 들어섰다.

종합사령실의 길고 넓은 앞벽에는 각종 유리관의 류량계들, 원료장입계통의 천연색불빛들, 수십개의 압력기록계기들이 눈이 모자라게 짝 차있었다.

마침 출선시간이 다 되였는지 로장동무는 여러대의 자동전화기들과 무선확대기가 놓여있고 량쪽에는 텔레비존화면이 번들거리는 사령대앞으로 가있었다.

그리고 출선준비를 지시했다. 잠시후 출선을 알리는 종소리가 사령실까지 들려오고 텔레비존의 화면에는 육중한 출선구착공기가 출선구를 향해 육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안겨왔다.

《출선장에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시다.》

우리는 용해장으로 나갔다.

때마침 출선구에서는 쇠물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센 송풍압력과 함께 주먹만큼씩 한 불덩어리들이 튕겨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팔팔소리를 내며 황금빛 쇠물이 출선구가 메게 쏟아져

나온다. 벌써 여러갈래의 쇠물도랑에 들어찬 적황색 쇠물은 이제는 마치 계곡의 하류처럼 주름살하나 잡히지 않고 조용히 흐르고있다. 이때금 쇠물도랑의 여기저기에서 불꽃이 튕겨져오르곤 했는데 그 불꽃들은 다시 공중에서 축포처럼 터져 산지사방으로 반짝거리며 퍼져올랐다. 새벽하늘의 검푸른 어둠을 부채살처럼 헤쳐버리며 붉게 타는 쇠물빛 노을에 쇠물을 다루고있는 용해공들의 모습이 마치 군무에 출연한 무용수들의 툄동처럼 아름답게 안겨온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려는 티없이 맑은 충성심이 어린 쇠물을 뽑아내고있는 용해공들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우리는 방금 쏟아낸 쇠물이 출렁이는 용선남비를 뒤꽂무니에 주련이 달고 떠나는 기관차에 올라탔다. 쇠물은 새로 건설된 2강철직장으로 실려가고있는 것이다. 기관차는 내가 4년전에 기억하고있는 철길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바다기슭의 새 철길우로 기세 좋게 달리고있었다.

《또 새 철길이 늘어났지요.》

동그란 얼굴에 약간 주근깨가 있는 청년기관사는 희열에 넘쳐 기적을 울리였다. 새 철길은 이전에 슬라크처리장으로 쓰이던 백사장우를 지나 바다기슭을 활등처럼 휘우듬하니 돌아갔다. 그리고 네쌍의 복선철길이 짝 들어찬 직두천을 건너갔다.

직두천을 건느자 벌써 눈앞에는 하늘높이 솟아오른 백톤전로 회색건물의 우뚝부분이 보인다. 그와 함께 《총돌격》이라는 세 글자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속도전의 세찬 바람 몰아치던 사회주의대건설의 불멸의 업적을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듯이 《총돌격》이라는 이 세 글자는 마치 군모우의 붉은별처럼 많은것을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4월 해방된 이듬해 봄, 조국에서 맞으시는 첫 탄생일을 바로 여기 바람세찬 사봉벌에서 맞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여기에다 오늘의 현대적인 대야금기지를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생각하며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안고 백톤전로의 거창한 건물과 열간압연분공장의 은빛 굴뚝들 그리고 랑간압연분공장의 건설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발자취를 따라 백톤전로의 용해장에 이르렀다.

전로장의 출강은 용광로의 출선과는 또 다르게

장패했다.

방금 대형용광로에서 달고 온 육중한 용선남비를 기중기가 통채로 들어올려 마치 향아리처럼 생겨먹은 전로에 쏟아붓는다. 그러자 아찔한 강철지붕의 산형강들속에서 한쌍의 탄소봉이 내려와 전로속에 박힌다. 순간 귀청을 켜는 듯한 회파람소리가 들려온다. 취련이 시작된 것이다. 은백색의 눈부신 화광이 사방에 빛을 뿌린다. 취련은 30분간-잠간사이의 시간이다. 벌써 전로가 축을 중심으로 천천히 기울어지고 황백색쇠물이 수천개의 불꽃을 튀기며 밑에서 대기하고있던 용강남비에 폭포처럼 쏟아져내린다.

이 모든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복잡한 운전변들을 담당하는 조종공청년과 계기들을 지켜보며 수자들을 기록하는 나 어린 처녀이다. 용해공들이 하는 일이란 쇠물의 온도를 열전대로 측정하며 장입의 순간마다 부원료를 투입해주는 일뿐이다.

우리는 용강남비가 실린 대차를 따라 조피장으로 걸어갔다. 여기는 쇠물이 강편으로 되는 연속조피장이다. 비유해 말하면 쇠물이 마치도 넘적한 얼음파자처럼 강편으로 되어 연속 철단되어나오는 공정이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계시였던 강철구름다리위에 승엄한 마음을 안고 서있었다.

그때의 그 감격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있는듯 룰운전공 리영숙동무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 구름다리위에 멈춰서시여 강피에서 뿜어져나오는 고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편의 흐름을 오래도록 지켜보시였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쇠물빛에 어렸던 어버이수령님의 만족하신 얼굴을 영원히 잊을수 없어요!...》

리영숙동무의 흥분에 찬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강편의 흐름을 쫓아갔다.

벌써 먼저 흘러온 강편이 가열로를 거쳐 다시 룰우에 올라앉는다. 그러자 완성압연기의 수백개의 룰이 일제히 돌기 시작하고 강편은 제1완성압연기 밑으로 짓눌리우며 끌려들어간다.

무거운 강편을 떠받들고 룰들이 맹렬히 굴으는 소리, 강편의 쇠딱지들을 붙어대는 랭각수와 바람

의 울부짖음, 전 동기기소리, 호각소리, 웨침소리...

강편은 완성압연기들을 빠져나올 때마다 더 길어지고 더 얇아진다. 나오다가는 다시 뒤로 끌려들어가고 또다시 짓눌리워나오며 마지막 제6완성압연기 밑을 빠져나올 때에는 벌써 3미리로 얇아진다. 수십미터로 늘어난 압연강편은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린다. 누군가 그 속도를 어뢰정의 속도에 비기던 말이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종이장처럼 얇아진 압연강재는 벌써 마직 룰우에서 미끄러져내리는 순간 룰과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있는 강철도람통에 감겨지기 시작한다. 마치 종이나 비단필을 감듯이 눈 깜짝할사이에 감아치운다.

이 모든 복잡하고 놀라운 변화는 강편이 가열로를 떠나서 3분동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압연강재통구리는 또다시 밑에서 돌기 시작하는 사슬콘베아에 뜨거운 몸을 실는다. 아직 이글거리는 열기가 확확 풍기는 강재통구리에 다가간 완성공이 백목을 천 손을 휘갈긴다.

《락원》, 《기양》, 《6월 4일》...

또 다른 통구리가 흘러나온다. 그는 또 쓴다.

열간압연직장을 떠난 우리는 바로 그열에 잇닿아있는 랭간압연직장전설장으로 향했다.

지난해 4월 15일까지 랭간압연분공장을 기어코 끝내려는 충성심이 그대로 강철기둥이 되어 땅속깊이 뿌리내린 넓어진 철의 도시 한복판에 우리는 서있다.

벌써 수평선우에는 쇠물처럼 이글거리는 아침해가 온 바다를 콕 채우며 머리를 내밀고있다. 새벽안개는 높은 굴뚝들과 건물들의 허리를 안고 돌다가 이제는 해빛아래 무색해지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아침해발은 더욱 파사롭게 온 공장구내를 비쳐주고 출근길에 오른 나라의 만아들- 김철의 로동계급들이 넓은 구내길을 콕 메우며 대하처럼 흘러들어온다.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할 굳은 신념과 의지가 넘쳐흐르는 구리빛 얼굴들을 바라볼수록 나도 그들처럼 살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며 걸음을 다그쳤다.

# 막장의 첫날

김우협

탄부의 첫 하루를 보낸 깊은 밤  
창문을 열어젖히니  
부는 바람 옷은 벌들  
나에겐 생각도 깊어라

나의 삶, 나의 투쟁의 로정을 멀리도 이어온 하루  
때로는 별로 한일없이 보낸 하루  
오늘은 탄광마을에 집을 쫓 나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것을 안겨주었던가

인정깊은 초소장 석수에 젖은 손 털며  
꺼어신은 내 장화목을 퍼줄 때  
처음으로 마주선 혈암층 갈피새에  
긴 정대가 끼우면  
내 등을 가볍게 밀며  
공훈탄부아바이 다시 시동을 걸어줄 때-

아, 눈시울 뜨거이 나는 생각했노라  
병사시절이 시작되던 그 첫날 하루를,  
목달개를 달아주던 특무장의 다정한 손길  
야영훈련의 첫 우등불가에서  
격발기를 채워주던 로병들의 뜨거운 마음

어제날의 그 초소와 다름없이  
어제날의 그 전우들 다름없이

막장의 하루는 레사로이 흘러갔어도  
탄부들의 한없는 사랑과 우정은  
내 병사시절 지켜낸 이 땅에  
한껏 안아올린 석탄으로 하여 이리도 뜨거운것이구나

불같은 시대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처럼  
가장 살뜰하고 다감한 사람은 없어라  
수령님 믿음의 첫 자리에 선 사람들처럼  
통성도 미처 다하기전에  
마음도 생각도 하나로 합쳐지는 사람은 없어라

아, 한목숨 조국의 초소를 지켜온  
병사시절의 빛나는 로정도  
전우애로 뜨겁던 첫 하루에서 시작되었듯이  
천길 땅속을 헤쳐갈 투쟁의 먼 길도  
사랑과 우정으로 가슴 설레는 이 첫하루에서 시작  
되었거니

탄부, 나의 전우들이여  
내 끝없이 마주서는 탄벽을 넘어  
들끓는 조국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겠기에  
불같은 병사시절을 되불러 잠 못드는줄 알라  
한생을 바쳐 탄을 캐며 변함없을  
충성의 나날이 시작되여 잠 못드는줄 알라

# 여기는 최전선-지하막장

리광제

여기는 최전선-

지하막장,

피끓는 열정과 드높은 혁명의 자각이

불바람을 일으키는 밤없는 전투장

오, 여기에 우리의 영웅탄부들이 산다

크나큰 위훈 지심깊이 새기며

가장 값높게

가장 떳떳하게...

아슬히 높이 솟은 첩탈우에서

동트는 새벽을 맞는것이 아니다

가로수 설레는 공장구내길에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는것이 아니다

전진하는 공업의 생명선을 지켜

탄벽을 내밀며

오직 앞으로-

여기에 보람찬 삶이 있고

여기에 영예가 빛나는 탄부!

생각하노라,

막장을 떠날줄 모르는 아버지들에게

귀여운 어린것들의 축하편지가 날아들던 밤

틀어진 착암기에선

어찌하여 그처럼 세찬 불꽃 날렸던가

승리의 축포인양

《100일전투》의 마지막 발파를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께 영광의 보고 올리던

노을비긴 그 아침

어찌하여 가슴을 눈물에 젖었던가...

잊을수 없으랴

기적과 혁신으로 지새운 밤들이여

로동계급의 억세인 주먹들이

이름없는 한 굴진공의 화선입당을 보증하던

감격의 나날들이여

멀리도 달려왔구나

얼마나 많은 그 위훈의 밤들을 거쳐

얼마나 많은 그 혁신의 나날들을 이어

탄부-그 이름

시대의 영광을 첫자리에서 맞이했던가

오, 쿵, 쿵 지심을 울리며

폭포처럼 쏟아지라 《검은금》이여

달리라, 탄차여 번개를 일구며

더 높이 솟으라 석탄산, 석탄산이여

수령님은 지금 이 시각에도

막장의 소식을

승리의 보고를 기다리시거니

끓어라, 끓어번지라

지하막장, 탄부의 심장

살아도 쓰러져도

오직 충성의 이 한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크나큰 기쁨드릴

가장 빛나는 영광의 보고올릴

오, 여기는 최전선!

-룡등탄광에서-

# 탄부, 나의 교대동무들

한원희

수채를 타고 물결쳐내린다

큰배아는 돌고 마음은 즐겁다

채탄막장 가득히 쌓인 석탄을 실어내며

우리는 천길 땅밑에서 웃는다

하나같이 솟아오르는 기쁨에

하나같이 웃는 동무들

이들은 나의 교대

하나의 막장에 함께 사는 채탄공들

석탄이 폭포치는 이런 때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안다

가슴과 가슴은 왜 그리 높뛰는지

마주보는 눈빛은 왜 그리 빛나는지

위훈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슴 두드리는 론쟁도 많았건만  
우리는 탄부답게 말한다  
탄을 내놓고 무엇을 말하겠는가고-

그래서 탄을 사랑한다  
그래서 막장을 사랑한다  
이는 우리모두의  
하나같은 심정

채탄장을 떠나서는  
한시도 못사는 탄부들이건만  
온 나라에 탄을 실어보내며  
수령님 이끄시는 현지지도의 길을 따라  
언제나 우리 마음은 간다

쇠물이 폭포치는 용해장에 서시여

우리 수령님 기쁘게 웃으시면  
용해공에 앞서 우리 마음 목메인다  
멀고 먼 발전소를 찾으시여  
더 많은 전기를 두고 말씀하시면  
거기보다 먼저 우리 막장은 들끓는다

이는 탄부만이 가지는  
우리모두의 량심  
우리는 탄으로 우정을 맺었고  
탄으로 조국과 인연을 맺었다.

아, 탄부 나의 교대동무들  
나란히 지층을 떠넌 동발처럼  
하나의 마음 하나의 어깨로  
우리는 조국을 떠넌 나라의 기둥들  
부러워하라, 부러워하라  
성스러운 일터는  
성스러운 인간을 낳는다!

## 눈은 내리고 발자국은 묻히워도

김국용

철늦은 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밤  
오리재너머 팽상모판을 찾은  
소조원처녀의 작은 숨신자국  
그우에 흰눈은 내리고 내리고

첫닭이 우는 소리 남먼저 들으며  
새날의 첫일을 여기서 시작하는가  
두툼히 덮은 나래깃도 여미여주며  
자욱자욱 옮겨가는 다심한 그 발자국  
그우에 흰눈은 내리고 또 내리고

그 누가 볼수 있으랴  
눈속에서도 파랗파랗 키쫂구라고  
어서 커서 만풍의 가을을 안아오자고  
푸른색 애지중지 안아키우는 그 정성  
눈은 내리고 발자국은 묻히고

아, 모닥불 피워놓고 언땅을 녹이여  
흙갈이 바쁘던 그 길에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 걷고걸은 두렁길에  
눈비에 씻긴 그 자욱은 얼마

그 발자국 다시는 찾을길 없어도  
기름진 땅으로 변한 다락밭이  
온 가족이 물고 들로 나가는  
프락또르 깊은 바퀴자욱이  
충성스런 혁명전위의 그 발자국

대지우에 새겨가는 그 자욱  
세월의 눈비에 묻혀도  
하얀 눈보다 더 맑고  
불보다 더 뜨거운 마음  
농장마를 창가마다 웃음으로 피어나네

아, 수령님께 바치는 그 충성  
빛나는 그 자욱을 새겨안은것인가  
눈속에서 푸른 잎은 더욱 푸르네  
발자국은 묻히고 눈은 내려도...



# 열차가 지날 때마다

황명성

해돋이 아침노을  
달리는 열차우에 비끼여 흐르는데  
이슬 반짝이는 길녘의 창문가에  
귀여운 아기를 안아올리는 젊은 녀인  
기관사인 나에게 눈웃음 보내네  
열차가 가는곳에 창공같이 미래가 열리는듯...

흩어지는 용접의 불보라,  
축복의 억만불꽃 축포의 퇴성이너냐!  
반갑다, 내 기적을 길게 올려주면  
하늘의 번개도 휘잡아뿌려주는듯  
몸매 날랜 연공 소리치며 손을 흔드네

키를 솟구는 파아란 랭상모들,  
관개수 번들거리는 아득한 별 한복판을  
경쾌히 미끄러지는 열차,  
모내는기계에 앉은 예쁜 《종다리》들  
날리네, 꽃수건...  
노래의 물결인듯 따라오며 속삭이네  
-1,000만톤 알곡고지는 녀려말아요!

가는길에 펼쳐지는 동해천리  
메아리쳐가는 바퀴소리...  
넘실대는 흰 파도의 장엄함도  
차창에 스치는 과일동산의 꽃향기도  
불타는 마음의 아름다운 소원을 일려주나니-

아, 때없이 나누고싶던 자랑도  
영글어 피여오르는 삶의 희망도  
달리는 열차우에 불이 되어 없어지네,  
어버이수령님 심려하시는 수송전선을  
더 빨리 떠밀어주고 이끌어주고파  
따라서는 온 나라 지원의 뜨거운 마음이런가,

지나는 그 모든 고장들은  
해쫄는 하늘아래 열정의 불바다  
열차는 3대혁명의 거세찬 불야성속으로  
류성같이 달리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충성의 꽃수레, 위훈의 철마  
기관사 나의 환희 하늘끝에 닿았네.

## 벗에 대한 생각

김용한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제대후 한번도 보지 못한 정동무의 모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웁다. 군사복무의 마지막밤까지 나와 함께 언땅에 엎드려 전연을 지키다가 자기는 탄광으로 간다면서 손저으며 멀어져가던 그 모습...

붉고 푸른 등빛으로 장식된 수도의 밤거리를 거닐거나 취재하러 용해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문득 떠오르는 보고싶은 벗의 모습이다.

그와 헤어진지도 이제 십년 세월이 지났고 나는 수도에서 멀고먼 북방에 그를 두었지만 과학자가 되려고 그리도 열렐했던 그가 자기 희망마저 버리면서 탄광에 간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생각이 이토록 간절해지고 그의 모습이 더욱더 그리워지는지 나는 모른다. 탄부의 아들도 아닌 그가 불쑥 탄광으로 간후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있는지, 몹시도 보고싶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입니다. 석탄이 없이는 제철소와 제강소는 물론, 다른 모든 공장들과 기차, 배같은것을 움직일수 없으며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길수록 탄광으로 떠나가던 벗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하던 일이 예상외로 풀릴적에는 어른들의 심정도 애들처럼 되는 모양이다.

며칠전 석탄부문 취재가 나에게 차례졌을 때에 나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다.

하나 멀고먼 북방의 산간역에서도 골짜기를 따라 반나절을 들어가야 하는 탄광마을에서 내가 벗의 집을 찾았을적에는 야속하게도 주먹만한 자물쇠가 문에 달려있었다. 불원천리하고 찾아온 걸음을 쉬이 돌릴수가 없어 감시 망설이는데 탄부모자를 쓴 애녀석이 막대기를 들고 뚜뚜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신통히도 제 아버지를 닮은 벗의 아들이었다.

그 녀석은 내가 묻는 말에 어머니는 인차 들어오나 갱장인 아버지는 언제 올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녀석과 시간을 보내다가 벗의 안해라도 먼저 만나려는 생각에 눌러앉았다.

《모른단말이지? 허허... 그런데 넌 왜 아버지 모자를 쓰고다니냐?》

《나말이에요? ... 나두 탄분데요 뭐-》

애녀석은 그것도 모르냐는듯이 흘깃 나를 쳐다보더니 막대기로 벽을 쿡쿡 찔렀다.

《어디 네가 탄부냐? 이렇게 불에는 숨털밖에 안난게...》

《힝! -수염이 생겨야 탄부나요? 우리 고모두 전차라는 탄부야요.》

울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탄광을 제일 근심하신대요. 탄이 있어야 쇠물두 뽑구 전기불두 보구, 기계두 만들거든요. 알겠어요?... 세상에서 탄부가 일등이에요!》

애녀석은 엄지손가락을 내앞에 펴보이더니 자기가 탄캐는것을 보라는듯이 뚜뚜뚜- 소리와 함께 막대기로 여기저기를 찌르며 돌아갔다.

나는 애녀석이 노는양을 바라보느라니 군사복무 시절에 신문을 보다가 벗이 혼자소리처럼 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당에서는 석탄부문을 몹시 중요시하는것 같애!》

남들은 제대후 실현될 자기의 희망을 두고 마음들이 흰구름처럼 뚱뚱 떠있던 그 나날에 나의 벗을 당이 아파하는 문제를 두고 근심하며 그렇게 말하더니 오늘은 그의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며 세상에서 탄부가 제일이라는것이였다.

나는 그녀석을 통해 벗을 보는것 같았다. 어린것의 그 대답속에는 제대후 석탄에 온 심장을 바쳐온 벗의 지향과 그의 생활전체가 비껴있는것이였다. 또한 거기에는 북방의 탄광마을로 찾아온 벗의 긍지와 기쁨이 담겨있었다.

벗의 아들을 두고 내가 그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탄광설계실에 있는 벗의 안해가 왔다.

방으로 들어선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자리에 앉으려다가 우연히 보게 된 대형사진앞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부들과 함께 찍어주신 사진이였다.

거기에서 벗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나는 그에게 차례진 연광이 자신의것처럼 기뻐다.

《이 사진은 지난 4.15명절때에 현지도하시러

이곳에 오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부들과 함께 찍어주신거랍니다.》

나는 병사시절의 마지막밤까지 나와 함께 언땅에 배를 깔고 엎드려 전연을 지키던 정동무가 오늘은 어떻게 하여 이런 영광까지 지니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내가 정동무의 생활에 대해 묻자 리지적으로 생긴 그의 안해는 밝게 웃을뿐 인차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슨 큰 일을 했겠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10년동안 굴진을 내밀어 폐갱시키려던 갱을 일으켜세우구 전탄자행식채탄기를 창안해 그전에 버렸던 탄을 캐내게 했을뿐이에요.》

그런데도 글썽 그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같은 사람이 숨은 애국자이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과분한 평가를 주시며 사진을 찍을 때에도 이렇게 몸가까이 와있도록 하여주셨답니다. 그러시고도 돌아가시여 술한 선물을 보내주시구...》

벗의 안해는 남편에 대해 극력 말을 적게 하였다. 그러자 탄부모자를 쓴채 곁에 서있던 아들녀석이 볼부는 소리로 이렇게 웅쳤다.

《아니야! ... 울 아버지 <천프로갱장>이야!》

《넌 뭘 안다구 그러니? 가만 있으면... 남들이 모두들 그렇게 부르니 애까지도 제 아버지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 견딜수가 없었다. 비록 그들이 모든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도 벗이 제대후 걸어온 길을 짐작하기엔 충분하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는 석탄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산설고 물설며 사람설고 일조차 설은 이고장에 제대배낭을 끈 때로부터 흘러간 10년, 그 기간 벗이 겪은 그 가지가지 사연은 내가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러나 내가 대학의 불밝은 창가에서 열렬하게 학파토론을 하고있을 때 그는 지하막장에서 착암기를 틀어잡고 탄을 캐을것이며 간데라불밑에서 날이 지새도록 책을 읽고 기계를 익혔을것이다.

남들이 하루에 돌파할 과학의 요새를 그는 열흘 한달이 걸려야 했을것이며 그 과정에는 얼마나 많

은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았을것인가!

하나 벗은 내가 평범하게 또 순조롭게 흘러보낸 그 하루하루를 얼마나 어렵고 힘든 투쟁속에서 보냈으랴.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합쳐져 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는 그를 평범한 병사로부터 석탄전선을 맡은 당당한 지휘관으로 자라게 했으며 인간으로서의 가장 값높은 삶을 창조하게 한것이였다.

일이 쉽든 어렵든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당이 중요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그보다 우리 시대에 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혹시 그러한 사람을 두고 내가 벗을 리해하지 못한것처럼 그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으로 보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가치를 알게 될것이며 내가 벗을 자랑하듯이 영원히 심장속에 그린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게 될것이다.

당이 아파하는 일을 찾아 한생을 바치는 주추들이 되고 기둥이 되어 시대를 전진시키며 사람들의 심장속에 남는다는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고 빛나는 생인것이다. 그것이 그렇게도 훌륭한것이기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의 벗에게 그리도 높은 치하의 교시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하기에 그 안해의 밝게 웃는 얼굴에는 긍지와 자부, 행복과 기쁨이 어려있으며 벗에게 사람들은 존경과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있으며 그리고 세상에서 탄부가 일등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웨침속에는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노래가 힘차게 울리는것이다.

나는 벗의 모습을 새롭게 올려다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면 못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안해에게 행복을, 어린 아들에게 참된 삶의 노래를 웨치게 한 나의 벗은 사진속에서 여전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자기 자리를 튼튼히 지키고있었다. 이전이나 다름없이 두툼한 입술을 무겁게 다물고 정다운 그 눈길로 벗은 나를 보고있었다.

(벗이여, 벗이여! 나의 벗이여!)

나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나의 벗을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끝내 그를 찾아 현장으로 올라갔다.

# 탄부의 일기

함성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공업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진출하여 대중적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채취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긴장된 수송문제를 풀어야 하겠습시다.》

## 1978년 6월 25일. 날씨 맑음

나는 어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고 온 밤 잠들지 못하였다.

성스러운 군대복무를 마치고 여기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통림탄광에 배치받고 나는 그간 무엇을 하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석탄문제를 두고 심려하시는데 나는 아직 생활의 목표를 뚜렷이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당은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일당백으로 단련된 우리 세대군인들을 인민경제의 주타격방향으로 제일 먼저 부르지 않았는가.

무쇠를 녹이고 전기를 생산하는 고열탄이 되어야지 쓸모없는 버럭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는 불밝은 대학의 창가도, 황금파도 설레이는 협동벌도, 내가 배치받았던 수도의 네거리도 아니다.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안겨주시는 조국의 탄전!

여기서 나의 희망과 포부를 꽃피우자.

## 1978년 6월 27일. 날씨 맑음

안주탄!

이것은 내가 여기에 와서 귀중한 말로 새겨안은 것이다.

조선로동당원인 나는 이 말을 한생을 다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변함없이 바쳐갈 충성이라는 뜻으로 심장에 새겼다.

이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어 탄벽을 뚫어 한삽의 석탄이라도 더 많이 캐며 이 한몸 찢기여 한줌의 석탄이 되는한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한 혁명전사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싶다.

《저를 돌격선의 앞장에 세워주시오!》

나는 병사시절과 다름없이 이 말을 당조직에 제기하였다.

## 1978년 6월 28일, 날씨 맑음

오전 9시

우리 세대군인들로 조직된 《5월 11일 충성의 돌격대》 환영모임이 있었다.

탄부들과 가두녀맹원들. 소년단원들이 안겨주는 꽃다발은 정말 눈시울을 더웁혀주었다.

축하편지묶음은 또 어떤가!

나는 조국보위초소에서 이런 편지들을 수많은 밤 앓았다.

1211고지에 있었던 돌격대장 장정록동무, 351고지와 오성산에서 복무한 벗들의 모습은 참으로 름름하다.

조국을 지켜섰던 불패의 요새들이 마치 여기 주타격방향에서 어깨를 견고 손을 굳게 마주잡은것 같다.

이름있는 초소에서 다 모여오지 않았는가.

돌격대장 장정록동무는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돌격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자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자고…

발을 맞추기전에 마음을 맞추자!

속으로 이 말을 몇번이고 외워보았다.

나는 오늘 돌격대의 선동원이 되었다.

## 1978년 6월 30일. 날씨 맑음

오늘 《5월 11일 충성의 돌격대》는 로동안전교양을 마치고 첫 입갱을 하였다.

첫 입갱!

마치 어떤 시의 제목처럼 들리며 가슴의 피를 끓여준다.

산뜻한 여름제복에 구두, 작업복, 장화, 안전모, 안전등을 비롯하여 작업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받았다.

옛날 《앵치탄광》이라고 불리웠다는 여기 안주의 지하막장은 오늘 유압식동발과 각종 채탄기들,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갖춘 현대적인 일터로 되었다.

막장에 들어가 실지 눈으로 보고 많은것을 느꼈다.

충성의 붉은 피가 샘솟구치는 가슴속에서는 저절로 이런 웨침이 터져나왔다.

《동무들! 굴진은 넘겨말라.

어제날 포병이었던 우리가 막장에 서있다.》

## 1978년 7월 3일. 날씨 흐림

우리 돌격대 제1조는 첫번 교대로 전후에 돌입하였다.

탄부모자에서 번쩍거리며 컴컴한 굴길을 비쳐주는 안전등의 불빛을 따라 인차를 타고 막장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첫 전투에서 버력처리작업을 5분에 한광차씩 해제켰다.

놀라운 속도였다.

충성의 구슬땀을 흘리는 동무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하였다.

어머니조국앞에 진실한 벗들의 이름을 땃땃이 불러주고싶었다.

박원태, 박석근, 신순호, 박석봉동무들...

다 부르자니 끝이 없다.

## 1978년 7월 4일. 날씨 맑음

어제날 우리는 포병으로서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굴진공으로서 제2차7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굴진을 앞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주타격방향의 척후병의 위치에 서있자면 기술을 알아야 한다.

오늘 고등전문학교 입학시험을 치르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것은 험치않다.

그러나 혁명을 더 잘하자면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 1978년 7월 8일. 날씨 맑음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받고 우리 돌격대에서는 충성의 결의모임을 가지었다.

14만톤의 새 채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7월 15일까지 무조건 끝내자고 맹세하였다.

38메터의 굴을 뚫어야 한다.

이 높은 목표를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 동무들은 일손을 잡기전에 벌써 마음과 마음들을 맞추었다.

하나로 뭉친 힘!

이 힘을 당할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새 탄발으로 가는 길은 기어이 우리 손에 의하여 열리고야말것이다.

승리의 그날에 나는 누이에게 편지를 쓰겠다.

전후 채터미우에서 복구건설의 마치고소리를 들으며 태어난 내가 오늘은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첫 탄발을 만들었다고...

나는 이런 영광의 기쁨을 탄전에서 꽃피우며 영원히 당의 아들, 수령님의 전사로 충성 다하겠다.

# 위대한 힘

한기원

인간에게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할수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빛을 내게 되는것이다.

한때 나는 자신이 취재한 훌륭한 인간들의 생활에서 그 능력과 실천을 놓고 의혹을 가져본적이 있었다.

인간의 능력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그러나 기적과 변혁으로 충만된 우리의 생활은 나에게서 그런 의혹을 쫓아버린지 오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전투장들을 찾을 때마다 나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세차게 맥박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뜨겁게 느끼었으며 그것이 낳는 위대한 힘에 대하여 새삼스레 생각해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자력갱생-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의지이며 결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오늘 우리 인민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전진하고있다.

이 땅에 나래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는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어느날 철도부문에 취재하러 나갔을 때 알게 된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가 갓 해방된 때인 1945년 12월초, 지방의 수송초소에서 일하던 한 철도일군은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망국노의 설움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의 등대로 우러르며 흠모하여오던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직접 만나뵙게 된 그는 흥

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일군을 따듯이 맞아주시여 그의 가정형편이며 해방전 생활에 대해서와 철도수송형편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일제놈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철도시설들을 일부 복구하여 몇개 열차들이 뛰고있는데 대하여, 그러나 아직 놈들이 파괴한 통신시설을 복구하지 못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에 큰 지장을 느끼고있는데 대하여 죄다 말씀드렸다.

그 일군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폐색전화를 살려낼수 없겠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철도통신설비들은 상당한 기술자들이 와야만 복구할수 있는것으로 생각하고있던 그 일군은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해방전 일본놈들은 조선사람들이 기술을 배울가 보아 간단한 통신기재를 조립하는것마저 독방에 들어가 했기때문에 그 일군도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믿어주시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랴싶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 일군은 건전지만 몇개 공급해주면 망치로 두드리고 줄칼을 쓸어서라도 기어이 만들겠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음이 무거우신듯 말씀이 없으시였다.

(왜 그러실까? 내가 없는 재간에 너무 선뜻 말아나선것이 아닐까?)

그 일군은 문득 자기의 능력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성공에 대한 신념이 왜선지 희미해지는데 같았다.

이윽고 수령님께서서는 그 건전지도 연구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수 없겠는가고 조용히 물으시는것이였다.

《예?!》

너무도 뜻밖의 질문에 그 일군은 이렇게 대답했을뿐 다음 말을 잊지 못하였다.

다른것은 몰라도 해방직후의 형편에서 자그마한 건전지 몇개쯤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건전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터였다.

더우기 건전지는 만들어진 일도, 만드는것을 본

적도 없기때문에 애당초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답을 못올리고있는 그 일군을 자애 깊으신 눈길로 바라보고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기술도 없고 자재도 없고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남만 바라보고 살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새 조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한마디한마디 심장에 새겨넣은 그 일군은 온몸에 새힘이 솟구치고 지혜가 샘솟는듯하였다.

그것은 바로 자기 힘을 믿고 그 어떤 성스러운 일에 결심하고 달려붙는 사람들만이 느낄수 있는 신념이며 환희였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새 조선을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은 그대로 그 일군의 심장에 불타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령님, 기어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일군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이렇게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가 반드시 이 과업을 수행하리라고 믿는다시며 그 일군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돌아온 그 일군은 이날부터 건전지시험생산에 달라붙었다.

이미 다 써버리고 파괴된 건전지들을 들춰내어 헤쳐도 보고 분석도 해보았다.

하지만 리론도 경험도 없는 그는 아무런 기술적 해명도 얻을수 없었다.

난관은 걸음마다 앞을 막았다.

자재도 없고 공구도 없고 생산설비도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다리고계신다고 생각하니 순간도 지체할수 없었다.

우선 필요한 자재들을 구하여 어떻게 되든 만들어보리라 결심한 그는 도처에 다니며 연과 아연을 구해들이기 시작하였다.

수백리 먼길에 가서 망간석을 배낭에 저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자재를 구해들인 그 일군은 야장간을 차려놓고 풀무질을 해가며 연, 아연을 녹였고 건전지 만드는 시험을 시작하였다.

열번, 스무번 수십차의 고심어린 시험의 나날이 흘렀다.

그 나날엔 가슴아픈 실패도 있었고 꼬리를 무는

실망도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드디어 성공의 날을 가져다주게 하였다.

첫 건전지를 만들어내던 날 그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신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그것은 억눌리고 천대받던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의 억센 힘을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 보람찬 투쟁의 희열을 마음껏 느끼는 인간의 기쁨의 눈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일군이 만들어보낸 건전지를 보아주시었고 그후에는 그 일군을 몸소 만나 주시기까지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건전지를 우리자체로 생산하여 쓰니 얼마나 좋은가고 말씀하시면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잊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줄안에도 드러나나하는 물건, 건전지는 비록 작지만 거기 깃든 이야기는 큰 것이다.

자그마한 건전지를 만드는 일도 새 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의 하나로 보시고 이름없는 철도일군에게 가장 귀중한것-자력갱생의 정신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직후의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철도를 움직이고 쇠물을 뽑으면서 새 조국 건설의 터전을 튼튼히 다질수 있었으랴.

이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첩첩 막아서는 애로와 시련을 이겨내며 즐기찬 걸음을 내짚을수 있었다.

이 위대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폐허의 조국땅 위에 주체의 강철대들보를 세울수 있다고 강유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현대문명의 높이에서 비약할수 있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힘, 가장 훌륭한 지혜를 자력갱생이 낳는다.

자력갱생-이는 정녕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신념이며 모든 승리와 성과의 상징이다.

어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이 구호, 이 신념을 안고 새 고지대로 힘차게 달려갈것이다.

# 사령원의 뜨거운 심장

황장용

함흥철도국 단천주재 사령원 리종호동무는 이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아바이》이다.

해방직후 20대의 청년으로 사령대앞에 선 그때로부터 귀밑머리 희숙해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년동안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나라의 동맥을 튼튼히 지켜가고있는 리종호동무.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충성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는 리종호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수송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켜 내닫는 이곳 수송전사들은 리종호동무처럼 일한다면 제아무리 아름다운 과업도 얼마든지 해제낄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두줄기 철길우에 꽃피운 그의 몇가지 이야기를 여기에 적는다.

\* \* \*

수송사업이 몹시 긴장된 때였다.

함흥철도국 단천주재 사령원들은 더 많은 짐을 수송할 방도를 놓고 며칠째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미 모든 가능성들을 타산하여 세워진 수송조직에서는 좀처럼 예비가 나오지 않았다.

(이젠 화차들을 더 받지 않고는 수송량을 높일 방도가 과연 없단말인가?)

이날 저녁 종호동무는 사령실을 나섰으나 이런 생각이 좀처럼 머리에서 가시지지 않았다.

밤깊도록 종호동무는 생각을 굴리며 방도를 찾았으나 신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화차를 더 받으면 수송량을 손쉽게 높일수 있었다. 그러나 종호동무는 그런 길은 택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속으로 곱씹어 외울수록 종호동무는 새로운 결심이 굳어졌다.

(예비는 철도수송의 주인들인 우리들의 심장속에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있는 화차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를것을 바라시고계시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종호동무는 자리를 차고 집을 나섰다.

아무래도 전용선에 예비가 있을상싶었다.

정초의 맵쌀 바람이 불을 때렸다.

그러나 종호동무는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 공장의 전용선을 누비었다.

한참이나 전용선을 돌아보던 종호동무의 걸음은 화물선에서 멎었다.

화물선에는 석탄이 실려있는 화차뒤에 이미 쇠돌을 부리운 빈화차 몇량이 서있었기때문이었다.

종호동무는 마치 자기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듯 한참이나 빈화차곁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화차가 긴장한 때에 빈화차를 세워둔 자책이 가슴을 찔다.

이때 그에게는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화물선을 화물별로 고쳐꾸리고 짐을 부리는 족족 화차들을 뽑을수 있게 한다면 저렇게 빈화차들을 세워두지 않을것이 아닌가?) 그는 그길로 전용선일군들을 찾아갔다.

그의 뜨거운 호소를 들은 전용선일군들도 화물선을 고쳐꾸리자고 호응해나섰다.

다음날부터 종호동무는 일을 끝내기가 바쁘게 화물선으로 달려나갔다.

화물선을 고쳐꾸리는 일은 전용선일군들이 하는 일이지만 강건너불보듯 할수 없었다.

종호동무의 가슴은 화물선을 하루빨리 고쳐 많은 화차예비를 얻어내려는 생각으로 불탔다.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종호동무는 화물선으로 나갈 차비를 서둘렀다.

《여보.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쉬세요, 열이 더 심해져서 혹시 늑기라도 하면...》

남편의 마음을 아는 안해였으나 근심스레 입을 열었다.

며칠째 신열로 입맛까지 잃은 남편이 한눈에 보기에 피 수척해진것이 알렸던것이다.



한참이나 안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종호동무는 천천히 발머리를 뺐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철도운수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다함없는 배려와 은정을 베푸시고계시오.

그런데 내가 누워있으면 그래 마음이 편안하겠소.》

종호동무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있었다.

안해도 말없이 따라나섰다.

그들은 나란히 화물선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늘에는 은모래를 쥐어뿌린듯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하늘을 바라보며 속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종호동무가 안해를 불렀다.

《어보, 저 별들을 좀 보오, 어두울수록 더욱 밝은 빛을 뿌리는 저 별들을 말이요. 우리 태양의 빛을 받아 언제나 빛나는 별들처럼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에서 변함없이 참되게 삽시다.》

종호동무는 이날도 한겨울의 추위와 싸우며 전용선일군들을 극성스레 도왔다.

그의 눈섭에는 성애가 하얗게 불렸다.

전용선일군들이 한숨 쉬자고 끝어도 막무가내였다.

《화물선공사를 끝내구 폭 쉽시다.》

오히려 제편에서 웃으며 대답하는 종호동무를 보며 전용선일군들은 저저마다 혀를 찼다.

이러한 나날속에 화물선은 드디어 고쳐 꾸러졌다.

화물선이 고쳐지자 종호동무는 차갈이 기관차를 타고 전용선에 화차를 넣고 빼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며 밤을 꿔다.

이리하여 그는 끝내 전용선에서 합리적인 차갈이 방법을 찾아냈으며 수많은 화차예비를 얻어냈다.

그러나 종호동무는 만족을 몰랐다.

그는 전용선에서 미하차를 줄이는 일에 달라붙었다. 전용선일군들과 힘을 합쳐 미하차를 없애기만 해도 많은 화차예비를 찾을수 있었다.

그는 시간만 있으면 늘 전용선에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은 눈이 퍼그나 내린데다가 바람까지 일었다. 사령장은 전용선의 짐부리는 일이 걱정되어 현장으로 나갔다.

화물장어귀에 이른 사령장은 주춤 걸음을 멈췄다.

홀날리는 눈보라속에서 얼굴이며 옷에 눈가루를 함뼉 뒤집어쓴 사람이 상하차공들속에서 무어라 웅크리고 하고 삽질도 하며 기세를 울리고있었던것이

다.

(저 사람이 종호동무가 아닌가?!)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종호동무는 오늘 쉬는날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령장은 다시 보았으나 틀림없이 종호동무였다.

《종호아바이!》

《아니, 사령장동무가 이런 날씨에...》

오히려 남을 넘려하는 종호동무의 목소리에 그는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옥 치밀었다.

종호동무는 상하차공들과 함께 걸싸게 일손을 놀렸다.

이윽고 짐을 다 부린 상하차공들이 종호동무를 둘러싸고 말했다.

《사령원동무, 이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미하차를 하나도 없이 하겠으니 걱정마시오.》

《그러면 많은 화차를 거저 얻는것으로 되니 얼마나 좋소. 꼭 약속합시다.》

얼굴에 내뿜은 땀을 훔치며 종호동무가 말했다.

사령장은 때때로 그를 쉬우려고 한 노릇이 그때마다 종호동무가 스스로 일을 찾아하는 바람에 더 난처해지던 일들이 생각나서 한마디 했다.

《아바이, 나이도 많은데 젊은 동무들에게 맡기고 좀 쉬십시오.》

《하고싶어하는 일은 힘든줄 모르는법입니다.》

그날저녁 집으로 돌아온 종호동무는 손때묻은 《사령원수첩》을 펼쳤다.

그는 돈 고심어린 노력끝에 자기가 얻어낸 화차예비물로 《화차편성표》를 만들어냈다.

《화차편성표》를 바라보는 사령원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거기에는 예비로 찾아낸 화차들로 한개의 열차를 더 무을수 있는 방도와 과학적인 수치들이 또박또박 적혀있었던것이다.

사령원들은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종호동무가 더 얻어낸 한개의 열차편성, 그것을 어찌 그의 기술이나 꾸준한 천성이 낳은 성과로만 생각하겠는가.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일념을 안고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가는 그의 충성심이 낳은 열매였다.

종호동무는 수송성과가 오르고 무사고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릴수록 수송전선을 더욱 주인답게 지켜가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지난 3월초.

동암역에서 수송지도를 하고있던 그는 사령장으로부터 멀리에 가있는 막내아들이 XX렬차로 단천역을 지나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자고 한다는 반가운 기별을 받았다.

마침 수송지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참에 아들을 만날 기쁨까지 겹치고보니 그의 마음은 벌써 단천에 가닿아있었다.

종호동무가 화물렬차를 타고 몇개 역을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날이 흐리더니 진눈까비가 날리기 시작하였다.

(기관사들이 또 애를 먹겠군.)

이런 생각을 하며 한 역에서 어김렬차를 바라보던 종호동무의 시선은 기관차에서 벗었다.

꼬리 길게 화차를 문 기관차에서는 갓 기관사가 된 최동무가 약간 당황한 기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있었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이런 날이면 기관사들이 애먹군하는 어느 한 《화선철길》이 확 안겨왔다.

(최동무와 함께 《화선철길》을...)

다음 순간 몇해만에 보게 될 아들의 얼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섭섭함을 안고 다시 렬차에 오를 아들의 모습이 눈뿌리에 매달렸다.

(그러나...) 길게 생각할 사이없이 종호동무는 타고있던 기관차에서 뛰어내렸다.

방금 기적을 울리고 막 떠나려던 기관사는 웬일이냐는듯 종호동무를 불렀다.

아들을 만날 기쁨에 노상 웃음을 감추지 못하던 그가 아닌가!

이윽고 어김렬차도 역을 떠났다.

종호동무의 마음속을 모르는 기관사 최동무는 그에게 어딜 가는길이나고 물었다.

《어데 좀 급히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최동무가 차를 잘 몬다기에 우정 올랐네.》

《아바이두 참...》

최동무는 여간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았다.

렬차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힘차게 달렸다.

시창너머 피땀 안겨오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며 종호동무는 속으로 외쳤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기쁨을 안고 단천으로 달려가겠지. 그러나 애야, 너무 섭섭해 말아, 아

버지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길을 간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안다면 너도 나를 만난것보다 몇갑절 기뻐하리라 믿는다...)

렬차는 어느덧 《화선철길》에 들어섰다.

《최동무, 불비속에서두 기관차를 몰아간 영웅기관사들의 정신으로 제어기를 힘있게 잡소. 마음을 든든히 먹구.》

종호동무의 말소리가 운전실을 채웠다.

최동무의 눈빛엔 적화구를 향해 돌진하는 병사의 각오가 어렸다.

한초, 한초...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이 시각 사령실에서는 렬차가 《화선철길》을 통과하는 시간이 안타까울 정도로 느린것만 같아 손에 땀을 쥐고있었다.

드디어 렬차는 령마루에 툭아올랐다.

《기관사동무, 수고했소, 기적을 힘있게 올리오. 평양의 하늘가까지 울려가도록...》

《사령원동무...》

기관사 최동무는 다음말을 잊지 못했다.

《리파, 리파, XX렬차 무사고정시도착.》

수화기에서 기쁨에 젖은 석실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 종호아바이가 아니요. 왜 아직...》

사령장은 수화기를 든채 굳어진듯 움직일줄 몰랐다.

지금쯤은 톰름하게 자란 아들을 만날 기쁨으로 호함진 미소를 지은채 사령실에 들어설줄로만 알았던 아바이가 아닌가.

《사령장동무, 한가지 미안한 부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날 대신해서 역에 나가 내 아들을 만나주시오. 그리구 아무쪼록 어버이수령님께 충실한 혁명전사로 잘 싸우기를 아버지는 바란다고 알려주시오.》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철도수송전선을 주인공게 지켜가는 아바이.

사령장은 종호아바이의 아들에게 꼭 아버지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싶은 충동을 안고 역으로 달려갔다...

×

×

오늘도 리종호동무는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사령원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충성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가고있다.

## 충성의 한마음을 담고저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을 쓰기까지-

최준경

나는 얼마전 시문학을 지향하는 몇몇 동무들로부터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을 쓰게 된 창작경험을 적어보내달라는 여러통의 편지를 받았다.

창작의 첫걸음을 땀 나 어린 작가로서 생활에서 보고 느낀 감정을 몇줄의 가사에 적어놓은것에 불과한데 나에게 그 무슨 큰 창작경험이 있겠는가?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늘 이렇게 망설이며 싯뜻 시원한 해답을 써보내주지 못했었다.

오늘 뒤늦게나마 잡지 《조선문학》 지면을 통하여 창작경험이라기보다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을 쓰게 된 동기와 쓰던 과정에 모대기며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이야기하러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정치성내용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좋은 가사는 좋은 음악을 낳을수 있는 바탕으로 되며 선행조건으로 된다.

혁명적인 명곡의 바탕으로 될수 있는 잘된 명가사란 의의있는 정치성내용과 풍부한 생활이 담겨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이 시적형상을 통하여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구사되어있어야 한다.

가사의 정치성내용을 풍부하게 보장하려면 시대의 지향과 정신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를 깊이있게 반영해야 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그이께 끝없이 충성다해가는 우리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드림없는 신념, 철석같은 의지를 담아 대를 이어 두고두고 부를 충성의 송가를 엮어보려는 충동을 느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삶과 운명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자기들의 성실한 로력과 투쟁의 열매로 그이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라도 변함없이 가고 또 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이며 따라서 우리 인민의 최고의 영예이며 더없는 행복인것이다.

이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영광의 주체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특징적으로 발휘되고있는 시대정신의 전형화된 진수이며 절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뜻이 깊고 의의있는 정치성내용을 가사에 담아 시적형상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는것은 작품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

다.

나는 이러한 현실적요구와 충동을 안고 단숨에 가사의 초고를 써나갔다.

바로 이것이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을 쓰게 된 나의 창작적동기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가사는 처음부터 마음먹었던대로 그렇게 쉽사리 풀려나가지 못했다.

수만권의 책에 담고담아도 다 담지 못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도무지 열두줄밖에 안되는 1, 2, 3절 가사에 정치성내용이 풍부하게 하면서도 통속적으로 쉽게 이해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엮는다는것은 나무가지에서 탐스럽게 무르익는 열매를 따는 일처럼 단번에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처음 썼던 가사에는 큰 정치성내용만을 담으려고 급급했던 관계로 예술적형상과 정서적감정이 메달라있었고 매우 딱딱한 론리와 구호만으로 가득차있었다.

즉 가사에는 충실성의 기본요구들인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 등의 내용들을 생경한 론리로 풀이하여 절가형식의 음수물에 맞추어놓은데 불과했다.

그것도 객관적인 립장에 서서 난해한 시어로 노래함으로써 읽고나면 아무런 주정도, 감동도, 여운도 느껴오지 않았다.

동무들은 이 가사를 보고나서 내용은 좋은데 그것이 개성적인 시적형상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보다 뜨겁게 안겨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사에 정치성내용을 담으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그것을 예술적으로 안받침해주는 창작가의 탐구적인 시적형상은 차요시되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파연 동무들의 의견은 옳았다.

가사의 정치성내용과 시적형상, 이는 서로 떼어놓을 불가분리의 통일적관계를 이루지 않는가.

풍부한 정치성내용은 반드시 높은 시적형상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하며 높은 시적형상은 그자체에 목적과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고상한 사상성을 훌륭하게 담았을 때만이 은을 낼수 있는것이다.

이는 가사창작에서 풍부한 정치성내용과 시적형상의 통일이 호상 침투하고 호상 의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사창작에서 정치성내용 일면만을 강조하고 절대화한다면 가사는 왕왕 강연체강이나 정치상학제강처럼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상성을 무시하고 시적형상일면만을 절대화한다면 거기서 썩여지는 가사는 때때로 추상적인 자연주의로 무의미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모든 작품들이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훌륭한 작품으로 될수 없듯이 가사도 역시 풍부한 정치적내용과 높은 시적형상의 유기적통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명가사로 될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

가사창작에서 반드시 이 두가지를 옹계 결합시킬때만이 명가사로 완성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가사의 초고에서 이 두 요소를 옹계 결합하지 못하고 첫번째 경우만을 강조했던 관계로 가사문학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인 생활적정서와 시적감동을 돌구지 못했던것이다.

이는 명가사를 쉽게 얻으려는 나의 단일한 창작태도에서 나온것이였다.

나는 가사의 초고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심각하게 분석한후 구체적인 생활바탕에 토대하여 가사의 시적형상을 더 한층 높일것을 결심하고 다시 탐구와 사색의 나래를 펼쳤다.

우선 1절에서부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흘러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적계기를 통하여 생활에 발을 붙이고 노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취재기간 조국땅 방방곡곡을 걸으며 가슴뿌듯이 느꼈던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들을 다시금 뜨겁게 더듬어보았다.

아버이수령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려는 한마음으로 누가 보건말건 자기 맡은 초소에서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미더운 모습들이 하나둘 눈앞에 어려왔다.

밤에도 낮에도 잘 익은 쇠물을 뽑아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 철의 도시 용해공들, 해마다 계절마다 만풍년의 금나락을 거둬 아버지수령님께 최대의 만족을 드리는 황금벌의 농민들, 강물처럼, 폭포처럼 비단을 짜내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가는 비단공장의 직공들...

과연 그들이 바라는 삶의 행복은 무엇이었던가?

나의 마음속에는 하늘아래 첫동네에 사는 사람도, 이름난 최고장과 황금벌에 사는 사람도 그리고 동해바다 어촌에 사는 사람도 아니 이 강산에 사는 우리 인민들모두가 오직 한마음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받들기 위해 태어난 아름답고 슬기로운 충성의 모습들로 뜨겁게 뜨겁게 안겨왔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자기 개인의 행복보다 먼저 아버지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가로놓인 난관도 웃으며 헤치고 이 땅의 모든 부를 창조하고 건설한다.

온 나라에 차넘치는 이 위대하고 거창한 힘의 원

천은 우리 인민의 간절하고 소박한 충성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러면 간절하고 소박한 마음은 무엇인가?

동산에 해가 솟고 별이 뜰 때도 돌길에 찬비가 내릴 때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바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간절한 충성의 일편단심이 아닌가.

또한 한떨기 꽃을 봐도 황금벌을 바라봐도 행복의 이슬에 젖어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소박한 충성의 일편단심이 아닌가.

나는 인민의 가슴속에 샘솟아 흐르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그 마음들을 뜨거운 시적안목으로 더욱 깊이 들여다보며 강렬한 느낌속에 다시 창작의 붓을 잡았다.

우선 그 누구나의 가슴속에 공통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간절하고 소박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일편단심을 객관적인 관찰로써가 아니라 노래부르는 사람들자신의 감정으로 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그를 시적주정으로 함축하며 깊이있게 그려나갔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시적형상들이 점차 명주실꾸리처럼 풀려나왔다.

향기로운 꽃을 봐도 내 가슴 설레이네  
황금벌을 바라봐도 내 가슴 설레이네  
아 수령님 모시는 길에  
언제나 기쁨드릴 충성의 일편단심

다시 착상한 가사의 1절은 이와 같이 씌여졌다.  
나는 거듭하여 2, 3절을 완성하는데 달라붙었다.  
솟구쳐오르는 샘물과 같이 맑고 깨끗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일편단심을 어떻게 한계단 더 승화시킬것인가?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2절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먼저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며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고 어렵고 준엄한 순간에도 먼저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며 변함없는 충성을 바쳐가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와 오직 그 한길에서 한생을 별처럼 빛내여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각오를 노래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를 시화해나갔다.

2절도 비교적 쉽사리 풀려나왔다.

행복이 넘쳐나도 내 마음 변함없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 마음 변함없네  
아 수령님 따르는 길에  
한생을 빛내여갈 충성의 일편단심

다음 3절에서는 이 세상 어느 한끝, 절해고도에 가있어도 검은 머리 희여지고 하늘땅 변하여도 오직 한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길이 받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는 길에서 영생의 삶을 꽃피워갈 우리 인민의 불타는 지향과 신념을 담는데 도

를 박고 1, 2절에서 축적되어오던 시적감정을 탐구된 시어를 통하여 더욱 절절하고 폭넓게 터뜨려나갔다.

이 세상의 끝에 가도 내 마음 하나일세  
하늘땅이 변하여도 내 마음 하나일세  
아 수령님 길이 받들어  
영원히 꽃피워갈 충성의 일편단심

드디어 가사 1, 2, 3절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나는 다 쓴 가사를 몇번이나 내리 훑어보면서 처음 썼던것과 대비해보았다.

구체적인 생활에 발을 붙이고 시적계기를 통해 켜여진 두번째 가사는 종전것보다 확실히 깊은 정서를 돋구어주며 뜨거운 형상적 감동을 안겨주는것 같았다.

생활적인 체취도 풍기고 열렬한 주정과 시적인 여운도 있는것 같았다.

특히 좋아졌다고 느낀것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노래부를수 있게 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동무들도 다시 쓴 가사를 보고나서 풍부한 정치적내용을 시적형상을 통하여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으로 뜨겁게 노래하였다고 기뻐하는것이였다.

그후 가사는 노래로 완성될수 있었다.

나는 이 가사를 완성하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몇가지 교훈을 찾게 되었다.

첫째로 가사에 아무리 좋은 사상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를 시적형상으로 꽃피우지 못했을 때 가사문학의 고유한 특성과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는것이이다.

시적형상이 없이 직선적으로 엮어놓은 론리와 구호식의 가사는 그자체가 담고있는 직선적인 내용밖에 더 전달하지 못하므로 노래를 통하여 아무런 감동도 생각도 여운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구체적인 생활에 토대하여 시적으로 형상하였을 때 그 가사자체가 담고있는 내용보다 몇배나 더 큰 뜻을 감동적으로 안겨주며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시적여운으로 몇배나 더 많은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여준다.

둘째로 어떤 대상을 객관적인 립장에서 노래하는것보다 서정적주인공자신의 립장에서 자기의 감정으로 노래하도록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였다는것이다.

물론 작품의 종자에 따라 객관적인 립장에 설수도 있지만 서정적주인공자신의 립장에서 노래할수 있는 작품의 종자까지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노래한다는것은 그자체가 누구나 자기의 감정을 분출하는것이기때문에 가사들이 혁명가국의 노래와 같이 실지 노래부르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불도록 하는것이 더 좋다고 본다.

그래야 누구나 가사에 담겨진 내용을 자기의 생활과 결부하여 생각하면서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더욱 즐겨 부르게 될것이다.

셋째로 작시법에서 뜻이 쉬운 동의어와 반의어들을 골라 대구 또는 반복수법을 도입하면서 될수록 짧게 쓰는것이 가사의 사상적명료성과 음악적운율을 한층 높이는 효과적이 방법이라는것이다.

그러나 가사를 동의어와 반의어의 도입도 없이 정형시적음수들의 조직도 없이 복합문장처럼 길게 뻗어서 쓴다면 가사의 명료성과 운율성도 보장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따라서 가사의 향취와 탄력성도 돋구지 못한다는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곡을 동반하는 노래의 가사로서 자기의 웅대한 사명을 수행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는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 초고에서 나타난 바로 이러한 세가지 결함과 부족점들을 찾고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하여 비교적 옹건해결하였던것이다.

오늘 이 가사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창작원칙을 실천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말할수있다.

지금 노래 《충성의 일편단심》은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충성의 송가로 되어 널리 불리워지면서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변함없는 한마음을 더욱 뜨겁게 불태워주고있다.

하루일을 시작하려 일터로 갈 때도 저녁노을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리고 창가에 앉아 곱게 핀 목란꽃을 바라볼 때도 금나락 물결치는 들길을 걸을 때도 누구나 자기의 삶의 앞길에 영원할 충성의 맹세를 소중히 간직한다.

혁명의 필봉을 쥔 작가로서 자기가 고심분투하여 쓴 작품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체문학예술의 아름다운 대화원속에 한떨기 꽃송이로 보태여 질 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인신과 배려에 비해볼 때 아직 이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나는 시인의 한사람으로서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날이 갈수록 더욱 크나큰 사랑속에 불리워지며 그들에게 끝없는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는 주옥같은 노래의 가사, 전진하는 혁명의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이 두고두고 부르고 또 부를 피끓는 충성의 노래를 최대의 심혈을 기울여 더 좋게 더 많이 창작하겠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국의 슬기와 주체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자랑찬 송가들이 대양을 건너 세월을 넘어 영원히 영원히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

#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과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탐구

최연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어야 하며 위대한 생활은 어떤 한들의 탁월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마스-레닌주의적관점이 명백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문학예술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며 근로인민대중이 사회발전에서 노는 결정적역할을 강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제사상의 요구가 심오히 구현되어있다.

위대한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옹계 풀어나가는것은 문학예술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만이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될수 있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깊이있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그것은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의의깊은 인간문제를 제기하였는가 못하였는가에 따라 크게 규정되기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핵인 종자도 의의있는 인간문제에 탐구되었을 때 참다운 인간학적종자로 될수 있으며 형상창조의 전과정도 결국은 종자에서 선택된 인간문제를 주제사상의 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기때문이다.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는것은 특히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짐으로써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인간문제의 내용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기때문이다.

국가주권을 쥔 극소수의 지배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있었으며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착취

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어있던 착취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문학작품에서는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관한 문제가 인간문제의 기본내용으로 된다. 이러한 인간문제를 체현한 혁명적작품들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다는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깨우쳐줌으로써 사람들을 혁명의 길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해준다. 착취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문학작품의 주인공들은 생활의 우여곡절을 거쳐 점차 혁명을 인식하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혁명가로 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인공들은 그 성격발전과정 자체가 심각한 운명선을 체현한 인간문제를 자체 속에 안고 있게 된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의 기치밑에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일어난 사회관계의 이러한 근본적변화들은 우리 문학이 새로운 인간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탐구가 절박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새로운 현실이 제기한 인간문제의 요구를 옹계 이해하지 못하면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사회주의현실에서는 문학이 제기하여야 할 심각한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가 없는듯이 생각할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낡은 미학적관점에서 오는 그릇된 리해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고있는 사회주의현실이야말로 우리 문학이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내세우고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탐구가 절박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일부 작품들의 경우 가치있는 인간문제에서 종자를 탐구할 대신에 생산기술적문제에 치우치는 편향이 없지 않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은 오직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깊이있게 풀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무엇인가?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을 그린 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가장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인민이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심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었다는것을 인간의 운명선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도 행복도 리상도 그리고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그들의 운명자체도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과 땀수 없이 잇닿아있다는것을 심오하고 진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참으로 일찌기 인류문예사상 그 어느 문학도 그리고 현시대의 그 어떤 문학도 이렇듯 의미심장한 인간문제를 소리높이 노래하고 긍지높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높이 우러러모심으로써 우리 시대인간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올 이 거대한 역사적사변을 전면적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최학수)이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가장 귀중한 성과작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우리 시대인간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이 인간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준데 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세기적인 비약, 평양시간의 창조과정은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거창한 역사적과정이기도 하였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소설의 주인공인 제대병사 리상철의 성장과정과 특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속에서 갱생의 길을 걷는 도시계획설계가 문화린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이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의 품과 땀해야 땀수 없는 혈연적인 령계로 맺어져있는가를 참으로 진실하고 심오하게 보여준

다. 문화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7년 10월전원회의에서 당의 건설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조립식건설을 신비화하는자들, 낡은것을 고집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쓸어버릴것을 호소하신 강령적인 연설에 접하였을 때 당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을 가슴이 터질듯이 아프게 느낀다. 그는 낡은 사회에서 물젖은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근성과 건축예술에 대한 유미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낡은 미학관으로 하여 당의 주체적인 조립식건설방침을 적극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죄를 저지른다. 이리하여 그는 안해앞에서까지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으로 자책감에 모대기며 거의 실망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는 안해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소? 이 죄된 문화린이처럼 그이를 모신다면 도대체 누굴 믿고 그이께서 건설혁명을 해나가시며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시겠소?...》

문화린의 진정어린 이 말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그 뜻을 받들어드리지 못한 인간이 자기를 깨닫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가장 심각한 모대김이다.

이러한 문화린은 출세욕에 눈이 어두운 형식주의자이며 요령주의자의 전형인 고학시절의 옛학우였던 건설사업소 지배인 림도식의 모해적인 책동에 의하여 더욱더 가슴아픈 곡절을 겪게 된다.

이렇듯 헤어날수 없는 빈민속에 빠져 허덕이는 문화린에게 소생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고마운 분이 바로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1957년말과 1958년초에 걸쳐 쉬임 없는 현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설계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시며 건설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설계일군들에게 크나큰 정치적민음과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엄중한 조립부재전복사고의 원인이 설계에 있는것으로 인정되어 문화린에게 또다시 그 무서운 책임이 들썩워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의 량심을 믿어주시고 살뜰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힘을 내라고 고무해주신분도 바로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력사적인 1958년 1월 18일 건설일군협의회에 참가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설계일군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소생의 힘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문화린은 온 얼굴에 차고넘치는 밝은 웃음과 희열에 찬 눈빛을 안고 안해의 이마를 더듬어 머리수건밖으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들려주며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손가락으로 씻어주면서 속삭이듯 말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소? 오늘 나는 삶을 되찾았소!》

참으로 이것은 천부모도 줄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에 의하여 잃어버렸던 정치적생명을 되찾은 인간만이 누릴수 있는 값높은 행복이었다.

자기 안해앞에서 얼굴조차 들지 못했던 빛없는 인간의 서글픈 모습과 되찾은 삶의 환희로 하여 행복에 눈물짓는 숭고한 인간의 모습, 실로 한 인간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심각한 갱생과정은 오로지 가장 위대한 인간적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는 뿔어넘치는 충성의 열정을 안고 거세찬 건설혁명의 불길속에서 자기의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며 밤과 낮을 잇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문화인의 변모된 모습속에서 한 인간의 운명에 기울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바로 우리 문학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수 없는 우리 인민의 값높은 이 존엄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고 소리높이 노래할 때 우리 시대가 요구한 인간문제에 참다운 해답을 주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하고있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모든 인간문제들이 최고의 높이에서 집대성되어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제도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빛나는 위훈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가장 숭고한 인간의 리상과 행복에 대한 문제도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근본문제에 기초하고있으며 이 하나의 거대한 문제로 통일되어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이 제기한 이 거대한 인간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며 이와 함께 우리 문학작품들에서 그려지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 어버이수령님의 손길과 잇닿아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만 나서는 문제도 아니며 오늘에 와서 비로소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인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주인공들은 그 모두의 운명이 위대한 수령님과 가장 혈연적으로 맺어져있으며 이 영광스러운 전통은 우리 문학에 확고히 계승발전되었다. 또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어떤 주제의 작품창작에서나 항구적으로 내세우고 풀어나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인간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인간의 운명을 전면적으로 그리는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절박하고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는것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탄생하고 성장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을 보여주는것은 인간의 운명선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그릴수 있는 장편소설에서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직접 모신 작품에서만 가능한것도 아니며 우여곡절을 겪는 인간의 운명선에만 고유한것도 아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사랑의 손길은 우리 문학의 모든 주인공들이 누리고 지향하는 행복과 리상속에 그리고 그들모두의 심장속에 귀중히 간직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의 기초에 언제나 뜨겁게 미쳐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우리 문학이 해명하여야 할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또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하고있는 주체의 혁명적인생관을 밝혀내는것이다.

인생관이란 사람이 자기의 한생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이다. 따라서 인생관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 없이 인간문제에 대한 참다운 해명을 생각할수 없다.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하고있는 인생관은 주체의 혁명적인생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 체현하여야 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서 주체의 인생관은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주체의 인생관이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인생관이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충성의 한길에서 영생하는 혁명가의 삶을 누리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상의 행복으로 여기는 참다운 혁명가들이다. 주체의 인생관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 없이 우리 시대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운 료리와 영웅적인 위훈을 형상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자체에 머무른뿐이며 의의있는 인간문제에 대한 해답으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티없이 깨끗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념화된 충성심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을 가장 진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인간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이 작품에는 요란한 사건도 그 어떤 비범한 성격도 없다.

여기에는 다만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당의 축산정책을 진심으로 받들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성심성의껏 돼지를 길러나가는 태성할머니일가의 소박한 생활이 꾸밈없이 그려져있을뿐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어버이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뜨거운 충성심이 심오하고 감명깊게, 진실하고 열렬하게 그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간절한 소원으로 하여 한밤을 잠들지 못하고 남다 자는 이른새벽에



아버 이수령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정성껏 쓸어나가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 이는 그대로 더없이 소박한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그렇듯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충성심 그대로의 상징인 것이다.

아버 이수령님의 축가신 안색을 뵈고 못내 가슴아파하는 어머니의 형상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어머니였기에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감히 당정책을 시비해나섰을 때 그렇듯 견결하게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옹호보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드물지 않는 신념화된 충성심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려진 가장 생활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그렇듯 진실하게 보여준 바로 여기에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가 우리 시대인간문제해결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개척한 작품으로 되는 근본요인이 있다.

실로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우리 인민들에게 아버 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해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된다.

주체의 혁명적 인생관을 밝히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하고있는 주체의 인생관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해명을 주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 문학의 모든 주인공들이 체현하여야 할 성격의 기본핵이며 주도적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이 해명하는 주체의 인생관은 충성심 일반이 아니라 매개의 문학작품에서 작가가 새롭게 골라온 중자가 안고있는 구체적인 인간문제에 따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충성심에 대한 독창적인 철학적 해명을 주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하고있는 주체의 혁명적 인생관을 깊이 있게 밝히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인간의 성격을 외적으로 그릴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전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내는 것이다. 일면적으로 단순하게 그려진 성격에서는 아름다운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도 못한다. 일찌기 우리 사회에서처럼 사람들이 자주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의 개성을 활짝 꽃피운적은 없으며 인간의 정신력과 도덕률이 그렇듯 고상하게 승화된적은 없었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사람, 가정, 벗, 우정, 동지 그리고 행복과 이상 등에 대한 전혀 새롭고 가장 고상한 혁명적률이 생겨났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많은 인간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레컨대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있어서 혁명적동지

애, 그것은 부모처자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랑보다도 가장 숭고하고 귀중한 혁명적동지들간의 사랑이다. 혁명동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인생관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우리 시대의 애정률리의 문제도 이러한 혁명적동지애의 구현으로 된다.

혁명투쟁속에서 맺어지고 투쟁속에서 영원히 빛을 뿌리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애정관이다.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 공산주의자라면 주체의 혁명적 인생관을 밝히는데 있어서 혁명적인 애정률리의 문제는 또한 없지 못할 생활의 한 측면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애정률리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간세계에 대담하게 파고 들어가 일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혁명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은 또한 어떻게 혁명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가에 웅당한 예술적대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향하고있는 아름다운 이상을 활짝 펼쳐보임으로써 그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고 고상한가를 폭넓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자들처럼 이상이 높고 꿈이 많은 사람들은 없다.

오늘의 현실도 아름답지만 현실에 만족하여 보다 이상적인 패일을 그리지 못한다면 그러한 인간의 성격이 우리 인민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고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우리 문학이 세워야 할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또한 우리 시대인간들의 자기의 모든 개인적운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투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위업과 어떻게 결부시키며 이 거창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인간자신도 어떻게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완성되어나가는가 하는 인간개조의 심각한 역사적과정을 심오하게 해명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세기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혁명위업과 동떨어진 인간의 운명이란 무의미하다. 바로 여기에 종래의 모든 문학이 제기한 인간의 운명과 구별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명이 체현한 새로운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을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어떻게 거대한 혁명적변혁속에 자기의 운명을 순응시키면서 자기자신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되어 더욱더 자주적인 인간으로 완성되어나가는가를 깊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인간성격들은 마땅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그려져야 하며 창조적인 로동과 생산활동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 보람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거세찬 격랑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 강철로 단련되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가를 보여줄 때 우리 문학예술을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문제에 참다운 해명을 줄수 있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로동계급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안다고 해도 자신을 계속 혁명화하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된다는 종자를 심고 꽃피움으로써 로동계급도 혁명화해야 할뿐아니라 혁명화는 누구나 다 해야 하며 또 언제나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심각한 인간문제를 힘있게 해명하였다.

만약 이 영화가 처음에 의도하였던대로 쇠돌을 캔다고 해서 로동자가 아니며 쇠돌을 좀 다루었다고 해서 로동계급이 되는것도 아니라는 일반적인 혁명화문제를 들고나왔다면 오늘 영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본보기로 되는 로동계급자체를 혁명화함으로써 그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이렇듯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수행할 가장 심각한 혁명과업인 사상혁명의 요구에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의 운명을 순응시킴으로써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나는가 하는 심각한 력사적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사상혁명뿐아니라 기술혁명도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과업이 아니며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자립적민족경제도 건설할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도 건설할수 없을뿐아니라 인간자신도 자기를 자연과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전변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인간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심각한 혁명위업인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속에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합류시켜나가는가 하는 거대한 변혁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웅당 사회주의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생산기술적문제와 인간문제와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문제는 생산기술적문제를 그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산활동과 창조적로동속에 있는 인간을 그리면서 생산문제가 아니라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내는가 하는데 있다.

작가들은 생산활동을 그리는데서도 어디까지나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 로동과정에 맺

어지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관계를 밝히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생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므로 문학에서는 마땅히 생산의 주인인 사람들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나서는 인간문제를 푸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은 물질적부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활동일뿐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며 동시에 자신을 혁명화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은 언제나 혁명을 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해나가는것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이러한것만큼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생산기술적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사람들에게 참다운 생활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줄수 있다.

생산기술적문제를 인간문제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생산기술적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뚜렷한 종자, 문제성을 들고나와야 한다.

장편소설 《생명수》(변희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어지돈관개건설공사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그리고있다. 이 소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다 관개건설장에서 있는 생산기술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사상에 의하여 진행된 어지돈관개공사라는 거대한 력사적사실속에서 참으로 의의깊은 종자를 골라집으로써 소설의 이야기를 생산기술적문제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인간문제를 체현한 문학적인 이야기로 되게 하였다.

소설은 비록 나라의 형편은 어렵지만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어도 우리 농민들에게 하루빨리 생명수를 주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사상적알맹이로 하여 형상의 꽃을 피우고있다.

우리 농민들에게 하루빨리 생명수를 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는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수리화를 기술혁명의 첫째과업으로 밝혀주신 독창적사상이 구현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것은 농민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할뿐아니라 물고생으로 하여 피눈물을 뿌려온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원까지 풀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은정과 인간해방의 위대한 사상이 구현되어있는것이다.

실로 소설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도공사장의 50미터 흙굴막장까지 들어가시어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고 하시며 아무리 자재와 로력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압추도 대신에 명추도로 하라고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이 감동적으로 정중히 모셔져 있다.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아안은 주인공 대성이와 봉숙이, 그리고 모든 청년건설자들은 헌신적이고도 창조적인 로력적위훈으로 끝내 언제공사를 끝내고 봉산벌농민들에게 사랑의 생명수를 보내는것이다.

생산기술적문제를 인간문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또한 형상성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사건중심의 줄거리문학으로부터 인간중심의 성격문학으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생산기술적문제에 치우치게 되면 례외없이 생산기술적문학의 제시로써 사건이 시작되게 되고 생산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과정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며 난관이 조성되는데 따라 갈등은 더욱 심화되며 결국 생산기술적문제가 해결되면 갈등도 사건도 인간관계도 다 해결되게 되는것이다.

말하자면 형상의 중심에는 인간의 성격이 아니라 생산문제를 둘러싼 사건이 농기에 되며 따라서 인간문제가 아니라 생산기술적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것이다.

이리하여 이러한 소설들에서는 형상창조에서 판에 박은듯한 도식과 유형이 생겨나서 독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것이다.

생산기술적문제에 따라 사건을 구성하면 불가피

하게 생산문제와 기술문제를 둘러싸고 새롭고 진보적인 립장을 취하는 긍정적주인공(주로는 처녀주인공)과 그와 대립되는 소극분자, 보수주의자, 형식주의자, 요령주의자(주로는 작업반장,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초급일군)가 나오게 되며, 그리고 그들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서 정치적지도를 담당하는 당일군이나 3대혁명소조원이 등장하게 된다.

좀 더 들어가 보면 부정인물은 주로 당면한 생산계획에만 매달려 일을 주인답게 할 대신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술혁신도 반대하게 되며 긍정인물은 당면한 생산계획은 비록 미달하는 한이 있어도 기술혁명을 앞세워 근본문제를 해결하며 일을 알뜰하고 간지게 해나간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틀속에서 판에 박은듯한 작품들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고 그것을 인민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옳게 풀어나가는데서 근본문제로 되는것은 작가들이 얼마나 시대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 시대 인간들에 대하여 사색하고 탐구하는가 하는데 있다.

시대의 기수이며 인간정신의 기사들인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위대한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더욱 깊이 체득함으로써 주체의 안목으로 현실을 보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함으로써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 단편소설의 흥미와 철학적깊이

리유근

소설은 읽히울것을 전제로 하고 씌여지는것만큼 우선 흥미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는 처음부터 사건을 긴장하게 끌고나가면서 흥미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편소설이 흥미있게 되자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종자선택으로부터 형상의 꽃을 피우는 전과정에 작용하는 창작실천상 근본문제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이는 생활에 대한 진실한 묘사와 개성적인 파악, 형상의 묘미를 돋구기 위한 진지한 탐구에 의해서만 참답게 주어질수 있다.

작품에 흥미와 철학적깊이는 예술적형상의 모든 요구를 원만히 보여준 작품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흥미를 가지고 읽히우는것, 읽고난 다음 깊은 감명을 받는것-이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잘 알고 현

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서서 생활의 가장 긴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어 종자로 삼고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은 례외없이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이런 작품을 읽고나면 자연히 시대와 인간에 대하여, 생활에 대하여 거듭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

여기에 단편소설 《발걸음》(백보흙, 《조선문학》 1978. 2)이 있다.

이 작품은 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독자들을 크게 감동시키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티없이 맑은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자신의 주인공답지 못한 일본새로 하여 시대와 후손들앞에 남길 오점을 생각하며 혈육과 가정에 대한 미련도 다 뒤로 미루고 나란철길건설자들과 함께 한몸을 바쳐가는 련희(《발걸음》)의 성격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전형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참되게 산다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누가 보건 말건 자기 말은 초소를 성실히 지키는것이 시대와 인민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것이라는 사상적알맹이가 생활적인 진실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깊이있게 안겨오도록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한것을 작품의 철학적성을 높이게 하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깊이있게 그리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옹건하게 맺어주었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얹히게 하고 생활을 다각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작품의 흥미와 철학적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작품에서 설계기사 채동식은 돌발적으로 나타난 진철의 늙을 에도는 철길공사에 대한 보충설계를 빨리 완성하기 위해 이미 10년전에 여기서 측량소 대장으로 일하던 련희를 부른다. 사실 이때까지 그는 자신의 처사가 잘못이 없으며 철다리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것이라고 인정하고있었다. 련희는 동식의 이런 내심을 깨닫고 늙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저지른 지난날의 파오가 얼마나 엄중한것인가 하는것을 뼈저리게 뉘우친다. 한편 동식은 동식이대로 련희의 이런 소행을 보고 눈이 덮였다고 현장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애매하게 련희를 고생시킨 자신을 깊이 뉘우치는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련희가 탄광마을로 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놓고도 예리하고 분석적인 정황심리묘사로 인물들의 감정세계를 깊이 파헤쳐 그들사이의 관계를 극적으로 얹히게 했으며 나아가서 서로의 약점을 들여다보는 반성의 계기로 되게 하였다.

지난날의 파오에 대한 뉘우침, 그 자체로써도 의의있지만 그속에서 자신들을 반성하고 부단히 개조해나가는 여기에 이들 성격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새로운 각도에서 인간관계를 해명하려 한 작가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이들의 관계가 한결음한결음 심화되게 묘사의 각도를 집중시키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이는 작품의 긴장성을 높여주었고 얹음새와 성격의 단조성을 피하고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모로 흥미진진하게 파고들수 있게 하였다.

사실 련희는 늙의 룬파이나 확정지어주고 그대로 룬양소에 돌아와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범한 실수때문에 늙을 에돌아 철길을 놓음으로써 그와 같은 파오를 다시 반복하려는 채동식의 불합리한 설계안을 그대로 방임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설계안을 개조하도록 동식을 자극할뿐만아니라 나중에는 철다리공사를 도울것을 결심하고 그를

리행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는 이들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인간적관계가 아니라 호상 제약하고 반응하는 극적관계에 놓이게끔 심화시키고 성격의 기본핵을 부각시키는데로 묘사를 집중시켰다.

작품의 흥미와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양한 형식의 형상창조원칙과 묘사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는것이 필요하다.

공부정간의 교감을 잘 시켜 일정한 기간 감정을 축적했다가 어느 한 대목에 가서 폭발시킬수 있는 국면을 노리는 문제, 성격발전의 필요한 계기들을 찾아내며 성격의 주도적특질을 살리는 방향에서 묘사의 각도를 집중하는 문제 등은 단편형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법이다. 단편소설 《발걸음》에서 이곳 탄광건설자들이 왜 자기를 불렀을가 하는 련희의 의혹과 기대, 지난날에 대한 회고, 오늘의 환경 등을 다양한 지점에서 교차적으로 반복제시한것이라든지, 10년전의 일을 두고 처음에는 회열을 느꼈다가 범한 실책을 깨닫게됨에 이르러서는 무거운 자책속에 고민하는 그의 심리적변화과정을 예리하게 드러내어 성격의 주도적특질을 부각시킨 실례들이 그것이다.

한편 파오를 씻기 위한 련희의 모든 행동계기들을 타당성있게 짚아주고 채동식이나 중대장 등이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도록 감정조직을 면밀히 짜고든 실례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특히 작품의 마감장면에서 처음에는 책임성없이 일한 련희네를 두고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가 철길 다리공사를 자진하여 말아나서는것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중대장이 련희의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앞에 물인정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뉘우치는 대목은 얼마나 깊은 감동을 가지고 진실하게 안겨오는가. 축적된 감정을 요긴한 대목으로 돌아가다가 더는 어찌할수 없게 된 때에 충격적인 폭발로 이끌어가는 생동한 형상수법은 작품의 풍격을 그만큼 높여주었다.

하기에 독자들은 검수탑우에 오르던 날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그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면면이 펼쳐져있는 조국의 산발들과 아름답고 사연 많은 풍수덕의 전경을 감동에 차서 바라보는 주인공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한없이 아름답고 고귀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감수하게 된다.

작품의 철학적성을 높이며 생활을 여러모에서 흥미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한 감동적인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내는것과 함께 생활세부들을 옹건하게 탐구하

는것이 중요하다.

《발걸음》에서는 성격의 주도적특질을 밝히고 그것이 가장 뚜렷이 발현될수 있는 감동적인 생활 세부들을 찾아 분석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종자가 내포한 형상과제를 아름답게 꽃피워나갔다. 때문에 작품에 담겨진 생활이 그만큼 진실하고 인물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비할바 없이 높게 진실하게 형상되었다.

련희가 그린 풍수덕의 지형도에 대한 세부만을 놓고보더라도 많은 생활내용을 여기에다 결부시키고있으며 큰 형상적의의를 부여하고있음을 볼수있다.

이 지형도 하나를 놓고 독자들은 련희의 지난날과 오늘을 통하여 현재는 그가 무슨 일을 하건 오늘의 환경의 요구하는 지난날의 직업적의무감을 잠시도 저버릴수도 없고 홀시할수도 없다는 사상을 뜨겁게 감득하게 되는것이다.

높칠길다리공사장에서 철기둥을 수직으로 박아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이여의 인간들이 각이한 견해를 로출시킨 생활세부도 역시 다리와 안전성, 견고성만이 아니라 우리시대 인간들의 끈은 량심, 한번 헛디딘 발걸음을 두고 그것을 씻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련희의 깨끗한 량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생활적계기로 되게 하였다.

이는 인간이 비록 본의는 아니더라도 생활에서 발걸음을 잘못 디딜 때 시대와 혁명 앞에 어떤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가 하는 작품의 문제성을 보다 철학성있게 밝혀낼수 있게 하였다.

이 작품은 또한 소여인물들의 심리적변화과정에 따르는 환경과 정황을 타당성있게 깔아주고 내면세계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예리하게 포착하여 분석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감정의 기록을 조성한것을 비롯하여 성격창조와 종자해명을 위한 예술적형상화의 제반 요구를 여러모로 잘 구현하여 작품의 독특한 양상을 잘 살렸다.

작품의 흥미를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수법들은 작가의 기량을 높이는데서만 보장될수 있다. 생활을 형상적으로 재현할만한 높은 안목과 기교를 소유할 때 하나의 묘사대상을 놓고도 여러 각도에서 자유분방하게 그릴수 있으며 개성도 충분히 발휘될수 있다.

멋없이 길게 늘어놓기만 하는것, 생활의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미리 고안된 틀속에 사건을 억지로 틀어맞추는것, 한두마디의 설교나 충고로 부정이 쉽게 개조되게 인간관계를 설정하는것, 형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미담적인 사실을 그대로 자료적으로 라렬하는것 등 제반현상들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없고 예술적기량이 부족한데서 오는것이다.

분석적이고 지성적인 묘사가 없는데서는 예술에서 죽음이나 다름없는 추상성, 도식성, 류형성이 나올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작품의 생명력은 마비되고 풍만한 생활정서 대신 무의미하고 메마른 설교만이 앙상하게 남게 되는것이다.

단편소설의 흥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양상을 다양하게 살려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생활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한것만큼 주제도 다양해야 하지만 양상도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소설만 놓고 보더라도 3인칭 형식만 취할것이 아니라 1인칭 그중에서도 편지체, 일기체 등 여러가지 형식을 잘 배합하여 작품의 양상을 다양하게 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심각한것, 량만적인것, 정서적인것 등을 다 담을수 있으며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랑만도 있게끔 여러 각도에서 생활을 폭넓게 그릴수 있다.

그런데 현실주제의 단편소설이 색채가 다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심각성만 추구하려는데로 기울어 진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이렇게 되면 생활을 다면적으로 그릴수 없으며 독자들의 다양한 사상미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도 없게 될것이다. 우리는 심각성을 추구함으로써 작품의 품위와 무게를 더해주는 방향에서 형상수준을 한계단 높이는것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의 환희로운 생활적랑만을 다양한 형식과 양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그리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작가들은 더욱 분발하여 사상예술적품위가 높고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깊이있고 흥미있는 다양한 양상의 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단편소설이 지닌 참다운 전투적사명을 다하자.

# 감정조직과 흥미

전래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건을 잘 다루는것과 함께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인민의 감정을 잘 조직할줄 알아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이루는 인간의 감정을 떠나서 인간성격의 진실성에 대하여 담보할수 없으며 체험을 통하지 않은 사상은 독자들에게 공감할 줄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사건과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들의 감정세계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 변화되는 흐름을 잘 짜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따라 조화롭게 조직된 감정의 흐름은 시작부터 마감까지 독자들의 정서상태를 양양시켜 작품의 정서적감화력을 높여준다.

단편소설 《전사의 노래》(리재훈, 《조선문학》 1978. 7)는 이러한 작품들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전쟁시기 협주단의 한 녀배우가 싸우는 고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극히 짙막한 생활적이야기이지만 줄곧 긴장과 흥분을 준다.

물론 극적인 정황과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의 이야기자체도 흥미있는것이다. 생사를 모르다가 석달전에 편지를 통해 찾은 사랑스러운 남동생, 우연히도 인민군대 녀전사는 자기의 그 동생이 싸우는 고지에 나가 공연하게 된다. 그러나 고지에서는 그 동생이 적구정찰에 나갔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너무도 큰 슬픔이었고 타격이였다.

그러나 그는 끄떡없이 노래를 부른다. 동생의 전우들을 위하여 자신의 슬픔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작품은 사건조직에서부터 독자들의 정서적감흥을 자아낼수 있는 극적인 정황과 사건을 설

정하고있다.

때문에 작품에서는 사건의 진행과 발전속에서 어쩔수 없이 드러나는 주인공의 감정심리와 그 변화를 성실히 전달하는것만으로도 감정흐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여기서 동생을 만날수 있다는 즐거움이 비감으로 바뀌고 다시 그 비감이 원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게 되기까지의 주인공이 체험하는 감정선은 상봉에 대한 기대, 동생의 희생, 공연 등의 사건선과 일치하면서 독자들에게 커다란 정서적 긴장과 흥분을 안겨주는것이다.

독자들은 초조감과 기대, 불안과 슬픔, 동정과 우려, 사랑과 증오의 감정속에서 이 작품을 읽게 된다. 그러면서 그 어떤 희생과 슬픔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전사가 부르는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멈춰세울수 없다는 작품의 주제에 공감하게 된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숭고한 영웅주의를 노래하는 이 작품은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본색에 맞게 감정선을 무르익히는데 기본을 두고 작품을 내부적으로 심화시키고있다.

작품에서는 남매간의 상봉과 같은 단순한 인간적 감정에 휩싸였던 녀전사의 감정심리와 그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가슴아픈 희생과 슬픔, 그것을 이겨내는 그의 내부적감정체험을 극적정황과 일치시켜 잘 보여주었기때문에 숭고한 영웅심과 애국심으로 불타는 그의 정신적성장발전과정을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작품의 감정흐름은 동생의 영웅적희생을 계선으로 하여 전후 두부분으로 갈라진다. 작품의 전반부에서의 감정조직을 주로 동생과의 상봉에 대한 기대로 이루어졌다면 후반부에 와서는 주인공의 공연출연에 대한 우려로 이루어지고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품의 감정흐름은 동생의 희생에서 굴곡을 크게 이룬다.

화선공연지의 확정, 그때까지의 녀주인공의 가슴은 초조감과 기대로 안타깝게 설레인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 석달만에야 편지를 통해 생사를 알게 된 동생, 그의 소식을 알았을 때의 주인공의 기쁨, 이러한 사연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상봉을 몹시 기대하게 만든다.

때문에 일단 그 고지에 나가 공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들의 상봉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적후정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불안감도 (주인공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독자들에게는 그들의 상봉이 매우 재미있게 이루어지리라는 흥미감으로 바뀌고 만다. 세부로 설정된 수수께끼이야기도 상봉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것으로 삽입된다.

고지에 도착한 8명의 녀배우들이 꽃다발과 떡꾸레미까지 들고 동생의 증대로 찾아가기까지 상봉에 대한 녀원과 기대는 하나의 감정축적과정으로 된다.

바로 이렇게 축적된 감정은 동생의 희생에서 폭발한다. 전쟁은 역시 준엄한것이지만 주인공도 독자도 그토록 엄청난 비보를 접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슬픔은 참말 큰것이였다. 얼마후에 맑은 서정가요를 불러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한것이였다.

작가는 여기서부터 다시 그가 자기의 공연을 원만히 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감정을 축적시키고있다.

이러한 감정축적은 그의 손에 의하여 서툴게 세워진 배낭, 들먹이는 그의 어깨, 거울앞에서 부은 눈을 보며 자기를 걱정하는 장면, 분견대장의 권고, 관람석 맨가운데 모여앉은 동생의 전우들의 우려등으로 이루어진다.

독자도 관중도 지어는 주인공자신도 우려의 감정으로 마음을 조인다.

그러나 그가 《...저는 조선인민군전사입니다.》라고 차렷자세로 힘주어 말하며 무대위로 걸어나올 때 독자와 관중은 안도의 숨을 쉬는 정도가 아니라 녀전사의 불굴의 기상에 탄복하며 환희와 열정, 감격과 흥분에 휩싸이게 된다.

그가 온 장내를 진감시키며 노래를 부르는것으로 폭발된 감정은 독자들을 송고한 정신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비약된 감정이였다.

물론 전사들은 그의 노래속에서 아름답고 맑은 목소리만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불같은 증오와 보복의 웨침을 듣고있었을것이지만...

작품의 감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정연한 흐름을 이룬다.

상봉에 대한 열렬한 기대와 녀원, 그것의 파탄,

이런것으로 인한 공연성과의 우려, 성공 등은 축적과 폭발의 심한 굴곡을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장하고있다. 공연이전의 모든 사건과 세부들도 하나의 감정축적을 위한 설득력있는 수단들이였다.

이러한 설득력있는 수단들에 의하여 독자들의 정서상태는 상승과 굴절, 상승과 고조의 곡선을 이루면서 양양되어나가는것이다.

작품은 이렇게 단편적인 생활속에 희생과 슬픔이라는 무거운 사건을 제기하였지만 인물들의 행동을 감정선에서 파고들었기때문에 그 어떤 가혹한 희생과 슬픔도 이겨내고 일어서는 영웅전사들의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해낼수 있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읽어나면 생각이 깊어지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작가가 감정선을 고려하지 않고 흥미있는 극적사건을 짜는데만 몰두하였더라면 이 작품에서 이렇듯 인상깊은 형상과제를 제기할수도 없었을것이며 또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독자들의 공감은 얻지 못했을것이다. 작가는 사건의 발전과 함께 그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감정과 그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성실히 조직해나감으로써 감동깊은 산 인간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작품의 구성은 단순히 사건조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감정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인간이 있는곳에 생활이 있는것처럼 생활속에는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들의 감정세계가 있다. 때문에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리는 형상작업에서 감정조직문제는 필수적인것이다. 같은 사건을 취급한 작품도 감정조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며 형상의 질이 좌우된다. 작품의 인물과 독자와의 관계속에서 작용하는 작품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을 취급한다 해도 그것이 독자들의 감정과 정서에 강한 자극과 충동을 줄수 없는것이다.

오늘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산 인간전형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 근로자들의 생산과 투쟁을 고무추동해야 할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작품구성의 기본으로 되는 감정조직문제는 형상의 질을 높이고 흥미를 돋구기 위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할것이다.

## 지하전선을 찾아온 단편소설

저는 잡지 《조선문학》을 즐겨 읽는 애독자의 한사람입니다. 다양한 현실생활을 반영한 단편소설들을 읽으면서 저는 아름답고 훌륭한 주인공들과 사귀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주인공들은 다같이 생활과 투쟁의 앞장에 서서 독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고 이끌어주고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들끓는 생활을 반영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사상정서적미감에 맞는 문학작품들은례외없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예작품들이 독자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자면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단편소설 《마지막 버력》(《조선문학》1978년, 10호, 한웅빈작)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광부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신쟁에 머무른것이 옳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파연 눈에 성큼 띄울만큼 큰 버력더미들이 있을것인가... 그것은 누구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사소해보이는것, 우습게까지도 보이는 결함들이 마지막 버력으로 남아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 마지막 버력을 쓸어버리고 사회를 티없이 맑고 깨끗하게 주체의 요구대로 완성해나가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적은것이라도 이 마지막 버력에 양보하여서는 안된다!...)

.....

이는 단편소설 《마지막 버력》의 끝문장입니다. 버력!-이것이 우리 지하전선의 투쟁대상입니다.

버력을 신속히 그리고 깨끗이 처리해야 제2차7개년계획의 유색금속 100만톤고지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습니다.

단편소설의 주인공인 광산당비서 장승한은 진정한 친근하고 다정한 우리의 당비서입니다.

그는 막장의 로동자들과 마주하고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되는게 좀 있소. 우리가 완전한 기계화라고 할 때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종합적기

계화를 말하는것이요. 동무들이 굴뚝기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한다면 기계화뒤에 동무들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안될게 아니요?》

.....

《이 나머지 버력이 많지는 않소. 그러나 배일은 오늘보다 더 많아질것이요. 버력더미란 그냥 두면 커지기 마련이니말이요.》

지하전선의 전사들인 우리 굴진공들은 장승한비서의 이 말에서 자신들의 생산투쟁과 생활을 돌이켜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사실 기계화된 우리 막장들에 현재 남아있는 한두 광차의 버력이 무슨 큰것이겠습니까. 그전날에 비하면 무시할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하전선을 찾아온 단편소설 《마지막 버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작품의 주인공처럼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 어버이수령님께서 광산에 찾아오실 때 아직 남아있는 버력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대신 심려를 끼쳐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자란 로동계급의 도리라고 할것인가.

사실 오늘에 와서 기계화수준이 높아져 힘든 일이 많이 없어진 조건에서 《이런것쯤 손으로 하는 것이야》하는 낡은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그렇듯 생동하게 그려낸 단편소설 《마지막 버력》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굴진공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부 초소들에 남아있는 마지막 버력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막장작업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새 전망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관철하는 투쟁에 티없이 맑은 충성심을 가지고 힘차게 펼쳐나서리라는것을 결의합니다.

돌파구를 열어가는 우리 지하전선의 영예와 자랑, 기쁨을 노래한 생동하고 심도있는 작품을 《조선문학》에 계속 많이 실어주시 바랍니다.

**함경남도 장진 중흥광산 4호갱**

**2 중천리마굴뚝기소대 굴진공 김홍철**